

경희대학교

충동문회보

KYUNG HEE UNIVERSITY ALUMNI NEWS



사진제공 : 일간스포츠

慶熙男 대한민국을 쫓추게 하다

2010년 여름은 스포츠 열기로 유난히 뜨거웠다.
남아공월드컵에서 이정수(체육98) 동문이 두 골을 기록하며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에 큰 역할을 했다.

동문회보가 새로워집니다

- 23만 동문의 어울림마당 총동문회보가 큰 변화를 시작합니다.
1. 회설, 교수칼럼, 건강칼럼 란을 새로 마련합니다.
 2.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자랑스런 동문님들과의 인터뷰 기사를 고정 게재합니다.
 3. 지면 편집을 참신하고 읽기 쉽게 업그레이드 합니다.
- 총동문회보의 변화는 계속됩니다. 총동문회 홈페이지(www.khua.or.kr)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더욱 빠르고 편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삼성전기가 알려주는 시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두들 미래의 기술이라고 말할 때,
삼성전기는 오늘의 현실로 보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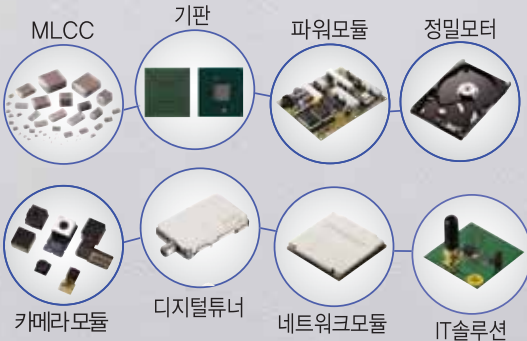
스마트폰으로 열어가는 더 빠른 세상,
3D TV로 보는 놀라운 입체 영상,
간편한 무선 인터넷 세상으로 이끈 태블릿PC

이제 환경과 생명을 소중히 하는 기술로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기술
삼성전기가 만듭니다

변화를 이끄는 리더 - 삼성전기

미래를 창조하는 첨단기술, 첨단부품



뉴욕에 울려 퍼진 경희인 대합창

2010 북미주 총회
6월 17~19일 열려

미국 각지에서 모여
모교의 추억 되새겨



▲이봉관 총동문회장, 조인원 총장,
피아니스트 서혜경 교수(오른쪽부터)



▲메달리스트 이용웅 동문을 축하하는
이건수 고문(좌)



▲골프대회 수상 동문(왼쪽부터 황혜숙,
한명남, 이용웅 부부, 이금구)



▲제14차 북미주총동문회 총회 및 골프대회가 미국 뉴욕에서 1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동문들은 만찬을 함께 즐기며 경희인의 화합을 다졌다.

제14차 북미주총동문회 총회 및
골프대회가 지난 6월 17일부터 19
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총동문회 이봉관
(상학66, 서희그룹 회장) 회장과 모
교 조인원 총장을 비롯해 이금수(정
외60, (주)동아일렉콤 회장) 고문, 한
명남(정외63, 모교 대학평의원회 의
장) 자문위원장, 이수경(법학69, 경
향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감
사, 이진곤(정외69, 국민일보 논설고
문) 사무총장 등 한국에서 참석한 임
원들과 신영수(경영67) 북미주동문
회장, 최재홍(정외61), 윤정남(체육
61) 뉴욕동문회 고문, 조병태(체력관

리65) 전 미주동문회장 등 각 지역 동
문회장과 100여명의 미주 동문들이
참석했다.

◆내년 총회는 시애틀서

제14차 북미주총동문회 총회 및
골프대회가 개최된 뉴욕시는 미국
상업·금융의 중심지이며 브로드웨
이와 주립박물관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문화의 중심지이다. 한국
굴지의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위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한인들의 경제가 성장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동문회 전재현(전자공학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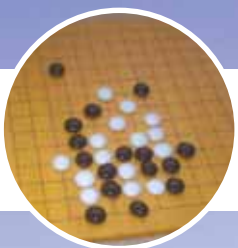
총동문회 이사) 회장은 “이번 총회에
서 북미주에 거주하는 모든 경희 동
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교를 기억
했다”며 “북미주동문들의 친선을 도
모하고 경희 발전의 미래를 새롭게
조명하는 날로 기억됐다”고 그 의미
를 전했다.

이번 골프대회 및 총회 행사는 6
월 17일 뉴저지 메리어트 호텔 체크
인으로 시작됐다. 18~19일 양일간
골프대회와 관광이 함께 진행됐는데
시애틀, L.A, 워싱턴D.C., 애틀란타,
필라델피아, 뉴욕 등지에 거주하는
동문들이 대거 참여, 북미주 경희인
의 화합을 다지는 잔치가 됐다.

◆골프대회도 열려

6월 19일에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
린 총회 및 골프대회 시상식에 참여
한 총동문회 이봉관 회장은 “새 임기
를 맞이하며 북미주총동문회 총회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주동문회의 활성화를 통
해 세계 경희동문회가 날로 발전하
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서울 총동문회에서 마련한 뉴욕
동문회기가이 자리에서 전달됐으며
이어 이봉관 총동문회장이 박윤식
(법학60) 동문에게 2010 경희인 상
을 수여했다. 더불어 김홍웅(체육63)
전 LA동문회장, 이종완(체육70) 전



제1회 경희대학교총동문회장배 바둑대회

경희동문과 재학생 간의 친목 도모와 건전한 여가선용, 취미생활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1회 경희대학교총동문회장배 바둑대회를 개최하오니 동문, 재학생, 교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 11월 6일(토) 09:30~17:00
장 소 :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1층(서울캠퍼스)
참가비 : 1만원 / 우승, 준우승 상패 및 부상(점심식사, 참가기념품 제공)
참석대상 : 경희대학교 동문 및 가족, 경희대학교 교직원, 경희의료원 직원, 재학생(무료)
※ 신청서 작성자에 한함(소속, 학과(입학년도)와 연락처, 급수 기재)
대회방법 : 조별 변형스위스리그, 총호선, 덤6집반, 1대국의 사용시간은 1시간
※ 대회 출전한 입상자를 위한 상품뿐만 아니라 프로기사와의 지도대국, 다면기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 수 : 경희대학교총동문회 홈페이지 공고중(www.khua.or.kr)
사무처 전화 02-744-8854~6 / 팩스 02-744-0067 / khua2001@hanmail.net
※ 제1회 개최인 관계로 동호회, 소모임 등 바둑에 관심 있는 분들의 연락 부탁드립니다.

북미주동문회 대성황



▲미국 관광에 나선 동문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베어마운틴 주립공원에서 다정하게 점심을 먹고 있다.

시애틀동문회장, 최효영(치의75) 캐나다동문회장에게 2010 해외동문 공로상이 수여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암을 물리치고 피아니스트로 활발히 활동하는 모교 서해경 교수가 감동적인 연주를 보여주면서 동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총동문회 이진수 고문이 골프대회 및 총회에 참석, 북미주동문회 발전을 위해 골프대회 및 총회 경비 지원금으로 1만달러를 뉴욕동문회에 기부해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틀 간 열린 골프대회에서는 이

금구(체육72) 동문이 우승했으며 뉴욕 이용웅(경영63) 동문이 메달리스트로 선정됐다. 여성부에서는 위싱턴 김종일(섬유공학69) 동문의 부인이 우승했으며 단체상은 시애틀동문회에 돌아갔다.

이번 북미주총동문회 총회 및 골프대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모교와 동문회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북미주 지역 동문들이 모여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됐다.

2011년 제15차 북미주총동문회 총회와 골프대회는 시애틀에서 열릴 예정이다.

골프대회 시상 결과

■전체 경기결과

시상 내역	성명(전공, 학번)
메달리스트	이용웅(경영63)
우승	이금구(체육72)
준우승	김영길(경영66)
3위	한명남(정외63)
롱기스트상	윤정남(체육61)
니어리스트상	조관영(상학58)
단체상	시애틀동문회

■여성부 경기결과

우승	김종일(섬유공학69) 동문 부인
준우승	황해숙(간호69)
3위	김원정(신방76) 동문 부인

會 說

모교, 세계명문 향해 비상

남아공월드컵 축구경기는 지금 돌아봐도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8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희는 빛났습니다. 이정수 동문의 호쾌한 골 두 개가 그 빛이었습니다.

재학시절에는 공격수였는데 프로그래밍에 입단하면서 수비수로 활약했습니다. 화려한 포지션이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그 이 동문이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냈습니다. 숨어 있던 보석이 마침내 빛을 발한 것이지요.

비록 경기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이 동문과 함께 한국선수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이운재 동문 또한 우리의 큰 자랑입니다. 특히 '2002 한일월드컵' 때의 활약이 바로 어제일인 듯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이분들은 물론이려니와 수많은 동문들이 나라안팎에서 경희인의 자긍심을 드높여주고 있습니다.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갈수록 더 많은 동문과 재학생들이 모교의 이름을 빛내고, 이에 힘입어 우리 모교는 세계의 명문으로 힘차게 비상해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모교는 지난해 개교 60주년을 맞으면서 각종 대학평가를 통해 이미 국내 일류로 공인됐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세계명문의 반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모교는 진작 그 목표를 향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서울캠퍼스 마스터플랜인 '스페이스 21' 착공식이 노천극장에서 열렸습니다. 국제캠퍼스 개발 및 개조사업도 곧 시행됩니다. 일련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두 곳은 공히 세계적인 미래지향적인 초일류 캠퍼스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학의 약진에 발맞춰 의료원 또한 면모를 일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 모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의료기관 비전 선포식'이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1차 목표는 경희의료원과 동서신의학병원을 경희대학교의료원으로 통합하고 이에 맞춰 각 병원의 명칭과 기구를 재조정하면서 의료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 미래지향적인 내용 규모 시설의 제3병원을 국제캠퍼스에 신설함으로써 이 분야에서도 '초일류 경희'를 구현하게 됩니다.

경희의 이 원대한 꿈은 모든 경희인이 함께 꿀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교의 지휘부, 교수, 교직원, 학생들의 합일된 노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23만 우리 동문의 지원과 협력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총동문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동문들께서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다면 총동문회는 모교의 발전을 위한 견인차가 되고 동문 간 화합과 친목의 가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입니다.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따뜻이 지켜보고 힘을 보태주십시오.

제6회 경희대학교총동문등산대회

동문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6회 경희대학교총동문등산대회가 10월 23일(토) 서울 도봉산에서 개최됩니다. 동문여러분의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제5회 총동문등산대회 사진>

- 일 시 : 10월 23일(토) 09:30~16:00
- 등 록 : 08:30~09:30
- 장 소 : 도봉산(집결지: 광륜사 뒤 배드민턴장)
- 교 통 편 : 1호선, 7호선 도봉산역(도봉역이 아님)
- 참가대상 : 경희대학교 동문 및 가족, 경희대학교 교직원
 - ※각 단체의 모임을 등산대회에서 개최하시면 좋습니다.
- 참 가 비 : 1인당 1만원, 중학생 이하 5천원(점심, 기념품 제공)
- 접수마감 : 10월 16일(금) (기념품, 도시락 준비 위해 마감일 전 접수요망)
- 입금계좌 : 국민은행 817201-04-02877(예금주: 경희대총동문회)
- 문 의 : 경희대학교총동문회 사무처 (전화 02-744-8854~6 / 팩스 02-744-0067)
 - ※입금 후 전화 부탁드립니다.

“ 경희의 위상 스포츠에서 빛을 더하다 ”

〈1면에서 이어짐〉

◆ 남아공월드컵에서 두 골 기록한 이정수 선수



▲축구 이정수 동문



▲축구 이운재 동문



▲축구 김형일 동문

지난 6월 열린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사상 첫 원정 16강에 진출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세계 곳곳에 드높였다.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운재(체육92), 이정수(체육98), 김형일(스포츠의학2003) 동문의 활약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전 중앙 수비수 이정수 동문은 그리스전에서 역대 월드컵 최단 시간 선제골을 기록하고 나이지리아전에서 골을 넣어 월드컵 원정사상 첫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루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거미손’으로 불리며 17년 동안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골문을 든든히 지키던 이운재 동문은 지난 8월 11일 열린 나이지리아와의 평가전을 끝으로 대표팀에서 은퇴했다. 월드컵 4번 출전 경험을 가진 이 동문은 대표팀의 큰형님이자 간판 수문장으로 활약하며 자랑스러운 경희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글래디에이터’로 유명한 김형일 동문 또한 남아공월드컵 국가대표로 함께 선발됐으며 최근 K리그 울스타 베스트11에 선정된 바 있다.

◆ 전국대학야구 하계리그 우승



▲전국 대학야구 하계리그에서 2년 만에 정상에 오른 모교 야구부

지난 7월 12일 열린 2010 회장기 전국 대학야구 하계리그 결승전에서 모교가 성균관대를 5-4로 꺾고, 2008년 춘계리그 우승 이후 2년 만에 대학 정상에 올랐다.

이날 모교 조인원 총장과 박구홍 정책부총장, 오택열 국제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30여명이 경기장을 찾아 학생들과 함께 열띤 응원을 보냈다. 경기가 끝난 후 조인원 총장은 “이국성 감독과 모든 선수들이 땀 흘려 얻은 멋진 승리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다시 한 번 축하한다”며 선수들과 우승의 기쁨을 나누었다. 이어 이국성 감독은 “선수들의 마음가짐과 야구를 향한 열정, 그리고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하나가 된 것이 이번 우승의 원동력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하계 대학배구 준우승

대학야구 우승의 열기가 이어지면서 지난 7월 15일 열린 ‘2010 삼성화재 배 전국 대학 배구 하계대회’에서 모교가 경기대를 3-1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다음 날 열린 인하대와의 결승에서 모교가 3-0으로 안타깝게 패했지만 흘린 땀방울만큼 값진 준우승을 이끌어내 큰 격려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각 팀 지도자들과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 방송 해설위원까지 이례적으로 대거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시상식에서 모교의 활약이 더욱 돋보이면서 우수 지도자상에 김찬호, 서브상에 이재복, 공격상에 이강원 등 감독과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 여러 스포츠 분야에서 빛을 내는 경희인



▲야구 하일성 동문



▲야구 홍성훈 동문



▲핸드볼 윤경신 동문



▲쇼트트랙 이호석 동문



▲배구 김학민 동문

이 외에도 모교 출신으로서 여러 스포츠 분야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이 있다. 야구에서는 경희인의 활약이 더욱 눈부시다. 제11대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을 지낸 하일성(체육67, 스카이엔터테인먼트 회장, 총동문회 체육위원장) 동문은 최근 4년 만에 KBS 야구해설자로 복귀했다. 또한 체육대학동문회장으로 취임해 여러 활동을 주관하면서 모교와 동문들을 위해 봉사하게 됐다.

하일성 동문과 더불어 최근 프로야구에서 타점 1위를 기록하며 시즌 최다 타점기록에 도전하는 홍성훈(체육95) 동문은 2010 프로야구 울스타 투표에서 역대 최다 득표의 영예를 안아 대한민국 야구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핸드볼에서는 203cm의 장신으로 잘 알려진 윤경신(체육92) 동문이 핸드볼의 본고장 유럽 무대에서 세계 최고 선수로 평가받고 2010 핸드볼 큰잔치 MVP, 득점 상을 휩쓸며 한국 남자 핸드볼의 간판스타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쇼트트랙에서는 이호석(스포츠지도2005) 동문이 대표팀 맏형으로서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남자 1000m에 이어 3000m 슈퍼파이널과 5000m 계주까지 금메달 3개를 따내고 1500m 동메달을 따면서 종합점수 78로 2년 연속 개인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배구에서는 김학민(스포츠지도2003) 동문이 대한항공 점보스 소속으로 2008년 V리그 1라운드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고 최근 제2회 AVC컵 남자 배구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양선희 학생기자〉



총동문회 제25대 집행부 출범식

총동문회 제25대 집행부 출범식이 지난 7월 5일,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15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봉관(상학66, 서희그룹 회장) 총동문회장은 “지난 6월에 열린 미주총회에 참석해 동문회가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고, 모교 또한 Space 21 작공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가진다”고 밝혔다. 더불어 “역대 회장님과 임원님들께서 이루신 훌륭한 업적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25대 집행부 임원님들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박찬법(정외63, 금호아시아나그룹 고문) 명예회장은 “모교와 학창시

절을 생각해 동문회 임원이라는 어려운 자리를 수락해 주신 신임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모교와 동문회를 위해 많은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 집행부 임원 위촉장 수여

이날 이봉관 총동문회장은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장과 자문부위원장, 자문위원에게 추대장을 수여하고 부회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집행부 임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근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된 엄홍철(정외64) 자문위원, 전국공인회계사회 제40대 회장에 당선된 권



▲박찬법 명예회장에게 추대장을 전달하는 이봉관 총동문회장



▲(오른쪽부터) 건배를 제의하는 국회의원 김춘진(치외70), 정범구(정외71)

오형(경영65) 자문위원, 의왕시장에 당선된 김성제(경제81) 부회장에게 동문들의 축하가 담긴 축하패를 전달했다.

출범식을 마치며 하남국제오페라단과 유미자오페라단을 이끌고 있는 유미자(성악81) 동문이 ‘목련화’를 비롯해 여러 곡의 축하를 완벽하

게 열창해 큰 박수를 받았으며 특히 이번 자리에는 밴쿠버동문회에서 정병렬(섬유공학76) 총무가 참석했다.



체육대학동문회 원로교수 모임

체육대학동문회(회장 하일성)는 지난 7월 14일, 신임 하일성(체육67, 스카이엔터테인먼트 회장, 총동문회 부회장) 동문회장을 비롯해 이병두(체력관리67,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총동문회 이사) 수석부회장, 모교 최영렬 체육대학장 등 16명의 동문회 회장단 및 동문 원로 교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하일성 동문회장이 인사를 전했고 최영렬 체육대학장이 참석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경희보감 선물을 후원했다.



분당수지동문회 계족산에서 맨발트래킹

분당수지동문회(회장 김근식)는 지난 6월 19일, 대전 계족산에서 야외행사를 개최했다.

23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분당수지동문회 김근식(원예75, 동방침구제작소 대표, 총동문회 부회장) 회장과 총동문회 사무처 및 여러 동문들의 찬조로 풍성하게 진행됐다.

분당 미금역에서 버스로 함께 출발한 동문들은 구름이 낀 선선한 날

씨 아래 약 15km에 이르는 황토길을 맨발로 산행했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대청댐에서 송어회와 매운탕을 점심으로 나눈 후 분당으로 돌아와 뒷풀이를 즐겼다.

분당수지동문회 모임 및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향후 일정은 홈페이지(cafe.daum.net/khbundan-gsujimoim)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동문회 2010년 1학기 장학금 전달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동문회(회장 윤도준) 2010년 1학기 장학금 시상식이 지난 6월 22일 열려 18명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번 시상식에서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동문회는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에게 2658만원, 의과대학 재학생 3명에게 1200만원 등

총 3858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날 참석동문들은 동기회별로 장학금을 더 많이 기부할 것을 독려했다. 더불어 이번 장학금을 수령하는 학생들 또한 졸업 후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희치대 장학회’ 100억 기금 조성한다

6년제 치대로 환원 건의 ... 9월 4~5일 총장배 골프대회

치과대학동문회(회장 김세영)가 최근 ‘(사)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동문 장학회’를 설립하고 100억 기금을 목표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또한 동문회는 지난 6월 4일, 세종 호텔에서 교보생명과 기부보험 협약식을 진행하고 이사회를 개최한 것에 이어 오는 9월 4~5일, 제주에서 총장배 골프대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세영 회장 기부보험 가입

이날 김세영(치의76, 김세영치과의원 원장, 총동문회 부회장) 회장은 장학회 이사장으로서 1억 기부보험에 가입하기로 했으며 이두희(치의74, 이즈치과의원 원장) 동문은 장학회 감사로서 5천만원의 기부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장학회는 교육부로부터 최근 사단법인으로 정식 허가를 받았으며

이사장에는 김세영 동문회장이, 이사로는 정철민(치의73, 정철민치과의원 원장, 총동문회 이사) 동문, 나금균(치의76, 삼성치과의원 원장, 총동문회 부회장) 동문, 마경화(치의77,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상근이사) 동문, 안민호(치의78, 경희치과병원 원장, 총동문회 부회장) 동문, 조선경(치의82, 선경치과의원 원장, 총동문회 이사) 동문이 활동하며 감사로는 우이형(치의73, 모교 치과병원장, 총동문회 부회장) 동문, 이두희(치의74, 이즈치과의원 원장) 동문이 활동하게 됐다.

김세영 동문회장은 “경희치대가 치전원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지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고 보조도 미미해 BK21에서 연속 탈락하는 등 연구역량이 부족하고 교수진 확보도 미흡하다”

며 “동문회가 직접 나서서 (기부보험을 바탕으로) 기금을 모아 나간다면 10년 뒤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학회는 더불어 향후 대학 교수들에게도 기부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4학년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기부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 대구, 호남 등 지방순회를 하면서 기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6년제 치대로 환원 건의

지난 6월 4일 열린 치과대학동문회 이사회에서는 현행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제를 치과대학 학제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 또는 성명서를 동문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해 치과대학을 비롯한 재단과 학교 본부 측에 전달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회장단에 위임하기



▲지난 6월 열린 기부보험 협약식(사진제공: 치과신문)

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학제 개편 당시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국립대와는 달리 사립대는 지원금 규모가 미미한 점, 초기 제도 도입 시 주장한 기초치의학육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 졸업생들의 임상수행능력 저하 등을 치의학전문대학원제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세영 회장은 “(비록 수능점수

차이가 인재 차이는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한 학생들을 선발할 때에는 상위 0.4% 안에 드는 우수한 학생이 입학했으나 현재는 7% 안에 드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립대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사립대는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 시간이 흐를수록 구조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 애틀랜타동문회 유영준 신임회장 취임



미국 애틀랜타동문회 차기 회장으로 유영준(정외79) 동문이 최근 취임했다.

애틀랜타 동문회는 올해 봄부터 매월 주기적인 골프라운딩을 개최하고 다양한 소모임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가족동반 야유회 개최 계획을 논의하는 등 동문회 활성화를 통해 경희인의 긍지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1996년 하계 올림픽개최로 유명한 애틀랜타는 미국 동남부 중심인 조지아주의 수도이다.

더불어 CNN, 코카콜라, 델타항공, UPS 등의 본사가 있고 명문 조지아텍과 에모리대학 등이 위치한 도시이다.

법대 20회 졸업동기회 신임회장에 임무성



법과대학 20회 졸업동기회는 지난 7월 23일, 20여명의 회원이 모여 신임 임원단을 구성했다.

이날 신임 회장에 임무성(법학64, 삼성화재(주) 상근고문, 총동문회 이사)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부회장에는 신용섭(행정68, 코레일 유통(주) 상무이사, 총동문회 이사) 동문, 총무에는 박상혁(법학68, 박상혁법무사사무소 대표, 총동문회 이

사) 동문, 감사에는 석인환(법학65, (주)디에이지코리아 회장, 총동문회 이사) 동문을 선출했다.

이날 임무성 회장은 “침체된 본회를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하여 끈끈하고 활력이 넘치는 동기회로 만들고, 법대동문회와 총동문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자리에는 법과대학동문회 김주형(법학68,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총동문회 부회장) 회장, 김배한(법학64, (주)포르테라인 회장, 총동문회 자문위원) 동문이 참석해 다함께 즐거운 연회를 가졌다.

무역학과동문회 이창민 신임회장 선출



무역학과 동문회는 지난 6월 14일, 임원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창민(무역83, 카멜리스 대

표, 총동문회 이사)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3기 동문회 회장단, 각 학번 대표들과 함께 모교 김학민 무역학과장, 학과 재학생 동아리 대표 등도 참석해 지난 10년간 부회장으로 무역학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이창민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

다.

올해 무역학과 30주년을 맞아 동문회는 오는 11월에 동문, 재학생, 교수, 관계자들이 모여 30주년을 기념하고 무역학과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경희대학교 무역인의 날’을 개최하고 경희 무역 30년사 편찬, 무역학과 발전기금 마련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001년 출범한 무역학과 제3기 동문회는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동문체육대회와 사운회를 개최했다. 또한 매년 크고 작은 행사를 주선하는 등 무역학과동문회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무역학과 장재원(무역86) 총무

미술대학 동문 작품전

‘이후30주년’ 개최

미술대학 동문 40명이 참여하는 전시 ‘이후 30주년’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렸다.

이후전은 지난 1980년 8월 8일, 서양화전공 졸업생들에 의해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창립됐다. 매년 1회의 정기전 이외에도 대만 금천화랑 초대전(1984년), 이후 아트페어(2004년), 장상득갤러리 전시(2008년) 등을 개최했으며 연인원 100여명의 회원을 갖추고 있다.

이후전의 다양한 활동은 모교 서양화 전공의 친구회, 한국화 전공의 회토전, 소조전공의 경희조각회 등 여러 단체가 창립되고 활동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미술계에서 널리 알려진 중진작가들을 배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30주년을 맞아 해 초기 멤버들부터 최근 회원들까지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고 아르헨티나, 호주, 중국, 독일, 일본 등 13개국 외국 작가들과 연대한 전시를 개최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법과대학동문산악회 제209회 청계산 산행

법과대학동문 산악회 ‘경산회(회장 석인환)’는 지난 7월 18일, 양평에 위치한 청계산으로 제209회 산행을 떠났다.

이날 비가 조금 내리는 가운데 집결 장소인 국수역에 28명의 회원이 모여 오전 10시 20분경 산행을 시작했다. 다행히 형제봉(507.6m)에 올라가니 비가그친 쾌청한 날씨로 북

한강과 남한강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동문들은 청계산의 나무 그늘을 따라 피톤치드가 전신으로 스며드는 트레킹을 마음껏 즐겼다.

하산 후 두물머리에 위치한 연칼국수집에서 연저육짬과 막걸리로 목을 축이며 즐거운 뒷풀이 시간을 가졌다.

신방1기동창회, 1박 2일 제주여행 다녀와

총동문회 김성호 수석부회장 후원 ... 24명 동문 총동문회 연회비 단체 입금

신문방송학과 65학번 동기생들의 모임인 '신방1기동창회(회장 이윤재)'는 지난 6월 6~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제주여행을 다녀왔다.

24명의 동기생들이 참가한 이번 제주여행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호(신방 65, (주)제양항공해운 회장,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동문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모처럼 만에 동기생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가진 여행은 아스라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42년 전 설악산 졸업여행을 연상케 했다.

첫 날인 6월 6일에는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성판악으로 이동하여 한라산 등반을 시작했다. 일행 중 14명은 체력에 부담이 된 듯 7.3km(해발 1,500m) 지점인 진달레밭 대피소에서 되돌아가고, 10명

은 정상인 백록담을 거쳐 관음사에 이르는 장장 18.3km를 '놀명 쉬명' 하며 8시간 만에 주파하는 아직도 녹슬지 않은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했다.

둘째 날에는 아침나절 비가 흩뿌리는 날씨였지만 제주의 비경인 '올레길' 7코스를 비롯해 '용머리해안', '밀랍인형 전시관' 등을 동창들과 함께 즐거운 답소를 나누며 거닐면서 그동안 쉼 없이 쌓아온 우의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

관광을 마친 후 일행들은 김성호 동문이 운영하는 운송관련 사업체인 (주)제양항공해운을 방문, 아파트 8층 높이에 버금가며 냉동설비 등 최신 시스템을 갖춘 물류창고의 규모에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주)제양항공해운은 국내 및 국

제선 항공·해운 화물의 운송/통관/보관/하역/배송 등 물류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물류회사이다. 현재 제주시 외도 1동 일원에 최신 설비를 갖춘 3개(1개는 신축 중/공정률 95%)의 물류센터를 보유하는 도내 굴지의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이날 참석한 동창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이번 제주여행은 김성호 동문의 특별 배려로 눈(眼)은 물론 제주특산의 산해진미로 입(口) 또한 즐거웠으며 1박 2일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추억에 길이 남을 알차고 값진 시간이었다.

또한 제주여행을 기념하기 위하여 함께 한 24명의 동문 모두 총동문회 연회비를 단체 입금하기로 결정해 모교와 동문회에 대한 애정을



다지는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신방1기동창회'는 매년 봄, 가을로 나누어 2~3차례 정기모임을 갖고 단체여행 또는 연말연회, 모교

방문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 회마다 20여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46년 동안 지속되어 온 우의를 다지고 있다.

-신방1기동창회 강봉식(신방65) 총무

〈연회비 단체 입금 동문〉

고수웅(평생회비 납부), 김성호(평생회비 납부), 김원택(2010년 회비 기납부), 김창수(2010년 회비 기납부), 강봉식, 김성희, 김용한, 김윤식, 김태영, 김현배, 김희성, 박도화, 박애숙, 송종숙, 신범철, 안명수, 이래성, 이명자, 이명숙, 이윤재, 조용준, 차효식, 최규섭, 황인규



경희비즈니스클럽, 폴리처상 사진전 관람

경희비즈니스클럽 운영위원들은 지난 7월 15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폴리처상 사진전'을 관람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성호(신방 65)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박창규(정외68) 비즈니스클럽 사무총장, 김주형(법학68) 법과대학동문회장 등 20여명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해

단체로 사진전을 관람했다. 이후 '백년옥'에서 저녁식사를 겸해 비즈니스클럽의 향후 운영과 총동문회와의 유기적 관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앞서 경희비즈니스클럽은 지난 6월 24일, 양주 CC에서 골프모임을 겸한 월례회를 개최했다.

법과대학동문회 인터넷 카페 개설

법과대학동문회(회장 김주형)는 최근 동문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

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khlawcafe>이며 동문소식, 카페앨범, 경조사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법과대학 동문 화합의 장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

또한 법과대학 79학번 동문들이 지난 3월초 개설한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khlaw79>)를 83학번 동문들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79학번 동문들은 최근 30년 만에 모임을 갖고 친목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법대 77동기회 골프모임

법과대학 77동기회(회장 피재욱)는 지난 8월 6일, 용인CC에서 골프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박덕영(법학73) 동문과 최윤정(법학86) 동문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고 총동문회에서 찬조한 골프우산과 골프책, 양상욱(법학77) 동문이 준비한 선물,

(주)경희비즈니스에서 찬조한 한방제품이 동문들에게 전달됐다. 이날 식사는 니어리스트인 김용섭(법학77) 동문이 찬조했다.

77동기회는 향후 매분기 1회 정기적으로 골프 모임을 가지며 동문들과의 화합에 더욱 더 힘을 예정이다.



아름다운 모교 캠퍼스에서 열린 생활과학대학동문회 ‘慶熙 4季 브런치’



생활과학대학동문회(회장 윤영미)는 지난 7월 7일, 모교에서 ‘추억따라 慶熙 4季 브런치’를 주제로 모임을 가졌다.

생활과학대학동문회에서 기획한 ‘慶熙 4季 브런치’는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모교 캠퍼스를 사계절에 따라 반가운 동문들과 함께 걸으며 추억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가정학과, 아동가족(구. 가정관리학과), 주거환경, 의상, 식품영양학과 등 총 5개 학과 약 40여명의 동문이 모여 화합을 다졌다.

30년 만에 모교를 찾은 66학년부터 2004학번까지 친구세대를 아우르는 뜻 깊은 모임을 통해 동문들은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고 발전하는 모교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이후 선동호에서 브런치를 먹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모임을 가졌고 다시 미술대학

으로 자리를 옮겨 경품 추첨을 환호 속에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모교 문화홍보처와 총동문회에서 기념품, 화환, 경품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리풍주식회사 한국지사 이사로 활동 중인 의상학과동문회 강애자(의상78) 회장은 경품으로 티셔츠 20벌을, 파리크라상 마케팅 실장으로 재직 중인 김수진(식품영양학88) 동문은 브런치를 제공하는 등 동문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생활과학대학동문회 윤영미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브런치’ 모임을 색다른 모교 방문 문화로 지속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계절에 맞춰 클래식 음악, 교양강좌, 7080 풍으로 주제를 달리해 보다 알찬 ‘慶熙 4季 브런치’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관령-강릉으로 떠난 ROTC동문회 제2회 테마여행

ROTC동문회(회장 송권영)는 지난 6월 12일, 1기 대선배부터 50기 1년 차 후보생에 이르는 동문과 동문 가족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관령 옛길과 강릉 경포대 일원으로 제2회 경무회 테마여행을 떠났다.

도로도 차량도 없던 그 먼 옛날에 과거시절을 보기 위해 오르내렸다는 대관령 옛길에서 삼삼오오 짝을 맺은 가운데 산행이 시작됐고 초여름 수목들의 녹음과 옛 정취가 어우러진 13km의 아흔하홉 구비를 2시간의 정담을 나누며 산행을 즐겼다.

산행 후에는 강릉시내에 위치한 40년 전통의 농촌 한정식집에서 동동주를 곁들인 산해진미의 밥상으로 만찬을 즐기며 동문들의 우의를 다지고 식사 후 경포호반에 들

러 바닷가를 거닐며 옛 추억을 더듬어 보는 짜릿한 시간을 가졌다.

경무산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마산에서 올라온 6기 강충웅(체육64) 동문과 캐나다에서 온 정병렬(섬유공학76) 동문이 참여해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고 ‘경무 108기 금조성 캠페인’에 많은 동문들이 성원을 아끼지 않는 등 신선하면서도 유익한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이종소(경제59) 1기 동문은 “우리 동문들이 평소 좋은 일을 많이 하여서인지 오던 비도 멈추게 하고, 국가대사인 월드컵 경기마져 좋은 성적을 거두어 온 국민이 열광하고 행복한 밤을 갖게 된 것 같다”며 회원들의 애교심을 칭송했다.

후보생 병영 훈련 위로 방문

ROTC동문회(회장 송권영) 임원들은 지난 8월 11일, 김엽 서울캠퍼스 부총장과 함께 학생 중앙 군사학교에 입소해 하계병영 훈련을 받고 있는 49기 후보생들을 위로했다.

후보생 위문에 앞서 임원들은 학생 중앙 군사학교 이승우 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학교장 및 교관들에게 치하의 인사를 하고 기념품을 증정했다.

이어 훈련 중인 후보생들을 찾아 위로하는 자리에서 김엽 부총장은 한사람의 낙오



자없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무사히 귀교할 것을 당부하며 간식과 급일봉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9일에는 임원들과 오택열 국제캠퍼스 부총장이 논산훈련소를 찾아 더운날씨에 훈련받는 50기 후보생들을 격려했다.

언론정보대학원동문회 최유나 동문 격려 방문

언론정보대학원동문회(회장 김대웅) 동문 탐방 모임이 지난 8월 7일, 가수 최유나 동문이 경기도 파주에서 운영하는 카페 ‘흔적’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모교 이인희 언론정보대학원장, 김창남 부원장, 김대웅 동문회장, 모전석 전 원우회장, 동문회 집행부 임원 등 12명이 참석해 향후 친목도모와 9월 등반일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유나 동문은 칸의 현장에 올



려퍼진 영화 ‘시’의 삽입곡 ‘와인 글라스’ 등 여러 곡을 열창하며 카페를 방문한 동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우리동네 동문 의료기관-강남구 삼성동1>

총동문회보에서는 ‘우리동네 동문 의료기관’을 연재합니다.

동문님들이 운영하시는 병원, 한의원, 약국 등의 소개를 통해 더 많은 동문님들이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믿고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으로, 20명의 동문님께서 운영하시는 의료기관을 소개합니다.

(지면 한계상 게재되지 않은 10개 동문 의료기관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이름	학과/학번	현직	전화	주소
강신익	한의90	경희강남한의원 원장	544-1075	서울 강남구 삼성2동 34-1 예림빌딩 2층
구용모	한의00	경희용한의원 원장	556-912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19 종신빌딩 305호
김경현	한의80	선재한의원 원장	518-0845	서울 강남구 삼성동 77-23, 2층
김용석	한의81	왕해한의원 원장	538-3650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12-1
김중배	한의71	리뉴유한의원 원장	546-00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77-20
김진섭	치의84	김진섭치과의원 원장	543-9509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 천마빌딩 304호
김진호	치의93	가이드치과의원 원장	558-7326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28-23 원혜빌딩 2층
김해근	치의73	바이란트치과의원 원장	3429-1100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1-35 남경빌딩 602호
김현수	한의80	김현수한의원 원장	555-119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 삼성빌딩 205호
나금균	치의76	삼성치과의원 원장	555-897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 삼성빌딩 301호
나대운	한의90	가온경희한의원 원장	3443-6789	서울 강남구 삼성동 9 예인빌딩 4층
박기원	재활의대원	서정환의원 원장	515-8585	서울 강남구 삼성2동 37-15 (3층)
박기호	한의72	황제한의원 원장	552-7800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17 쌍용플레티엄 202호
박종근	약학73	강남중근당약국 약사	567-8413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17 쌍용플레티엄 105호
박희영	한의59	건우한의원 원장	546-7533	서울 강남구 삼성동 34-21
손고은	치의96	그레이스치과의원 원장	3452-208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4-13, 3층
손철훈	한의80	예한의원 원장	564-2060	서울 강남구 삼성2동 37 호산빌딩 1층
이음세	한의80			
오세웅	한의64	오세웅한의원 원장	567-401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9
윤승일	한의81	에이케이한의원 원장	555-1010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2-39, 2층

※위 정보는 현재 총동문회에 등록된 동문 의료기관을 가나다순으로 알려드립니다.



▲모교 의료기관이 지난 7월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발전전략과 통합명칭을 선포했다.(사진 좌, 상) 비전선포식에 참여한 경희인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사진 하)

경희대 의료기관 업그레이드, 의·치·한 통합메디컬

소통과 융합으로 의료미래 창조

7월 경희대학교 의료기관 비전선포식 열려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인 경희의료원(의료원장 배종화)과 동서신의학병원(원장 허주엽)은 지난 7월 2일, 모교 평화의 전당에서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조인원 총장, 경희학원 김용철 이사장, 총동문회 이봉관 회장, 장광근 국회의원, 김정근 대한한의학협회장 등 내외귀빈과 병원 교직원 1,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비전선포식에서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은 21세기를 준비하는 통합명칭을 제정해 선포하고, 새로운 미션·비전·5대 목표·핵심가치 및 비전캐치프레이즈와 함께 경희의학의 미래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경희대학교의료원’으로 통합

비전선포와 함께 모든 의료기관의 명칭이 ‘경희대학교의료원’으로 통합될 예정이며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동서신의학병원의 명칭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으로 변경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희대학교의료원’은 경희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치과병원, 경희대학교한방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의 6개 병원 체제로 운영된다. 변경된 명칭은 장관 개정 및 의료기관 신고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은 영문명칭으로 대부분 병원들이 사용하는 ‘~Hospital’ 대신 국내 최초로 ‘Kyung Hee University Healthcare System’을 사용키로 해 의미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지난 1971년 경희의료원 개원 당시에 도통적으로 사용하던 ‘~병원’ 대신 ‘경희의료원(Kyung Hee University Medical Center)’을 사용해 당시 국내 의료계를 놀라게 한바 있는데, 이 의료원 명칭은 90년대 이후 여러 대학

병원에서 따라서 사용하는 명칭이 됐다.

더불어 경희대학교의료원은 2~3년 내에 통합의료원장 체제로 전환되며 의료원장과 각 병원장에게 3년 임기를 보장해 자율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희의료원 배종화 의료원장은 “기존 사고로는 미래를 선도하기 어렵다”며 “모든 구성원이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신의학병원 허주엽 원장은 “상대방의 가치와 성취를 인정하는 차이의 공동체를 실현해나갈 것”이라며 “미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 도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치·한의학 어우러진 복합의료기관

경희대학교의료원은 2020년까지 진료와 연구영역에서 세계적 수준의 대학병원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의학·치의학·한의학이 어우러진 세계유일 세계최고의 복합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했다.

암수술건수 1만 2,000건(A그룹병원 6천 427건),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40%(3차 병원 20.4%), 병상당 의료수익 4.2억원(대형병원평균 3.5억원), 외부연구비 수주 720억원(O대학병원 361억원), 교수 1인당 SCI논문수(IF3.2) 2.2편(O대학병원 1.9편)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임상 및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병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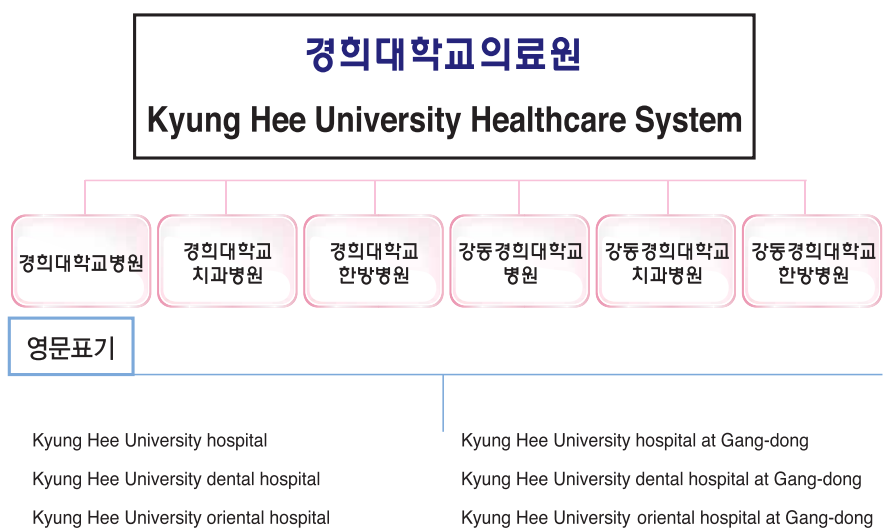
이와 함께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은 병원-대학-연구소-기업-국제기구가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중심 의료산업복합단지 개념을 갖춘 의료기관 ‘Global Medical Complex’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국제캠퍼스에 설립할 예정이다.

◆국내 최고의 양한방협진 대학병원

지난 1965년 의·치·한의학을 포괄하는 의



▲의료기관 비전선포로 새롭게 거듭날 경희의료원(좌), 동서신의학병원(우).



▲이번 비전선포와 함께 모든 의료기관의 명칭이 ‘경희대학교의료원’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학교육계열을 설립한 모교는 세계최초로 의·치·한방병원과 동서합진센터가 복합된 양·한방 종합의료기관인 경희의료원을 1971년 개원했으며 2006년에 동서신의학병원을 개원했다.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은 총 1852병상을 갖추고 연간 약 200만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국내 최고의 양한방협진 대학병원으로 유명하다.

또 교육·연구분야에서는 매년 600여 명의 학생에게 최고수준의 의학계열 임상실습을 제공하고, 650여 명의 전공의를 교육시켜 전문의

로 배출하며, 국내외 학회에서 연간 60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의료봉사를 넘어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정기적인 해외 의료봉사를 펼치는 등 모교 차원의 봉사조직인 경희글로벌서비스코어와 결합하면서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

이번 비전선포식을 통해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은 하나의 통합된 의료원 체제 속에서 21세기 새로운 병원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유용호 학생기자>

서울시의정회 사무총장 연임



김 인 동(법학56)
서울시의정회 사무총장, 충동문화 자문위원

서울시의정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동문이 최근 열린 제20차 정기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의 연임이 결정됐다. 서울시의정회는 서울시의회 전·현직 의원들이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와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정책개발을 하고 있다. 김 동문은 서울시의정회에서 의정세미나, 의정정책포럼, 의정연찬회 등을 개최하며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과 서울시정 발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전국시의정회협의회회 실무위원장으로 전국적인 정책연대를 주도하고 있다.

1963년에 교풍진작 후배 지도 등 모교발

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희문화상(공로부문)을 수상했고 1998년 경희인 상도 수상한 김 동문은 충동문화 자문위원으로서 동문회와 모교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고향동심회의 초대회장으로서 지난 해 역사적인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바 있다. 고향동심회는 1959년 총학생회 간부 17명의 발기로 발족됐으며 정관계, 학계, 재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핵심주역 동문을 다수 배출한 경희의 대표 모임이다.

김 동문은 학교 졸업 후 공보부 근무를 시작으로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서울시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내무국장, 88올림픽준비단장,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으며 지방의회 발족 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아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

북미주동문회 발전 위한 1만달러 기부



이 건 수(정외60)
(주)동아일렉콤 회장, 충동문화 고문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4차 북미주충동문화 총회 및 골프대회'에 참석한 이 동문이 북미주동문회 발전을 위해 1만달러를 기부했다.

지난 16년간 11억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모교에 기부한 바 있는 이 동문은 이번 북미주 총회에 참석해 동문 화합과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거액을 기부했다.

이 동문은 20대 초반 거의 무일푼이나 다름없는 단돈 100달러와 수제가발 100개를 들고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사업은 쉽지 않았지만 이 동문은 특유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미주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사업을 성공시켰고, 1986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동아전기를 인수하여 지금의 (주)동아일렉콤

으로 발전시켰다. 통신장비용 전원장치만을 고집해온 (주)동아일렉콤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개발한 1,500여종의 제품을 40여개국에 수출하고 하이브리드카의 핵심부품인 컨버터 기술의 국산화에도 성공했다.

이 동문은 2002년에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통신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고, 국산 전원기술 개발과 부품 국산화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 은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도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등 여러 상을 받으며 자랑스러운 경희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밝은사회 동부클럽 2대회장 취임



윤 덕 보(정외65)
경희의료원/동서신의학병원 장례문화원 운영본부장, 충동문화 자문위원

지난 6월 7일, 남양주시 도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동부클럽 결성 제2주년 기념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서 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동부클럽은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 민간단체인 (사)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본부 산하 단체로 지난 2008년 6월 창단했다.

이날 윤 동문은 "밝은사회 동부클럽의 새 회장으로서 지구 협동사회를 만들어가는 GCS운동의 모범적인 실천가가 되겠다"며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웃과 힘주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뜻을 세우고 힘을 모아 행동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 더불어 "아름다운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회원 모두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며 이해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격려했다.

경희의료원과 동서신의학병원 장례문화원 운영본부장으로 활동 중인 윤 동문은 경희의료원 종합기획조정실장, 행정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본부 감사로 활동하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윤 동문은 공로표창(학원장), 내무부장관 감사장, 청량리경찰서장 감사패, 경희학원장 표창, 밝은사회 유공 루비상, 충동문화 공로상을 수상했다.

더불어 2007년도 국민교육유공 국민포장을 수훈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국제 ZONTA International 컨벤션 참석



이 영 림(한외68)
(사)효애실천 회장, 영림한방병원 원장, 여성동문회장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미국 텍사스에서 개최된 국제 ZONTA International 컨벤션에 참석했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약 1,200여명이 참가했으며 개최식에서 이 동문이 한국 대표로 국기를 들고 입장했다.

국제대회에 5번째 참석한 이 동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 존타 서울 일클럽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 존타회 재단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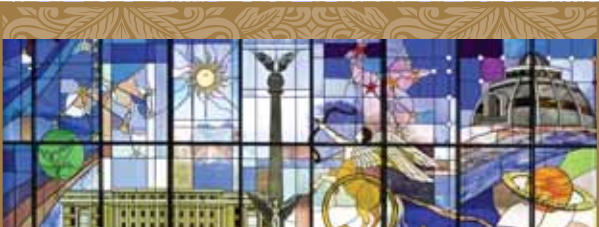
국제 존타클럽은 1919년 미국 버팔로에서 처음 조직되었으며 전문직과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범세계적 봉사단체로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동문은 지난 3월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여성국제회의(ICW)에 국제 존타 32지구 재단대사로 참여했다. UN에서

개최하며 전 세계 5개 여성단체가 가입된 이번 의회에서는 세계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토론 및 발표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월부터 여성동문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동문은 취임 후 건강강화를 겸한 여성동문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제주도 여행과 경주여행을 성황리에 진행하는 등 여성동문들의 참여를 눈에 띄게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충동문화 여성위원장을 맡아 여성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면서 모교와 동문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다.



www.taxseoul.co.kr

세무사 정영화 사무소

건국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원장

세무사 정영화 (경영대학원 연구과정, 80入)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9-1 흰돌빌딩 202호
Tel : 02-588-4983
Fax : 02-587-8519
Mobile : 011-227-4983
E-mail : yhjung27@paran.com

www.khua.or.kr



경희대학교충동문화



엄치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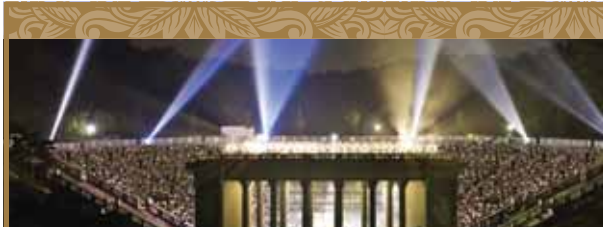
원장 엄신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351-25번지
Tel : 032-655-6728
Fax : 032-655-6727

www.khua.or.kr



경희대학교충동문화



케이에스테크 벤처기업지정

품 목

스텐레스, 도,소매/가로등부품(배너기, 장식링 외)
금형 및 프레스가공/레이저 절단,절곡 및 주문제작

대표 박효준 (기계공학, 82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93-9
Tel : 032-665-4355
Fax : 032-664-4355
H.P : 016-316-6309
E-mail : joompu@hanmail.net

www.khua.or.kr



경희대학교충동문화

소외아동 자립지원 헌신한 김석산 동문 별세



김 석 산(영문60)
어린이재단 회장, 총동문회 자문위원

어린이재단의 회장으로서는 한국 아동복지를 위해 평생을 바친 김 동문이 지난 6월 2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1941년 일본 규슈에서 태어나 해방과 함께 귀국한 김 동문은 6·25전쟁 때 부모를 잃고 대전의 아동시설인 '천양원'에서 자랐다. 이후 "나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며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다.

48년간 어린이재단에 근무한 한국 사회복지의 증인인 김 동문은 어린이재단의 전신인 미국기독교아동복지회(CCF) 한국지부에 1963년 입사했고 사무총장과 부회장 등을 거쳐 1995년부터 회장으로 재직해 왔다. 그동안 미아 8300명이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빈곤 아동 152만명의 자립을 도왔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의회회장을 역임했으며 특히 어린이 재단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미아 찾기와 빈곤아동 자립 지원 등 아동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 지난 해 5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김 동문은 평소 "저는 후원금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었고, 후원자들이 보내준 사랑을 받고 자랐다"며 "날아주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키워준 후원자님들 또한 부모"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동문은 평소 "저는 후원금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었고, 후원자들이 보내준 사랑을 받고 자랐다"며 "날아주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키워준 후원자님들 또한 부모"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인 대상 수상

김 우 영(상학64졸)
단양소백농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창립 49주년 및 농협·축협·인삼협동조합 통합 10주년 기념식에서 '농협인 대상'을 수상했다.

농협인 대상은 조합장으로 8선 이상, 25년 이상 재임하면서 농협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조합장에게 주는 상으로 김 동문은 충청도에서 최다선(8선)의 기록을 갖고 있다.

김 동문은 1985년 어상천농협 조합장으로 농협에 첫발을 디뎠다. 이어 1999년 가곡농협과 어상천농협이 통합된 북부농협 조합장에 당선됐으며 2006년 소백농협 초대 조합장에 당선됐다.

발효퇴비공장과 농협 사육을 신축하고 경제사업장을 조성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긴 김 동문은

1975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2009년에는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을 통해 김 동문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농업인과 조합원들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소백농협은 최근 고사리를 조합원들의 소득작목으로 집중 육성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단양소백농협은 지난해부터 단양군이 유휴농지 등을 이용해 고사리를 재배할 경우 씨뿌리 구입비를 60% 지원한다는 방침에 맞춰 각각 작목반을 구성, 효율적인 재배법을 농가들에게 알리고 생산된 고사리의 직거래에 나서며 소득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국무총리실장 취임



임 채 민(대학원)
국무총리실장

지식경제부 1차관을 지낸 임 동문이 최근 국무총리실장에 취임했다.

행시 24회로 1982년 지경부의 전신인 상공부 통상진흥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산업자원부 공보관과 산업기술국장, 주미 대사관 참사관, 중소기업특위 정책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임 동문은 산자부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합쳐져 탄생한 지경부가 초기에 자리 잡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 대책과 월드베스트 소프트웨어 사업, 연구개발(R&D) 혁신 전략, 신성장 동력 사업 등 선이 굵은 정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는 "국무총리실장은 낮은 자세로 정부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임무"라며 "겉으로 드러낼 것이 별로 없다"고 감회를 밝혔다.

털털한 성격으로 정부 부처 내 선배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합리적이며 업무추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임 동문은 누구를 만나도 격의 없는 태도로 상대를 편하게 하며 항상 먼저 귀를 열어 놓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성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한다.

특히 총리실장 자리는 대대로 기획재정부 출신이 맡았는데 이번에 지식경제부 출신이 임명된 것은 임 동문의 '깔끔한 업무 조정 능력과 폭넓은 인간관계'가 인정받고 높이 평가를 받은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치대 장학회' 100억 기금 조성 진행

김 세 영(치의76)
김세영치과의원 원장, 총동문회 부회장



치과대학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김 동문이 최근 '(사)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동문 장학회'를 설립하고 100억 기금을 목표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또한 교보생명과 기부보험 협약식을 진행하며 1억 기부보험에 가입해 눈길을 끌었다.

김 동문은 "경희치대가 치전원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지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고 보조도 미미해 BK21에서 연속 탈락하는 등 연구역량이 부족하고 교수진 확보도 미흡하다"며 "동문회가 직접 나서서 (기부보험을 바탕으로) 기금을 모아 나간다면 10년 뒤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평이사부터 시작해 치무, 공보, 총무, 부회장 등 16년 동안 치과대학동문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해 왔으며 지난 2007

년, 치과대학 개교 40주년의 뜻깊은 해에 치과대학 동문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2008년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7대 부회장'으로 당선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며 모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치과의사회 협외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협외이사, 은평구치과의사회 회장, 국제라이온스 354-C지구 서울서부 라이온스 회장, ICOI-KOREA(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모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민주평통 자문위원, 총동문회에서는 부회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모든 일에 적극적이다.

동문포커스

KYUNG HEE UNIVERSITY ALUMNI

동문포커스

KYUNG HEE UNIVERSITY ALUMNI

동문포커스

KYUNG HEE UNIVERSITY ALUMNI

동문포커스

KYUNG HEE UNIVERSITY ALUMNI

동문포커스

KYUNG HEE UNIVERSITY ALUM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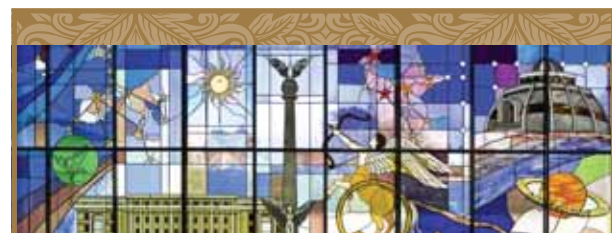
동문포커스

KYUNG HEE UNIVERSITY ALUMNI

동문포커스

KYUNG HEE UNIVERSITY ALUMNI

동문포커스



www.r114.net/U/20500070/

강남역 디오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오피스텔, 사무실, 원룸, 단기임대, 상가, 아파트, 빌딩,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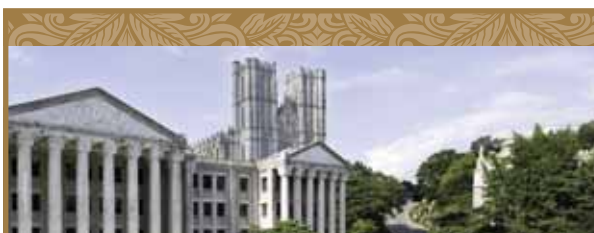
대표 김 재 호 (일반대학원·97入)
공인중개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25번지
대우디오빌플러스 217호
Tel : 2050-0070(대)
566-0017
Fax : 2050-0080
Mobile : 010-9758-8965

www.khua.or.kr



경희대학교총동문회



www.samhwalube.co.kr

친환경 윤활유 제조업체



주식회사 삼화유업

(Anti-Mist/Fume, 비염소계, 환경호르몬 비함유, 생분해성)

대표이사 김 중 성 (경기도 65卒)

서울사무소 서울 송파구 오금동 81-6 금웅B/D 5층
Tel : (02)443-0230~4 Fax : (02)443-0235

기술연구소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266-3
Tel : (033)747-1434 Fax : (033)747-6519

본사공방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10
Tel : (033)734-5060~1 Fax : (033)734-5034
E-mail : president@samhwalube.co.kr

www.khua.or.kr



경희대학교총동문회



http://www.abg.kr

"KIDS Academy"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주)ABG

대표이사 심 평 섭 (연론정보대학원 06)

브랜드 : AUTO-B-GOOD

- 미국본사와 독점계약
- 미국내 3,000여개 학교 교재로 사용 중

문의 (주)에이비지 Tel. 1544-7424
E-mail. ceo@abg.kr

www.khua.or.kr



경희대학교총동문회



■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부이사장

▲**엄익청**(상학60, L.A 한인회 부이사장, 총동문화 이사)

지난 7월 24일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제30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연차 이사회에서 부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엄 동문은 제30대 한인회장 취임식 준비위원 및 인사위원으로 위촉돼 취임식 행사를 마쳤으며 제26대, 28대, 29대에 걸쳐 이사 및 감사로 봉사해왔다. 또한 제29대 부이사장으로서 L.A 한인회에서 발간하는 회보를 발간하는 출판분과위원장으로 활약했다.

■ 재경 홍천군민회장

▲**박태용**(치의69, 미주치과의원 원장, 총동문화 부회장)

재경 홍천군민회장에 취임했다. 한민족의료봉사단 이사와 모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 미주치과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 동문은 지난 1994년 재경 홍천군민회장으로 선임돼 8년간 활동하기도 했다.

■ 제5대 경일대 총장

▲**정현태**(기계공학70, 경일대학교 총장)

경일대학교 제5대 총장에 취임한다. 지난 1989년 경일대에 부임한 정 동문은 대학발전위원회 위원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부총장 등을 두루 거쳤다.

■ 대한설비공학회 국토해양부장관상

▲**홍희기**(모교 기계공학과 교수)

대한설비공학회가 주관하는 하계학술대회에서 ‘동파방지 태양열온수시스템 실증실험’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최우수논문상인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 미국 남아리조나 한인회장

▲**박무길**(화학61)

지난 7월 11일 열린 미국 남아리조나 한인회 정기이사회에서 제14대 남아리조나 회장에 선출됐다.

한인동포 약 1만 명이 거주하는 아리조나 주 투산에서 GRANT INN 호텔을 운영하고 투산 한인 상공회의소 이사장인 박 동문은 “세계 문화의 창조 정신과 경희의 긍지를 가지고 투산 동포를 위해 지역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동문은 향후 아리조나주 피닉스와 투산 지역 주위에 거주하는 경희 동문들의 모임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서형달**(정의65, 충남도의회 의원, 총동문화 이사)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서 동문은 지난 7월 13일,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으로 취임해 2년간 활동하게 됐다.

서천동문화 회장인 서 동문은 진학서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항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서천군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서천군 인명구조대 자문위원, 사단법인 남북나눔공동체 발기인 회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 창사 39주년 맞아 현혈증 5천장 전달

▲**하병호**(정의72, 현대백화점 사장, 총동문화 이사)

현대백화점이 창사 39주년을 맞아 직원과 고객을 상대로 모은 현혈증 5,000장을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에 기증했다.

기증된 현혈증은 혈액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된다.

미국 채권추심협회와 업무협력 MOU 체결



▲**김석원**(행정66, (사)신용정보협회 회장, 총동문화 부회장)

신용정보협회는 지난 7월 13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게이로드내셔널 호텔에서 미국 채권추심협회(ACA)와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939년 설립된 ACA는 미국의 2800여 개 채권추심회사와 60개국 310여 개 채권추심회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0개의 신용정보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다.

이번 MOU 체결로 신용정보협회와 ACA는 채권추심업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 훈련, 연구분석·통계자료 교환 등을 실시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 동문은 “이번 MOU 체결은 채권추심 방법의 공정성과 기술면에서 한국 신용정보산업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홍조근정훈장 수훈

▲**이두익**(의학67,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총동문화 부회장)

지난 6월, 질병관리본부가 개최한 ‘신종인플루엔자 평가대회’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 활동을 벌인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이 동문은 지난해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대한병원협회 신종플루대응본부장과 인하대병원장을 맡으면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관련 의료봉사 활동을 벌이고 사할린 이주동포를 무료 진료해 왔다.

■ 어린이재단 강원지역 후원회장

▲**김기선**(행정73,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 총동문화 이사)

지난 8월 20일 어린이재단 강원지역 제5회 후원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동문은 한나라당 정책국장, 국회1급 정책연구위원, 한나라당 도당사무처장, 도정무부지사,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 제26회 서울음악대상 시상식

▲**김영식**(작곡68, 한국음악평론가협회 회장, 총동문화 이사)

지난 7월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음악평론가협회 제26회 서울음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작곡가와 음악평론가인 김 동문은 한국음악평론가협회 회장과 한국현대음악작곡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매년 우수한 음악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 심평원장 표창 수상

▲**김종진**(의학74, 동서신의학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

지난 7월 1일,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심평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서 심평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 동문은 지난 2000년부터 10여 년간 심평원 전문심사위원, 중앙전문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오면서 심평원과 각 의료기관, 관련 학회와의 유기적인 관계구축, 건강의료보험급여 시스템 조율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파수꾼의 노래

▲**김 순 권**

(영문64,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총동문화 자문위원)



시인으로 활동하는 김 동문이 네 번째 시집 ‘파수꾼의 노래’는 1부 바람아 파도야, 2부 바위산, 3부 여행, 4부 서툰 방언으로, 5부 꽃이 보고 싶네요 등을 통해 신앙적인 바탕 위에 서정성을 가미한 일상적인 소재를 담았다.

김 동문은 시인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예장(통합)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기독교협의회 회장 겸 CBS 이사장, 국제기독교공동선교회 본부 이사 및 한국대표로 활동했다.

현재 대한성서공회 이사장과 경천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재직중이다.

도서출판 창조문에서 펴냄 / 198쪽 / 12,000원



세월의 오솔길에서 만난 사람들

▲**안 명 수**

(신방65, (주)약국신문·장업신문 부회장, 총동문화 이사)



세 번째 산문집 ‘세월의 오솔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름다운 관계, 그들과의 추억여행’이란 부제를 달고 있으며 그동안 약국신문과 장업신문에 게재한 시문을 묶은 ‘약 그리고 화장품’ 등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래 전에 지인들과 주고 받은 편지들을 한 곳에 모아 서간집으로 꾸며낸 독특한 형태의 산문집이다.

안 동문은 “한 곳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늘 떠날 사람처럼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마디마디 매듭짓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 소망의 일단을 이루게 됐다”고 술회했다.

약국신문·장업신문 펴냄 / 290쪽



신간안내

전국자연사랑연합회 초대 중앙회장



▲김영일(치의72, 김천의료원장, 총동문회 이사)
지난 7월 24일 열린 전국자연사랑연합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중앙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성조·이철우 국회의원 등 관계자와 전국자연사랑연합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 동문은 이날 취임식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전국자연사랑연합의 역할과 활동이 어느 때 보다도 중차대하고 막중하다”며 “지금까지 전국의 환경연수원에서 배우고 느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론과 체험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환경운동을 전개해 우리 힘으로 그린토피아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동문은 2007년 경북자연사랑연합 회장을 역임했으며, 경북도 정부부지사, 한국정수문화에술원 이사장, 구미문화예술진흥원 이사장,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모교 특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북경 화자대학교 실용문화예술대학 학장



▲주요철(영교75, 중국동문회장)
중국동문회를 이끌고 있는 주요철 회장이 북경 화자대학교 실용문화예술대학 학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주 동문은 화자대학교를 한국 교육과정을 접목한 한국 최초의 한류문화 인재양성소로 성장시키며 중국에 술기들과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주 회장은 극단 BANDO 대표 겸 연출가, 한·중 연극교류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모교 연극영화과 교수, 경기도립극단 예술감독, 수원화성 국제연극제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주요작품으로 투란토티, 영원한 제국 외 70여편, 경희대 50주년 기념 행사 총연출에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중국동문회는 중국 현지에서 사무실(북경시 조양구 유토파크 왕징원 603동 1026호)을 운영하고 유급재(중문94) 사무국장이 상주하고 있다. 주 회장은 “중국 국적의 동문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중국에서 경희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2011년 3월에 북경에서 대규모로 중국동문회 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

▲오환섭(기계공학72, 모교 기계공학과 교수)
5월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지난 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에서 참가학생을 지도하며 5개팀 15명의 수상을 이끌고, 1지도교수 최다팀 수상을 기록한 공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8년, 2009년에도 우수지도교수상을 수상한 오 동문은 2003년부터 벤피언(국제캠퍼스 벤처 동아리) 지도교수로 활동중이며 대한민국벤처대전, 중소기업 발명대전 등 다수의 수상을 이끌었다.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김혜정(테크노경영대학원, 혜정박물관장, 총동문회 부회장)
혜정박물관에서 펴낸 ‘동해의 역사와 형상’이 최근 2010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이번 도록은 동해와 관련해 혜정박물관에서 소장하는 60여점의 고지도와 그간의 연구 및 전시성과를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동해가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며 우리의 영해임을 알리고 있다.
이에 앞서 김 동문은 지난 6월 22일 열린 ‘제22회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식’에서 경기지방경찰청장상을 수상했다.

한국광고주협회 신임 사무총장 취임

▲임도훈(정외74, 전 기협기술금융 상무)
최근 한국광고주협회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임 동문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뉴욕사무소장, 동북아 경제협력팀장, 홍보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8년부터 기협기술금융 상무로 재직해 왔다. 주요활동으로는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 주미 한국상공회의소 운영위원, 뉴욕 엔파이어 포럼 부회장 등이 있다.

국제 공동 학술대회 개최

▲김종희(국문75, 모교 문화홍보처장, 총동문회 이사)
국제한인문화회 회장으로 활동중인 김 동문이 지난 8월 14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에서 ‘중앙아시아 한국학과 고려인 문학 연구’를 주제로 카자흐스탄의 중앙아시아 한국학회와 함께 국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전흥신(기계공학75, 모교 테크노공학대학 교수)
2010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액체의 미립화’가 선정됐다.
전 동문의 이번 우수학술도서 선정은 2007년 ‘에너지연소환경’에 이어 두 번째이며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경희치대-오우치대 정기 스포츠대회 참가

▲이성복(치의78, 동서신의학병원 생체재료 보철과장, 총동문회 이사)
치의학전문대학원 배구부 8명으로 구성된 선수단과 함께 지난 8월 자매교인 오우대학 치학부에서 개최된 ‘제14회 경희치대-오우치대 정기 스포츠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왔다. 이 동문은 오우대학 치대학장실에서 개최된 국제교류회의에 참석해 향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각종 현안들을 논의했다.

IBC 세계 100대 교육자 선정

▲정완(법학79,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국 국제인명 센터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로부터 2010년 ‘세계 100대 교육자’로 선정됐다.
‘21세기 탁월한 세계지식인 2000인’에 선정되고 지난해에는 마르퀴즈 후즈후 인터월드 2010 인명사전에도 등재된 바 있는 정 동문은 국내 사이버범죄 연구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경찰청으로부터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인천시 정부부시장

▲신동근(치의81, 민주당 인천 서구 강화를 지역위원장)
지난 7월 1일, 제11대 인천시 정부부시장에 취임했다.
신 동문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 건강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으며 2002년 서구 강화를 재보궐 선거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정계에 입문했다.

국민은행 부행장

▲허세녕(법학76)
국민은행 성남영업지원본부장을 지낸 허 동문이 최근 마케팅지원그룹 부행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음악평가원 제3대 원장

▲이유정(기악81)
한국음악평가원 제3대 원장에 취임했다.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고만규(NGO대학원)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고 동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노원구 장애인총연합회 회장, 굿누리봉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립현대무용단 초대 예술감독

▲홍승엽(섬유공학81, 현대무용가)
국립현대무용단의 초대 예술감독으로 지난 7월 28일 선임됐다.
모교 섬유공학과 2학년 때 무용을 시작한 홍 동문은 1993년 민간 최초의 전문 무용단인 ‘댄스 시어터 온’을 창단해 한국 현대 무용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왔다.



금융 리스크 관리

▲김 재 인
(사학69,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부 교수, 총동문회 금융위원장)



금융 리스크 이해에 필요한 제반 지식을 실무 경험을 통해 터득한 내용에 기초하여 정리한 교재로 리스크 관리의 역사와 개요,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의 이해, 시장 리스크 관리, 신용 리스크, 운영 리스크 등을 담았다.
한국은행 연수원 교재로 사용된 이 책은 김 동문이 SC제일은행에 근무하면서 얻은 실무경험과 금융연수원 강사, 모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과 한양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정보경영공학부 및 정보경영전문대학원 금융공학전공교수로서 준비해 온 강의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도서출판 다산출판사 펴냄 / 565쪽 / 28,000원



초 고령사회 뉴비즈니스 너싱홈

▲김 정 희
(간호73, 은성 너싱홈 대표, 총동문회 부회장)



앞으로 15년 내에 한국에 닥칠 초 고령사회 진입 대비책 중에 하나로서 ‘너싱홈(Nursing Home)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너싱홈이란 치매·중풍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로서 병원과 가정의 중간 형태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시설이다.
1997년 국내 최초의 너싱홈인 ‘은성 너싱홈’을 오픈한 김 동문은 노인 부양이 가정 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노인 부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한시 빨리 자리 잡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서출판 북카페 펴냄 / 263쪽 / 10,000원



신간안내

■ 강릉MBC 사회봉사유공 감사패

▲김삼기(행정대학원, 한국늘사랑회 이사장, 총동문회 이사)
강릉 MBC 창사 42주년 기념식에서 사회봉사유공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 동문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사회봉사유공패를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 제20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강진오(의학84, 경희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강 동문의 ‘누드마우스에 주입된 DU-145 전립샘암에서 엑스선과 중성자선에 의한 HIF1-a, Bcl-2, Bax 발현의 차이’라는 논문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학술지원하는 ‘제20회 과학기술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 한국경찰복지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안호원(언론정보대학원,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총동문회 이사)
지난 7월 14일, 한국경찰복지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으로 위촉됐다. 안 동문은 현재 경찰청 경목실 중앙위원이기도 하다.

■ 송파문인협회 여름 정기세미나

▲김진돈(한의85, 윤제당한의원장, 총동문회 이사, 송파문인협회장)
지난 6월 12일, ‘송파문인협회 여름 정기세미나’를 은고개 공원에서 개최했다.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한 이번 세미나에는 송준영 시인이 강사로 초청돼 ‘고전선시와 현대시의 표현방법에 관한 고찰’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장기오 수필가가 ‘나비아, 청산가자, 법나비아 너도 가자’에 대해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박영우 시인이 ‘신화, 설화 소재의 콘텐츠개발 실태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 신기술 으뜸상 대상 수상

▲이호준(도예89, (주)젠한국 수석디자이너)
(주)젠한국은 도자기 밀폐용기가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신기술 으뜸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 동문이 디자인한 도자기 밀폐용기는 업계 최초로 개발한 사면결착 사각 밀폐용기로 납과 카드뮴이 없는 100% 무연유약만을 사용한 웰빙식기이다.
이 제품은 흙으로 빚은 도자기의 특성인 원적외선이 방출돼 발효가 필요한 김치와 장류 등을 보관할 때 최상의 맛을 유지해 준다. 또 고온에서 만들어진 도자기여서 수분흡수율이 전혀 없는 등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800만원 상당 사랑의 쌀 복지시설에 쾌척



▲조성근(경제75, 조성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총동문회 부회장)
세무사사무소 개업 당시 축하화환 대신 사랑의 쌀 모금운동을 전개한 조 동문이 최근 3,560kg, 약 800만원 상당의 사랑의 쌀을 복지시설에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해 12월 서대문세무서장직을 끝으로 30년간의 세무공무원직을 마감한 조 동문은 개업식 초청장에 화환과 화분 대신 쌀오브제 화환을 받겠다고 내용의 드림미 안내장을 넣어 보냈고, 개업식에는 화환과 화분 대신 드림미 쌀오브제 3천560kg이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모아진 사랑의 쌀은 지난 7월 14일 마포사회복지협의회에 900kg, 다일복지재단에 900kg, 벽제자활원에 500kg, 오금동 루디아의 집에 360kg, 구룡사에 900kg에 전달됐다.
조 동문은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주위를 돌아보며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5대 광주소방서장

▲이상규(경영대학원)
제5대 광주소방서장으로 취임했다.

■ 제54대 영월세무서장

▲김동훈(대학원)
지난 6월 30일, 제54대 영월세무서장으로 취임했다.



- 부 고**
- | | |
|--|---|
| ▲박성동(한의58, 동서한방병원 이사장, 총동문회 고문) 8월 2일 장인상 | ▲어수동(의학73, 어수동피부과의원 원장) 8월 6일 부친상 |
| ▲김석산(영문60, 어린이재단 회장, 총동문회 자문위원) 6월 20일 별세 | ▲김중회(국문75, 모교 문화홍보처장, 총동문회 이사) 6월 17일 부친상 |
| ▲홍창용(국방외교62, CNC엔지니어링 부회장, 총동문회 자문위원) 8월 12일 모친상 | ▲강성희(의학76, 노형이비인후과의원 원장) 6월 21일 모친상 |
| ▲오미자(생물64, 전 남가주동문회장) 7월 27일 부친상 | ▲정성화(치의76, 이사랑치과의원 원장) 8월 3일 모친상 |
| ▲이경표(정외64, (주)신한공사사업본부장, 총동문회 부회장) 6월 20일 모친상 | ▲안재형(의학77, 열린내과의원 원장) 6월 13일 빙부상 |
| ▲정자화(약학65, 유명약국 대표, 총동문회 이사) 8월 3일 모친상 | ▲홍순돈(의학78, 홍소아과의원 원장) 7월 4일 부친상 |
| ▲전홍국(신방66, (주)씨크리트가드 상무) 6월 12일 모친상 | ▲노승호(회계80, 개원114 상무, 총동문회 이사) 7월 19일 장모상 |
| ▲강수완(행정대학원, (주)광원산업 회장, 총동문회 부회장) 6월 15일 모친상 | ▲박기영(의학82, 경희가정의학과의원 원장) 6월 23일 모친상 |
| ▲문홍호(국제법무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6월 22일 별세 | ▲송민수(의학85, 경내과의원 원장) 8월 8일 빙부상 |
| ▲이광균(행정대학원, (주)성진리얼티 대표이사, 총동문회 부회장) 7월 10일 장인상 | ▲최우영(신방85, 동원F&B) 7월 11일 부친상 |
| ▲우영환(경영68,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총동문회 이사) 6월 29일 모친상 | ▲송희곤(의학87, 수지아산내과의원 원장) 8월 3일 부친상 |
| ▲김기덕(의학69, 김기덕산부인과의원 원장, 총동문회 이사) 7월 28일 모친상 | ▲윤민상(경제87, 한나라당 부대변인, 총동문회 이사) 7월 21일 부친상 |
| ▲김병주(의학70, 금강이비인후과의원 원장) 8월 5일 부친상 | ▲김동환(의학89, 동서신의학병원 재활의학과) 7월 5일 조모상 |
| ▲김종관(의학71,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교수) 8월 4일 부친상 | ▲윤정빈(의학89, 오라클리부과의원) 6월 25일 부친상 |
| ▲문철성(치의72) 6월 18일 별세 | ▲김정학(의학90, 해사랑통증의학과) 6월 18일 빙부상 |
| ▲엄형택(의학72, 트리니티클리닉 원장) 6월 13일 부친상 | ▲이상렬(경영91) 7월 12일 모친상 |
| | ▲이호종(의학91, 이내과의원) 8월 6일 부친상 |
| | ▲한주영(의학92, 희망내과 부원장) 6월 20일 부친상 |
| | ▲신현필(의학94,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7월 25일 모친상 |

혼 인



- | | |
|----------------------------------|---|
| ▲김태훈(상학60, 건승물류(주) 회장) | 8월 22일 오후 3시 30분 프리아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자녀 은주씨 혼인 |
| ▲김영갑(법학64, (주)에프케이파트너스 고문) | 9월 3일 오후 7시 컨벤션 해리츠 아그니스홀에서 자녀 종운씨 혼인 |
| ▲고영선(법학65, 전 국민카드 부사장, 총동문회 이사) | 6월 26일 오전 11시 라운지 W B1F 예식홀에서 자녀 병욱씨 혼인 |
| ▲윤형주(의학67, (주)한빛기획 대표이사) | 7월 10일 오후 1시 양재햇빛회관 사랑성전에서 자녀 희원씨 혼인 |
| ▲최병목(신방68, 극동대학교 교수, 총동문회 이사) | 6월 19일 오후 4시 영국 런던 스테판교회에서 자녀 선규씨 혼인 |
| ▲도지현(법학69) | 7월 11일 오후 2시 교통회관웨딩홀 3층 그랜드볼룸에서 자녀 한진씨 혼인 |
| ▲장충현(의학69, 강북삼성병원 성형외과, 총동문회 이사) | 9월 11일 오후 1시 대치 2동 성당에서 자녀 영씨 혼인 |
| ▲서완철(의학73, MS소아과의원 원장) | 8월 22일 오후 2시 30분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자녀 은경씨 혼인 |
| ▲차승균(의학74,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 샘안양병원장) | 8월 21일 오후 5시 우리들교회 분당성전에서 자녀 현정씨 혼인 |

B순환



▲최 인 호
(행정81, 법무법인 삼성 변호사)

울산에서 법률가로 활동중인 최 동문이 지구촌을 순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서 점차 기력을 다해가는 현대문명의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떤 곳인가, 건강과 장수를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인가 등 울산과 한국을 떠나 지구촌이 처한 몇 가지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책은 최 동문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과 농림수산물부의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점차 기력을 다해가는 현대문명의 대안에 대해 고심하던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도서출판 천지인 펴냄 / 383쪽 / 15,000원

초롱초롱 눈이 건강해



▲강 자 현
(의학87, 동서신의학병원 안과 교수)



동서신의학병원 안과 교수로 재직 중인 강 동문은 눈 나쁜 어린이를 위한 눈 건강 그림책 ‘초롱초롱 눈이 건강해’를 발간했다.
이 책은 눈에 관한 지식과 건강정보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담고 있으며 인체 과학 원리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까지 알려준다. 주인공 희준이를 통해 눈이 나빠지는 자세, 눈이 보이는 과학적 원리 등을 차근차근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강 동문은 “어릴 적부터 정확한 안과 진료를 받고 눈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꼭 길러줘야 한다”고 밝혔다.

도서출판 웅진주니어 펴냄 / 32쪽 / 9,500원

신간안내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



정재만(무용68, 숙명여대 무용학과 교수)
한국무용가로 활동하는 정 동문이 대한민국예술원이 선정한 '제55회 대한민국예술원상'을 수상했다. 국립무용단 수석단원, 세종대 무용학과 조교수를 거친 정 동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예능보유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예술원상은 1955년부터 매년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 4개 부문에서 탁월한 예술창작활동으로 우리나라 예술진흥 발전에 공적이 있는 예술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ASIAGRAPH in Shanghai 초대전



이한국(도예71, 모교 예술·디자인대학 교수, 총동문회 이사)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초대전을 열었다. 이 동문은 제 21대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한국공예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제2회 미술인의 날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우리아버지합창단 정기연주회



김신일(성악74, 우리아버지합창단 지휘자, 총동문회 이사)
우리아버지합창단의 제13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9월 6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우리아버지합창단은 1부와 2부에 걸쳐 '그대는 내 모든 것', '꿈꾸는 백마강', '검은 눈동자'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동문은 지난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10회 코리아합창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김 동문이 회장으로 활동하는 '한국일반합창연합회'는 십수년간 민간합창음악 보급과 한국합창음악의 토양역할을 하면서 많은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단체로서 30여개의 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 프라하 댄스 페스티벌 2010 공식 초청



안병주(무용80, 모교 무용학부 교수, 총동문회 이사)
안 동문이 이끄는 K-DoH 무용단이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뉴 프라하 댄스 페스티벌 2010' 행사에 공식 초청되어 한국의 미를 알리고 돌아왔다.
K-DoH 무용단은 이번 행사에서 한국을 대표해 한국무용의 아름다움과 위상을 전 세계 무용인들과 관련인들에게 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했다. 그 결과 민족무용부문 대상을 비롯해 의상상과 개인 연기상의 수혜를 받는 영광을 안았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대규모 국제 무용 페스티벌로서 워크숍, 공연, 경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전 세계 3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이다. 올해 행사에는 세계 각국 총 49개 팀, 450명이 참가하였으며 각국의 무용작품을 선보였다.

제21회 김달진문학상 수상



홍용희(국문86,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과 교수)
평론집 '현대시의 정신과 감각'으로 제21회 김달진문학상을 수상했다. 홍 동문은 "이제는 새로운 문학을 모색할 때"라며 "이 상은 오늘날 변동의 시대에 응답하는 문학적 자세를 가지라는 주문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석 교수 동문 음악회



모교 음악대학 기악과 김석 명예교수 동문음악회가 지난 8월 2일, 금호아트홀에서 열렸다.
김석 교수의 제자들 중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문인영, 한승희, 김지혜, 이희은, 신혜원, 김현정, 박소현, 최연선 동문이 출연해 아렌스키, 생상스, 라흐마니노프 등의 작품을 연주했다.

독일 뮌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내한 연주회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독일 통일 20주년을 기념한 독일 뮌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내한 연주회가 오는 9월 3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GCSInternational과 경희음대발전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연주회에는 세계적인 지휘자 브뤼노 마르크 마스트가 작곡가 권용진(작곡64, 대한민국작곡가연맹 회장, 총동문회 이사) 동문의 '세계속의 경희 환타지아'를 초연한다.

경희문단



박이도(국문56)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고향산 엔돌핀

고향산 자락엔 포효하는 사자상이 있다
평화의 전당엔 엄정행이 평화를 노래한다
조영식 작사, 김동진 작곡의 목련화는
새 시대의 선구자, 배달의 열인
경희의 한 가족, 젊음의 엔돌핀
목련이 필 때 평화의 사도가
도서관에 불이 켜질 때 지혜의 엔돌핀이
경희인의 가슴마다에서 꿈틀댄다.

고향산 자락엔 평화의 정신이 있다
난 그 지경에 이르면 경희의 엔돌핀이
온몸에서 솟아난다 샘물처럼 솟아난다



※개교 60주년, 경희 문인 글모음 '내 사랑 목련화'에서 발췌했습니다.

한·일 수교 음악회 참여



김미미(성악80, 화성오페라단장, 총동문회 이사)
박요한(성악87)
김종혁(성악90)
화성오페라단에서 활동하는 세 동문이 지난 5월 29~30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 수교 음악회의 오페라 '심청'과 '정조대왕의 꿈'에 각각 출연했다.

김미미 동문은 오페라 '심청'에서 심청역을 맡아 순교한 부녀간의 사랑을 일본인들의 가슴속에 애절한 울림으로 전해주었고 박요한 동문은 '정조대왕의 꿈'에서 최루백역을 맡아 여미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야기를 애절하게 표현하고 호랑이와 결투에서 용맹함을 드라마틱한 소리로 절절이 불러 큰 찬사를 받았다. 또한 김종혁 동문은 '정조대왕의 꿈'에서 정조역을 맡아 일본인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한국 오페라의 힘을 보여주었다.

오페라 토스카 출연



강봉수(성악95, 테너)
지난 8월 20~21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에 카바라도시 역으로 출연했다. 또한 8월 5일부터 29일까지는 세이무어 바랍의 블랙코미디 오페라 '버섯피자'에 스키피오 역으로 출연했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계명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강 동문은 내년 초 일본에서 듀오 리사이틀로 초청연주회를 가질 계획이다.

피아노 독주회



문인영(기악97)
문 동문의 20번째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9월 4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열린다. 이번 독주회에서 베토벤, 그라나도스, 라흐마니노프 등의 작품을 연주할 예정인 문 동문은 모교 피아노과를 수석졸업했다.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석사, 최고연주자과정,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문 동문은 이태리 Pietro Argento 국제콩쿨 1위, 이태리 모차르트 국제콩쿨 특별상, 독일 Wiesbaden 국제콩쿨 3위 등 여러 입상 경력을 갖고 있다.



동신관유리공업주식회사
DONGSIN Tube Glass. Co.,Ltd.



CEO 서정섭 (31회)

“ 원칙을 준수하는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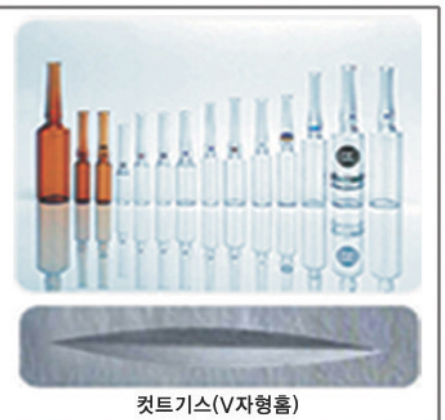


19 69년 회사 설립 41년간 이래로 의약품 관련 유리제품 전문기업으로의 한길을 걸어 왔습니다. 제약용 전문용기인 앰플과 바이알을 비롯해 기타 특수용기까지 생산제품 하나하나에는 ‘동신’의 경험과 끊임없는 기술개발 그리고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바이알



앰플



컷트기스(V자형홈)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은 동신의 고객과 전세계의 수많은 수요자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80-1 Tel : 032-529-1431 Fax : 032-529-9870

For Your Healthier Life!



경희가족 특별가 구입안내

■ 문의 : 031-273-6323

경희보감 한가위

한방재료가공 학교기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 육성하는 제 1호 학교기업으로 경희대학교·구성원과 함께하며, 대학의 이상과 철학구현을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의 현장교육과 연구기능의 강화는 물론 최신 산업화를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경희동문 대상 특별가 판매

- 행사명 : 한가위 건강&선물 Big드림 대잔치
- 행사기간 : 2010. 9. 1 ~ 2010. 9. 30
- 행사문의 : 031-273-6323

경희동문은 전품목 30% 할인

※우정원 1층매장에서 진행됩니다.



경희대학교
한방재료가공 학교기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번지
경희대학교 우정원 1층 전시판매점
홈페이지 : <http://hanbang.khu.ac.kr>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도전적 마인드와 꾸준한 노력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국내 저비용 민간항공사 최초 여성기장-이혜정(화학공학88) 동문

국내 저비용 민간항공사 최초의 여성기장으로 경희인이 탄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스타항공에서 우리의 안전한 하늘 길을 책임지고 있는 이혜정(화학공학88) 동문이 바로 주인공이다.

비행기와 이 동문의 인연은 아시아나항공 선임 승무원으로부터 시작됐다. 5년의 승무원 생활 후 그는 1996년에 여성 조종훈련생 시험에 합격했으며, 선임 부기장을 거쳐 지난 2월 항공안전본부 기장자격 심사를 통과했다. 비행 경력 15년 만에 국내에서는 네 번째, 민간항공사에서는 최초로 여성기장이 된 것이다.

을 아끼지 않는다.

두 아이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여성기장으로서는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이 동문에게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묻자 “가사와 육아의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은 자상한 남편과 시어머님 덕분”이라는 훈훈한 대답이 돌아온다.

더불어 이 동문은 여성기장에 대해 “비행기조종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함과 섬세함으로 다루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이라는 것이 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즘은 직업에 대한 남녀 구분이 허물어지고 있지만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그 활동영역이 넓지 못했던 것 같



도전정신과 노력, 시간을 가지고 실력 쌓는 것이 성공 포인트

성수기 휴가철이라 바쁜 비행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동문들을 위해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준 이 동문의 목소리에서 20대 못지않은 패기와 도전정신이 느껴졌다. 그는 “파일럿이 주로 남성 중심의 영역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도전하는 마인드로 응시하게 되었다”며 15년 만에 기장이 된 감회를 밝혔다.

더불어 지난 해 개교 60주년을 맞은 모교에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캠퍼스 시절의 추억들과 모교에 대한 애뜻한 정을 나타냈다. 특히 “모교의 후배들을 볼 때면 나의 캠퍼스 시절이 떠오른다”며 “경희인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한 반면 취업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후배들을 격려해 주고 싶다”고 애정과 사랑

다”며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부딪쳐 봐야 한다. 도전정신과 노력, 시간을 가지고 실력을 쌓는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동문의 신념은 ‘정직과 성실, 도전적 마인드와 꾸준한 노력’이다. 지금도 기장으로서는 성공적인 위치에 있지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남성과 여성의 장벽을 허물어 버린 그녀의 도전정신은 같은 동문으로서도 여성으로서도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보통사람이라면 해내지 못했을 어려운 일을 우리와 같은 ‘경희인’ 이기에 이뤄낼 수 있었던



▲대한민국 최고의 조종사를 꿈꾸는 이혜정 동문에게서 경희인의 열정이 느껴진다.

것이다. 23만 경희동문의 힘과 기를 모아 그를 응원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팍! 팍!”

<이동은 학생기자>

Acupuncture Oriental medical supplies

db DONGBANG
Acupuncture, Inc.



CHANGE!
YOUR FACE & BODY



저희 동방침구제작소는 “일류품질·일류기업·한의학의 세계화”라는 기업이념으로 고객만족과 인류건강 증진에 부응하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KOMSTA(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공식후원업체로서 한의학의 세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방의료기에 있어서 한국 최고 브랜드이면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제품만을 만들겠습니다.





근대에서 현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다

13박 14일의 도전

한명남 자문위원장 3년 연속 참여

‘시간여행! 근대로부터 현대를 성찰하다’를 주제로 재학생 100여명이 참가한 ‘2010 경희국토대장정’이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의 일정을 성공리에 마쳤다.

12회를 맞은 이번 프로그램은 경북 울진에서 출발해 삼척, 태백, 영월을 거쳐 강원도 원주까지 약 280km 구간에 이르는 여정이었다. 특히 이번 국토대장정에는 2008, 2009년에 이어 총동문회 한명남(정의63, 모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자문위원장이 3년 연속 참여하면서 후배 재학생들과의 소통에 앞장섰다.

13박 14일 동안 참가자들은 도보 순례를 포함해 태백시 철

암일대 폐광지역 근대문화유산 탐방, 영월 동강지역 환경캠페인 및 실천 활동, 정선지역 초등학교와 지역주민 대상 문화 활동, 리더십 팀별 과제 수행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희정신을 보여주었다.

8월 9일,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국토대장정 김기웅(지리2004) 단장은 “물 한 잔, 바람 한 점, 그리고 사람의 소중함을 느꼈다”며 “이번 대장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깨닫고, 어떠한 일에도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정신을 배웠다”고 밝혔다.

조인원 총장은 학생들에게 완주증을 전달하며 “세상을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자아를 만들어 가는 법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13박 14일의 대장정 완주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가기 바란다”고 박수를 보냈다.



▲출발 전 울진에서 열린 경희의 발자국 출정식



▲국토사랑과 경희사랑의 마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선두그룹

ROTC동문회 국토대장정단 격려 방문

ROTC동문회(회장 송권영)는 지난 8월 5일, 영월군 중등면 연상초등학교 분교를 방문해 국토대장정에 참여하고 있는 재학생을 격려했다. 이날 100여명의 대장정단은 구슬땀을 흘리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집수리, 이불빨래, 청소를 하고 있었다.

국토대장정 10일째임에도 지친 기색 없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었고, 검게 그을린 구리빛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과 반짝이는 눈망울에서 경희인의 기상을 느낄 수 있었다.

ROTC동문회 송권영(신방69, 신일산업(주) 대표이사, 총동문회 국제위원장) 회장은 “국토대장정 기간 중 습득한 리더십, 능동적 참여정신, 조직관리 능력이 미래를 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ROTC동문회 김용겸 산악회장, 홍원기 수석부회장, 정명선 사무처장이 동참했고 캔커피와 과일, 금일봉이 전달됐다.



여름밤의 빛나는 별들과 함께

한명남(정의63, 총동문회 자문위원장)



▲지난 8월 4일, 태백산 800고지 난코스를 앞두고 있을 때 유승현 총학생회장의 격려차 방문을 기념하며.

자랑스러운 경희국토대장정단 104명은 13박 14일 동안 울진, 태백, 영월을 넘어 원주까지 약 280km에 달하는 거리를 행진했다. 매일 20~30km가 넘는 구간을 걸었고 하루 일과 후에는 리더십과 갈등해결에 관한 강의를 듣고 토론했다. 인근 농촌지역의 봉사활동(벽지도배, 집기 설치, 청소, 노인잔치 등)에도 참여하면서 공동체정신을 일깨우고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배워 큰 기쁨을 느꼈다.

연일 34도의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아스팔트 위를 행진하는 경희국토대장정단은 모두 땀으로 범벅이 되고 발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경희인의 정신과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먼 곳까지 찾아와 준 ROTC동문회 송권영 회장과 임원들은 지친 대장정단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나의 임무는 주로 행렬의 반대편에서 급경사를 거침없이 달려 오는 대형 덤프트럭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시키는 것이었다. 행렬이 안전하게 지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어 더운 줄도 모르고 연일 식은땀을 흘려야만 했다.

함께 걷는 후배 재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모교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과 신뢰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만족도 1위 대학답게 경희대를 선택한 것에 대한 후배들의 자부심이 매우 컸다.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조인원 총장님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는 재학생들의 모습에서는 감동을 느꼈다.

13박 14일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모두는 소통의 리더십을 체득하는 법을 배웠고 어떤 시련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해지는 후배들의 눈을 보며 경희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머지 않아 그들이 동문의 한 일원으로 새로운 활력소가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국제캠퍼스 주관으로 열리는 2011년 국토대장정에 학생처장으로부터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가슴이 설레인다.

자랑스러운 경희동문들!

지난 8월 18일 모교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학사 1,456명(서울캠퍼스 694명, 국제캠퍼스 762명), 석사 757명, 박사 123명 등 총 2,336명이 학위를 받아 자랑스러운 경희동문이 되었다.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서울캠퍼스 김영 부총장이 학위를 전달하고 있다.



교과부 교육역량강화사업서 최우수 평가 4억 7천여만원 인센티브 지원

모교가 지난 7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2009년 성과평가와 2010년 사업계획 컨설팅에서 두 부문 모두 수도권 대규모 대학 중 최우수를 달성했다.

이 결과 모교는 2009년 성과평가 최우수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2억 6천 4백만원, 2010년 사업계획 컨설팅 최우수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2억 9백만원 등 총 4억 7천여만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더 지원받게 되었다.

이번 수도권 대규모 대학 평가에는 모교를 포함하여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화여대, 인하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15개 대학이 대상이었다.

2009년 성과평가는 사업계획,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사업의 실적과 성과, 성과의 지속 및 확산으로 평가되었으며 2010년 사업계획은 사업설계, 사업운영 및 관리, 성과확산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영예학생 프로그램** 좋은 평가 받아
모교는 2009년 성과평가에서 사업계획이 대학의 인재상, 특성화 계획과 잘 부합된 점과 더불어 세부 사업마다 추진실적과 성과가 다양하게 창출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교의 인재상을 실현하고 교육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영예학생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예학생 프로그램은 성적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잠재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한 후 집중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추도록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9년 6월 17개 단과대학에서 학장 추천을 받아 96명을 선발, 총 3주간 영어, 리더십, 토론, 사회봉사 등 140시간의 몰입형 기숙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팀별 실천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전시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차별화된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몰입형 기숙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측면 모두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높았고, 대상을 받은 AVE dorado팀의 '빌바오와 바르셀로나 사례를 통해 본 도시정책의 새 바람, 창조 도시'와 같이 다양한 주제의 실천 프로젝트가 나왔으며, 전체 96명 중 87명이 영예학생으로 인증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증취득률이 높고, 인증을 받은 학생이 다음 기수 학생의 멘토로 활동함으로써 반복적 재생산이 가능한 선순환 기능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획위원회 조병춘 사무국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통해 경희대의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타대학에 비해 차별화 되었다고 생각하며, 2010년은 세부사업을 보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수월성을 부각시켜 교육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희 인적자원 포럼 개최

모교가 지난 7월 15일, 서울과 부산에서 기업 인사담당자와 사회공헌 관계자 200여명을 초청해 '경희 인적자원(HR, Human Resources) 포럼'을 열었다.

대학과 기업이 만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고 전략적인 인적자원개발 방법을 모색하는 이번 자리에는 박경미 휴잇어소시엣츠 한국지사장이 '글로벌 채용트렌드와 인재유

치 전략'을, 김태영 SK텔레콤 인력팀장이 'SK 채용실험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또한 2010학년도 모교 국제협력 섬머프로그램에 초빙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문가인 미국 노트르담 대학의 올리버 윌리엄스(Oliver Williams) 교수가 '우리사회에서 기업의 변화하는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경희음악캠프, 학문연구를 사회적 가치로

모교 미래문명원과 음악대학은 지난 8월 1일부터 7일까지 부산 알로이시오전자기계고등학교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경희음악캠프를 열었다.

일주일 동안 열린 경희음악캠프는 음악대학의 교·강사와 재학생들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위한 개별 레슨과 전체 연습 지도로 이뤄졌다. 더불어 이 기간 동안 음악대학 재학생들과 소년의 집 단원들은 각

각 멘토-멘티를 맡아 1:1로 상담을 진행하는 1:1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모교는 이처럼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환경에 가려 빛을 발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재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의 본질인 학문연구를 사회적 가치로 승화시키려는 사회공헌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메디컬 리더를 향한 거침없는 도전!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임상과 진료로 진료하는 환자 중심의 병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이
대학원급을 넘어 이제 세계 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2010 디지털조선일보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2010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마케팅 대상 수상

2009 외국인 환자유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 수상

2009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추진 우수기관

2009 헬스워드를이
고객지원/서비스 우수상

2007 유니세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동서합진센터 의과대학병원 한의과대학병원 치과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TEL.1577-5900 134-090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49번지

http://www.hcare.or.kr

서비스혁신 / 간병인,요양보호사 교육 및 파견
간병 전문 인력 2천여명 확보

사랑과 감동의 기쁨을 드리는
(주) 한나케어
대표이사 윤 우 준 (전파공학 69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693 미도빌딩 505호 Tel : 02)933-4111(대) Fax : 02)933-4122

교수칼럼



김 종 회(국문75)
모교 문화홍보처장
총동문회 이사

1980년의 일이니 지금으로부터 꼭 30년의 성상(星霜)을 보내었다. 아직 홍안흑발의 청년이었던 필자는 군문에서 돌아와 경희대 국문과 3학년으로 복학하고, 대학주보 학생기자의 자격으로 총동문회 신문 만드는 업무를 돕고 있었다. 동문회관은 지금 새로 지은 권농동 건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나, 오래된 집이었고 경희대학교 시내 한방병원 및 밝은사회클럽 국가본부 사무실과 함께 쓰고 있었다.

그 시절 철은 없이 꿈만 창창하던 때에 참으로 많은 선배들을 만났다. 그때는 몰랐었다. 그분들로부터 듣는 몇 마디의 말이나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얼마나 소중한 세상살이의 가르침을 함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선배들의 후배 됨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이다.

동문수학의 길벗

이러한 인식은 필자가 선배가 되고 교수가 된 그 연륜이 더해 갈수록 점점 명료해지는 것이니, 지천명을 여러 해 넘긴 세월이 결코 만만한 형편은 아닌가 보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동문수학의 아름다운 교유 또는 이에 대한 극명한 배반을 기록한

涓)은 악연의 대명사에 해당한다. 손빈을 불구로 만든 방연은 제 목숨으로 그 빛을 갚았다.

조선세조 시기에 역시 함께 공부한 두 차례 김시습(金時習)과 서거정(徐居正)은 각기 명분과 실리를 좇아 다른 길을 갔다. 서

이 된 피어스의 도움을 받아 작가로 입신양명했다. 호오도온은 피어스의 전기를 써서 그 사랑의 빛을 정성껏 상환했다.

우리 역사에는 동문수학의 방명(芳名)을 남긴 빛의 귀감으로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과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이 있다. 운명이 접지한 인연의 죽마고우로 출발한 두 사람은 조선조 국난의 위기를 수습한 충신인 동시에 서로 간에 주고받은 말과 행동의 해학으로도 이름이 높아, 인간의 선한 본성과 명민함 그리고 충직함의 범례로 남았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할 차례이다. 경희라는 이름의 표식을 이마에 단 23만 동문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마땅하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가 없다. 선배는 후배에게, 후배는 선배에게, 그리고 각기의 동학들이 오성과 한음이요 나다니엘 호오도온과 그 친구들이 되어야 옳겠다. 이제껏 경희로 인하여 우리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우리의 울고고 선한 역할로 경희의 이름이 빛나도록 애써 공리할 일이다.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은
인간의 선한 본성과 명민함, 충직함의 범례로 남아

일화는 부지기수로 많다. 동학의 길벗이란 근본적으로 이익집단의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데, 그러한 연유로 그 울타리를 넘어선 자리에 이르면 순방향은 순방향대로 역방향은 역방향대로 그 의미와 가치가 증폭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동문끼리 선대하니까 더 훌륭하고 동문끼리 악연이니 더 나빠 보인다는 식이다.

손자병법 시대에 귀곡자(鬼谷子)란 스승 밑에서 함께 공부한 손빈(孫賓)과 방연(龐

거정은 당대의 부귀를 누리고 김시습은 일생을 홍진에 묻혀 살았으나, 후대의 평가는 엇갈려 사필(史筆)은 김시습의 손을 들었다.

미국 청교도 문학의 대표적 걸작『주홍글씨』를 쓴 나다니엘 호오도온이 대학을 다닐 때 세 사람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

생활이 궁핍하고 주변머리가 없던 그는 부호의 아들 호레이쇼 브리지, 장편의 서사시『에반젤린』으로 유명한 시인 헨리 롱펠로우, 그리고 후에 미국의 제 14대 대통령

동문칼럼

모여라, 옛사람들아!



양 광 모(국문 87)
휴먼네트워크연구소장, 총동문회 이사

내일은 모처럼 대학시절을 함께 보낸 동문들을 만나기로 하였다. 마지막 만남을 가진지가 2년이 넘어 그동안의 소식이 궁금한 까닭도 있었지만 며칠 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글귀가 너무도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이다.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노년의 재산은 돈이 아니고 건강함이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주름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없는 것이다. 노년의 여유로움은 재물이 많음이 아니라 좋은 친구가 많은 것이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옛 사람을 찾아 가면 옳게 사는 것이고 옛 사람이 찾아오면 옳게 산 것이다.”

노년의 여유로움은 좋은 친구가 많은 것이라는 말도 멋있지만 ‘옛 사람이 찾아오면 옳게 산 것’이라는 마지막 구절이 내 마음을 울렸다. 부랴부랴 전화를 들고 보고 싶은 친구 정희욱, 김대원, 김기식 등에게 연락을 취하여 약속을 잡았는데 드디어 내일, 충무로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1937년부터 하버드대학교 2학년생이었던 전도유망한 청년 268명의 삶을 72년 동안 추적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공적인 노후의 비결은 부, 명예, 학벌이 아니라 47세 무렵까지 형성된 인간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47세 무렵 이전까지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였느냐에 따라 노년의 생활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의미심장하게 일깨워주는 조사결과라 생각된다. 비록 내 나이가 오십을 넘지 않았지만 지나온 세월의 빠름을 생각해 보면 곧 노년이 되는 것도 참나일 것이다.

과연 나는 옛 사람이 찾아오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나는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놓은 것일까? 그렇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자신이 없으니 남은 한 가지는 ‘옛사람을 찾아가는 일’을 실천할 뿐이다.

내일은 옛 친구들을 만나 20년도 훌쩍 지나버린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두터운 우정을 나누리라. 모여라, 옛사람들아!

문화칼럼

달라진孝문화



일찍부터 정착된 농경생활로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제도가 발달한 동양문화의 경우 인간과 인간을 중시하는 관계 윤리인 효 문화가 발달했다.

효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자녀가 부모를 친애하고 존경함을 말하는 것이다. 효는 부모를 받드는 윤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사상적으로 훨씬 뜻이 깊어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도리(道理)를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대가족제도였다. 한반도에 정착해 살아온 농경민족인 우리의 조상은 친족 가족에 대한 정이 자별했음을 옛 기록에 의해 쉽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작은 공동체이기도 한 가정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식, 손자로 이어지는 효의 윤리에 의해 화목과 화기가 저절로 감돌았고 이 효의 윤리가 국가 사회로 확충되어 늙은이와 젊은이 어린이로 이어지는 도덕률이 자연스럽게 확립이 되었다.

흔히 말하는 효란 가정에서는 화목이 되지만 사회로 확산이 되면 존경과 봉사 정신이 되고 국가로 확충되면 충(忠)이 되는 것이다. 대가족제도에서는 노인의 말이 존중되는 사회, 노인을 우러러보며 받드는 가정이었다.

그래서 노인은 그 사회의 전통, 가정의 전통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주체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찍부터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자유정신이 강한 서구 문화가 이 땅에 들어오는 가운데 가정이 핵가족화되면서 본질적으로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다.

핵가족의 등장은 결과적으로 수 천 년 동안 이어오던 전통문화인 미풍양속을 퇴색시키고 사회 전반에 개인주의적 기풍을 일으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은 물론 민족의식도 탈색되어 가고 있을 정도가 됐다.

결국은 모든 행실의 원천이라고 일컬어지는 효가 인간성의 퇴색에 따라 사라져가는 윤리로 실낱마냥 잔영만 남기기에 이르렀고 핵가족으로 그 형태가 바뀌면서 가족 구성원의 의식도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모든 행실의 뿌리인 효는 ‘너’와 ‘나’ 사이에 흐르는 가족 사랑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인간적인 이성으로 판단 기준을 설정해주는 윤리이기도 하다.

물론 달라진 효 문화를 안타깝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전통 시대의 대가족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조화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래서 개인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과 인간관계의 정당화를 통해 모든 기능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

안 호 원(언론정보대학원)
부천대학 객원교수,
총동문회 이사



여성동문칼럼

여성동문회, 30년간 이어온 애정과 사랑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79년 어느 날, 법과대학 11회 문정자 동문과 최종렬 선배님이 무교동에서 운영하시던 식당 ‘가빈’에 처음 들리면서 나와 총동문회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그 자리에는 총동문회 선배님들이 모여 계셨는데 당시 거액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문회 장학금 3천만원을 맡긴 회사가 부도처리되면서 장학금 지불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몇몇 선배님들께서 즉석에서 장학금을 모으셨고, 나 또한 이에 동참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동문회 모임에 매달 참석하게 되었다.

조영식 학원장님 격려속에 여성동문회 창립

이후 나와 문정자, 황선 동문이 주축이 되어 여성동문회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성북동에 위치한 황선 동문의 집에서 열린 1차 모임에서는 여성동문회 발족을 확정지었으며 모교 교수식당에서 200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2차 모임에서 초대 여성동문회장으로 당선됐다. (사실 훌륭하고 실력있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왜 내가 회장으로 선출됐는지는 지금도 의문으로 남는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조영식 학원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여성동문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기억이 난다. 조영식 학원장님으로부터 느껴지는 아버지의 따뜻한 속에 우리 모두는 친정에 온 것 같은 안정감 속에서 여성동문회를 창립할 수 있었다.

창덕궁 앞에 위치한 동문회관의 방 한칸을 빌려 여성동문회 사무실을 마련해 책상, 소파, 캐비닛을 설치하고 여성동문록을 배치하면서 동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장흥자 회장이 재임하던 시절 여러 여성동문들의 힘으로 모교 발전기금 1억원을 모아 전달한 것은 지금 회상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뿌듯한 기억이다.

송미섭, 황선, 김경술, 임진출, 장혜원, 장홍자, 정채환, 이순자, 한경자 회장을 지나 14대 이영립 현 회장에까지 이르는 동안 여성동문회는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영립 회장의 노력 덕분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모교와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제주도, 정동진, 경주 등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경희 여성동문들의 화합을 다지고 돈독한 우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 상 혜(법학59)
초대 여성동문회장
총동문회 자문위원



박 금 출(치의76) 입안에행복치과의원 원장, 총동문회 이사



21세기 공해시대에 필요한 건강 상식

행복이 저 산 너머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듯이 건강도 새롭거나 특수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식생활

요즘은 인스턴트 식품이 범람하고, 채소와 과일에는 농약이 늘어가며 육류에도 성장호르몬이나 질병 예방제가 들어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먹는 음식도 중요하고 천천히 오래 씹어 씹으로 소독 분해해서 먹는 식사법을 실천하는 것이 점점 필요해지는 공해시대이다.

침은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할 때 많이 분비된다. 사십이 넘으면 소화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인병이 발생한다. 그동안 먹어오던 음식의 양을 줄여가고 크기도 반으로 적게 해서 천천히 두 배로 오래 씹어야한다. 그래야 혈액이 탁해져 만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구강암과 식도암의 원인인 뜨겁고 찬 음식도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 건강은 이처럼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삶을 요구한다.

◆생활 습관

사람들은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음주, 흡연, 식생활 습관 등 하루 일상의 대다수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긍정적 사고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감사하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고, 웃음은 만병의 치료약이 된다. 일이나 근심 걱정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즐기며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행복해서 웃기는 어려워도 웃다 보니 행복해지기는 쉽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즐겁게 살면 치유의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되어 노화와 질병을 줄여준다.

엔돌핀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과 생각을 할 때 많이 발생된다. 부정적인 사고나 근심걱정은 노르아드레날린과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질병과 노화를 촉진한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긍정적인 말을 항상 외우면서 살아가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건강 특강을 연재하게 된 박금출 동문은 입안에행복치과의원 원장 겸 치아모(내 가족과 내 직업 그리고 이웃과 치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회장으로서 엔돌핀 건강법을 전파하고 있다. 시와 시학 운영위원, 시 산맥 고문, 성동고등학교 경희대모임 회장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바이오세상을 여는 한국폴리텍 바이오대학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계획

바이오 배양공정	바이오 식품분석	바이오 품질관리	바이오 생명정보	의생명동물
36명	36명	36명	36명	36명
수시 1차	원서접수기간 : 2010.9.13(월) ~ 2010.9.30(목)			
수시 2차	원서접수기간 : 2010.11.15(월) ~ 2010.11.28(일)			
정 시	원서접수기간 : 2010.12.20(월) ~ 2011.1.16(일)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만의 차별화

국내 최초 바이오 전문기술인 양성기관

- 정부가 지원하는 2년제 국제특성화 대학
- 첨단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최선의 장비 구축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현장실무중심교육 / 산업체 경력 박스급 교수진(CJ,대웅제약,종근당,유한양행,바이오벤처 등)의 맞춤형 교육 실시 / 산업체 연계 교과편성 운영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졸업생 주요 취업처

CJ제일제당,대웅제약,동국제약,동아제약,한울제약,일성신약,환인제약,중앙백신연구소,바이오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오뚜기,남양유업,셀트리온,이수엠피지스,한국식품연구원,애경산업,한국콜마,한미약품, 녹십자,수암생명공학연구소,SK기술연구원,충남동물자원센터 등.

다양한 혜택

- 저렴한 등록금(1학기당 120만원대) / 재학생 60%이상 장학금 혜택
- 바이오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군입대시 의무병 지원 가능(병무청 의무적성특기 부여)
- 기업체 협약반 운영으로 입학부터 졸업까지 등록금 + 생활비 +취업까지 보장

대 표 ☎ 041-746-7300 입시문의 ☎ 041-746-7312

가자! 바다속 40m 난파선 탐험

GUINNESS WORLD RECORDS

세계 최광무사고유물시간을 보유한 잠수함조종사

세계기네스기록 인증

세계최초 잠수함관광 서비스분야 ISO-9001 인증

한국기록원 3년사건 루시프 안전운행 기록인증

잠수함업계 유일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장 지정

제주유일 바다속 40m 난파선 탐험

會長 金容二 ('70.사학과)

시귀포 SINCE 1988 SUBMARINE

예약전화 : 064)732-6060 한글주소 : 서귀포잠수함 www.submarine.co.kr

서하진 동문 칼럼

부모님을 생각함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 이 없으니 그를 설워하노라 -박인로-

는 고통 때문이라 했다.
어머니, 학교 후배들이 왔어요, 어머니. 이 친구들이 어머니 편안해지시라고 문안 왔어요. 선배가 커다랗게 소리쳤지만 이미 인생을 넘어 저만치 어느 경계로 들어가신 듯, 선배의 어머니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근육이 기능을 잃어 손끝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이의 발이, 병색으로 붓기가 완연한 하얀 발이 정말이지 애처로워보였다.
나는 침대 끝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그의 두 발을 만졌다. 발은 차갑고 단단하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의 그것 같지 않았다. 끔찍한 고통을 견디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픔을 가족 아닌 다른 이들도 알고 있노라, 함께 아파하노라, 차갑기 그지없는 두 발을 만지며 전하고 싶었다. 생전에 뵈지 못한 것이 아니었으나 고통을 감내하는 그 모습이 절로 그렇게 만들었으며 절로 눈물이 나왔다. 평생 가족과 자식 밖에 모르던, 현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라는데 어째서 이런 아픔을 겪으시나 싶었다.
병문안을 다녀 온 사흘 후 선배의 어머니는 끝내 임종하셨다. 담도암 선고를 받은 지

고작 석 달 만이라 했다. 임종 소식을 전하는 선배의 음성은 담담했다. 이제 그 모진 고통에서 놓여나셨구나 싶어 나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선배의 일이 남달리 다가온 건 지난 봄 수술을 하고 아직 이전의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수발을 드느라 여느 때 없이 혹독한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 어머니 때문이다. 애초에 가벼운 디스크 증세를 호전시키고자 했던 수술이었다. 별 것 아니라던 수술이후 아버지의 통증은 오히려 심해졌고 그 통증을 바로 잡겠노라던 별 것 아닌 이차 수술이 있었다. 평소 건강하신 편이고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 분이였으나 나이 여든의 노인에게 일주일 만에 행해진 두 차례의 전신마취는 무리가 아닐 수 없었으니 회복은 더디고 더뎠다.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이라니.....아버지로서는, 우리 가족 누구도 꿈에서조차 생각한 적 없던 일이었다. 본래 불같은 성미는 더 강팔라졌고 그에 따라

어머니의 고충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런 두 분을 뵈고 돌아온 저녁이면 밥을 먹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느닷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러지 말라, 흥분하지 말라, 남편이 옆에서 다독였지만 내 의지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고.....수술을 만류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어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다.

이번 여름, 유래 없는 더위였지만 휴가는 아직 어렵다, 못가겠다, 하셨을 때 나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속이 상했다. 건강하셨을 때 일합네, 아이들 때문이네, 핑계를 대며 함께 떠나지 못했던 탓이었다. 조금씩, 천천히 회복되어 혼자 일어서고, 혼자 식사를 하시고 지팡이에 의지해 걸음을 옮기고 그리고 이제 혼자 뚜벅뚜벅 걷는 아버지를 보는 기쁨을 무엇에 비유할까.

편찮으신 아버지를 보는 일은 고통이었지만 그 이후 누군가의 부고를 들으면서 그 느낌이 그저 예의상 빈소를 찾던 예전과 같지 않다. 모두 내 부모 같고 내 일인 듯 진심으로 가슴이 아프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하는 옛시. 품어가 반길 이 없으니 그를 설워하노라, 하는 그 구절이 절절이 와 닿는 것도 이즈음이다. 회복하시면 다 제쳐두고 온천이라도 모시고 가야지, 생각한다. 평생 의지가 되어준 두 분께 이제 내가 의지가 되어야지, 생각한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는 거. 꼭 아프고 나서야 깨닫는다.



서 하 진(국문79, 소설가)

서하진 동문은 1994년 <현대문학> 신인상에 단편 <그림자와춤>이 당선되면서 다양한 작품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1995년 단편 <제부도>로 이상문학상 수상후보에 오르고 2004년 제10회 한무숙문학상을 수상했다. 2008년에는 경희문인회에서 주관하는 제21회 경희문학상을 수상했으며 2009년에는 백신애문학상을 수상했다. 소설집 <책 읽어주는 남자>, <사랑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 <라벤더 향기>, <비밀>, <요트>, <착한 가족>과 장편소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가 있다.



내일을 준비하는 선택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구 분	과 정	과정 및 과목
문화체육 관광부 위탁교육	국외여행 인솔자	양성교육 : 6주, 년4회 ①관광관련 고등학교 졸업자 ②관광관련업체 6개월이상 근무경력자 ③관광관련 전문대(3학기 이상), 4년제(6학기 이상)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 수료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명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발급
일반 전문 교육	교양	미술아카데미(그림으로 보는 창의력) 기문명리학 사주명리학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영화치료 교양과정 관상학 자기개발과 운명예측 한국전통민속문화
	전문예술	민화(한국전통 채색화) 가야금·전통춤·사물놀이 북아트 서예교실 수필교실 시청각교실 포크아트&패션페인팅 플라워인테리어디자인 한국무용
	음악	성악교실 작사가아카데미 경희컨서바토리(1:1개인지도) (피아노, 색소폰, 클라리넷, 플루트, 성악, 바이올린, 첼로)
	전문가	1급노래지도자 대박성공외식창업 독서지도사 미술심리치료사 생애미술지도자 선진문화창조 리더십 실내조경(그린인테리어)전문가 여행작가양성과정 역사문화아카데미(문화해설사 양성과정-기초/심화) 음식평론전문가 음식심리치료사 전통음식전문가 플러스한자2급 커피바리스타
	웰빙건강	경락피부마사지(입문/고급) 골프 빛명상(장애치유)

■ 특 전 : 일반전문교육, 위탁교육은 경희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취득

<http://cce.khu.ac.kr>

학점은행제

■ 학사학위과정

- 모집전공 :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 모집인원 : 학과별 40명
- 경영학 및 관광경영학 전공과목, 교양과목 등 총 26과목 개설
- 총 140학점 중 본 원에서 84학점 이상 이수 시 경희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취득

■ 의치전원 선수과목 이수과정

- 시험 응시 및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선수과목 개설
- 일반수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물리학, 일반생물학, 분자생물학

접수기간 : 2010년 8월 31일 (화)까지
[개강 9월 1일]

- 접수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접수 (평일 09:00 ~ 17:00) 선착순마감
- 접수 및 문의 : (02)961-0870~2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202호

제25대 총동문회 임원 명단 (3)

제232, 233호에 이어 게재하였습니다.

부 회 장

김 종 필 (상학58) 강릉콜텍시 대표이사 회장
이 영 근 (법학58) 세무사이영근회계사무소 대표
김 봉 임 (대학원) 전 경희대학교 음대학장, 현 서울오페라단 이사장겸 예술총감독
이 승 우 (법학60) (주)대호주유소 대표
유 재 수 (성악61) (주)청양산업 대표
이 한 기 (상학62) (주)성훈테크 회장, 전 서울시의회의원
김 홍 점 (국제법무대학원) 한국도자기 대진도기 동부센터 대표
고 명 수 (지리63) 명진 대표
김 중 남 (영문63) 한국영어교육평가학회 회장,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손 명 섭 (상학63) (주)제일산업 대표이사
송 창 달 (법학63) 그린비전코리아 중앙회장
윤 태 현 (경영63) 스피드플러스 고문
이 영 옥 (정외63) 여성동문회 부회장
한 정 재 (지리63) (주)지엠스코 회장
허 정 강 (법학63) (주)하동상사 대표이사
박 식 원 (체육64) (사)한국학교경영총연합회 이사장
박 태 웅 (체육64) (주)금강 회장
유 승 희 (체육64)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교수
이 경 표 (정외64) (주)신한공사 이사/사업본부장
김 시 중 (언론정보대학원) 한국섬유신문사 회장
김 암 (성악65) 경희대학교 성악과 교수
김 태 흥 (체육교육65) 전 광성중학교 교장
김 행 만 (상학65) 김포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원장, 재경원도 향우회장
박 남 신 (정외65) (주)한국승마방송 대표이사
이 수 부 (법학65) 법무사이수부사무소 법무사
이 승 원 (영교65) 전 영등포고등학교 교장
이 중 호 (경제65)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이 철 두 (법학65)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
조 병 태 (체력관리65) SONETTE, INC. 대표
권 오 창 (법학66)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길 광 섭 (약학66)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
김 석 원 (행정66) (사)신용정보협회 회장
김 중 호 (경제66) 금호타이어(주) 총괄사장
서 효 석 (한외66) 편강한의원 원장
이 경 섭 (한외66) 강남경희한방병원 병원장
이 애 라 (법학66) 이애라글로벌천안물동신학 학장
최 병 욱 (교육대학원) 믿음신협 이사장
한 행 수 (경영66) 삼성홈E&C 회장
황 진 하 (행정대학원) 국회의원
김 말 애 (무용67)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교수, 사단법인 우리춤협회 이사장
김 봉 구 (경제67) 금호리조트(주) 고문
김 차 환 (체육67) 무한산업개발(주) 부회장
김 행 권 (약학67) 세종메디칼(주) 대표이사
신 영 수 (경영67) 4JS Inc. President, 북미주동문회 회장
윤 태 원 (법학67) (주)길림양행 대표이사
이 두 익 (의학67) 인하대학중앙의료원 마취통증의학 교수
임 선 민 (영문67) 한미약품(주) 대표이사
장 지 우 (치외67) 압구정사랑의치과의원 원장
전 기 섭 (약학67) 한성제약(주) 대표이사
정 사 준 (의학67)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 인 화 (의학67) 순천의료재단 의료법인 정병원 이사장/병원장
조 원 경 (전파67) 경희대학교 전자정보대학 교수
김 광 립 (대학원) 국회의원
김 주 형 (법학68)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손 인 국 (상학68) 이구산업(주) 대표이사
이 태 훈 (법학68)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이 학 봉 (경제68) (주)화신폴리텍 회장
조 경 인 (경영68) 산림조합중앙회 전문이사
허 영 인 (경제68) SPC그룹 회장
강 태 범 (화공69) 상명대학교 교수
김 성 수 (정외69) (주)정식품 대표이사
김 성 일 (치외69) 가나치과의원 원장
박 태 웅 (치외69) 미주치과의원 원장
안 규 석 (한외69)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이 세 용 (전파69) (주)이랜텍 대표이사
조 호 구 (치외69) 부부치과의원 원장
허 주 엽 (의학69) 강동경희대병원 원장
강 수 완 (행정대학원) (주)광원산업 회장
김 용 이 (사학70) 대국해저관광(주) 회장
김 춘 진 (치외70) 국회의원
안 재 규 (한외70) 지산한의원 원장
오 택 열 (기계70) 경희대학교 부총장
정 세 균 (대학원) 민주당 대표
국 승 현 (의학71) 햇살병원 원장
김 호 균 (행정71) (주)원주기업도시 사장

유 기 덕 (한외71) 유한의원 원장
윤 석 용 (한외71) 국회의원
이 석 현 (국제법무대학원) 국회의원
정 범 구 (정외71) 국회의원
최 재 영 (경영71) 거봉INC(주) 회장
허 준 영 (의학71) (의)열경의료재단 허병원 이사장
강 현 석 (관광대학원) 전 고양시장
고 조 흥 (법학72) 고조흥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국회의원
김 양 호 (경영대학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윤 도 준 (의학72) 동화약품(주) 회장
이 용 락 (건축72)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고 광 현 (체육73) 한겨레신문 사장
김 광 중 (체육73) 서일대학 총장
김 사 모 (정외73) 디지털와이티엔(주) 대표이사
안 방 수 (국제법무대학원) 유승스포츠(주) 대표이사
우 이 형 (치외73)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장
이 성 근 (임학73) 한국부동산정책학회 회장
이 승 래 (화공7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본부장
기 태 석 (치외74) 기태석치과의원 원장
김 정 만 (정외74)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원장
김 해 곤 (체육74) (주)정일플러스 회장, 골든벨리씨앤씨 회장
손 백 현 (체육74)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행정실장
이 승 (의학74) 서울성심병원 원장
정 훈 (치외74) 정훈치과의원 원장
김 근 식 (원예75) 동방침구제작소 대표
김 외 식 (교육대학원) 경희초등학교 교장
김 우 남 (대학원) 국회의원
이 태 훈 (교육대학원) 경희여자고등학교 교장
진 중 설 (관광대학원) 전 경기도의회 의장
허 향 진 (경영대학원) 제주대학교 총장
김 세 영 (치외76) 김세영치과의원 원장
김 현 철 (치외76) 리빙웰치과의원 원장
이 운 하 (법학76) 한국기업데이터(주) 감사
이 한 구 (언론정보대학원) 한국국세신문사 사장
정 종 태 (정외76) 지테크개발(주) 대표이사
지 범 석 (행정대학원) 대원방직(주) 회장
허 세 녕 (법학76) 국민은행 부행장
김 정 완 (경영77) 매일유업(주) 회장
이 계 순 (행정77) 서울체신청 청장
조 향 로 (교육대학원) 경희중학교 교장
박 순 자 (행정대학원) 국회의원
이 범 래 (경영대학원) 국회의원
홍 익 표 (교육대학원) 경희고등학교 교장
박 영 선 (지리78) 국회의원
안 민 호 (치외78) 경희치과병원 원장
박 종 희 (무역79) 전 국회의원
최 종 원 (토목79) 피에스건설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홍 석 보 (경영79) 학교법인 일지학원 이사장
김 성 제 (경제81) 의왕시장
신 준 식 (한외82)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성 기 석 (태권도84) (사)한국국악마사지협회 회장
이 동 진 (행정대학원) 진도군수

이사 (학부)

오 정 근 (한외46) 전 동남한의원 원장
정 준 환 (영문49)
여 성 구 (법학54) 동정장학회 회장
김 상 목 (정외55) Ramada 사장
박 영 식 (법학55) (주)삼성인크 대표이사
조 성 환 (경제55) 전 현보기업(주) 대표이사
김 완 희 (사학56) 관세법인 명성 관세사
동 일 수 (정외56) GSI 임원
이 동 욱 (정외56) (주)창대 회장
장 기 현 (경제56) 초산산업(주) 회장
박 상 만 (법학57) 전 성호고등학교 교감
신 봉 승 (국문57)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신 형 식 (법학57) 일재농원 대표
이 상 훈 (체육57) 전 춘천시교육청 교육장, 춘천시 삼락회 회장
이 연 복 (사학57) 서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정 명 진 (법학57) ㈜중앙토건 고문
정 석 궁 (경제57) 삼동산업(주) 부사장
정 진 철 (정외57) (주)GAC. 웰택코리아 회장
홍 남 두 (약학57) 광동제약 고문
황 규 대 (법학57) 전 한국전력공사 지점장
김 동 휘 (법학58) (주)신세기보람인슈 대표
김 문 수 (정외58) 원일상가 대표

김 수 임 (정외58) super store owner
김 영 태 (지리58) 전 철원여고 교장
문 준 전 (한외58) 문준전한의원 원장
원 학 희 (지리58)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유 재 후 (법학58) 동문당P&I(주) 회장
윤 재 준 (한외58) 윤재준한의원 원장
윤 종 희 (정외58) ㈜강남역 지하소핑센터 대표이사
이 상 동 (경제58)
정 진 탁 (한외58) 서울한의원 원장
정 해 성 (체육58) 타오름주례단 대표
최 병 헌 (상학58) 전 우남 대표이사
김 지 정 (법학59) 전 신한경건설연구회 회장
박 병 수 (영문59)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명예교수
박 서 용 (약학59) 태평양약국 대표이사
서 관 석 (한외59) 동제한의원 원장
승 병 선 (정외59) (주)동유 회장
왕 대 원 (약학59) 우성약국 대표
이 환 용 (상학59) 창고임대업
강 재 윤 (법학60) 한국목탄연구소 소장
공 정 무 (행정60) 세계인류평화재단 이사장
권 영 국 (상학60) 서울특별시 경우회 회장
권 오 영 (법학60) 파주상담소 돌 소장
김 수 길 (상학60) 전 기업은행 지점장
김 순 길 (체육60) 전 충암고교 교사
김 영 태 (법학60) 전 주택은행 지점장
김 우 영 (상학60) 단양소백농협 조합장
김 초 자 (체육60)
김 학 병 (체육60) 전 Fircrest School Counselor
박 명 규 (상학60) 평화당인쇄(주) 상무
박 부 일 (상학60)
박 영 길 (법학60) 위례지역발전연구소 이사장
박 은 규 (법학60) 한국파렛트협회 전무이사
박 창 호 (법학60) 전 KCC 전무
박 희 보 (상학60)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설 정 남 (국방외교60) 전 민주당 연수원 부원장
손 영 수 (행정60) 코레일 동호인협회 부회장
송 재 석 (체육60) LA RESC INC 사장
신 용 철 (사학60) 동서문화로 연구실 대표
신 종 승 (법학60) 월간신용경제 발행인
엄 익 청 (상학60) Main Market 사장
유 기 원 (한외60) 다움 유기원한의원 원장
유 성 희 (법학60) 전 태성고등학교 교감
이 상 수 (법학60) 골프클럽푸른산자리 대표
이 석 우 (사학60)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공립검재정선기념관 관장
이 성 부 (국문60) 시인
이 자 형 (법학60) (주)하림무역 회장
이 정 하 (상학60) (주)덕산 대표
이 창 호 (한외60) (사)나눔과기쁨 공동대표
장 해 수 (법학60) 전 경희대학교총동문회 기획실장
정 승 택 (화학60) 코리에이티브 대표
조 복 형 (행정60) 서울특별시시우회 관악구회 회장
채 규 산 (법학60) 세무사채규산사무소 세무사
현 유 수 (법학60) 태유산업 회장
홍 광 석 (상학60) 전 아세아사정 전무
홍 승 택 (정외60) (주)그린라이트 대표이사
권 세 혁 (법학61) 코리아능력개발원 원장
권 영 상 (법학61) 변호사 권영상법률사무소
권 태 근 (체육61) 전 서울YMCA 사회체육국장
김 선 하 (한외61) 강서한의원 원장
김 종 근 (법학61) 다함세무법인 고문
김 종 은 (지리61)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CEO 주임교수
김 창 수 (법학61) 김창수변호사사무실 변호사
노 구 현 (법학61) 진우선박(주) 대표이사
박 상 록 (체육61) 그린프라자 대표
박 영 식 (생물61) 진수산업 대표, 대한국물협회 중앙회장
박 정 의 (법학61) 전 동양화재해상보험 이사
박 창 기 (법학61) 문화전기 대표
백 우 현 (법학61) 재한몽골학교 이사
서 상 규 (법학61) 상정산업(주) 대표
송 명 상 (행정61)
오 세 창 (법학61) (주)창성에스엔에스 고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중앙이사
유 경 상 (법학61) 시화문고 대표
유 종 백 (경제61) 한국카페트박물관 대표
윤 화 자 (체육61)
이 관 흙 (법학61) 전 법대동문산악회장
이 광 언 (법학61) 법무사이광언사무소 법무사

이 양 두 (법학61) 전 경희의료원 경리부장
이 정 문 (상학61) 한국만화가협회 부회장
이 정 웅 (법학61)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부회장
이 진 우 (법학61) 전 안산시청 사회경제국장
이 철 세 (물리61) 배재대학교 명예교수
이 형 구 (한외61) 대치 가원한의원 원장
장 세 환 (한외61) 동보한방병원 원장
정 영 완 (경제61) 세원직물(주) 대표이사
진 한 도 (법학61) 한국안전관리(주) 대표이사
허 경 열 (사학61) (주)코 · 인슈런스컨설팅 대표이사
홍 의 (국문61) 원스미디어 이사
고 광 인 (법학62) 하나투어 부사장
김 중 문 (법학62) (사)경제사회발전연구원 부이사장
박 원 일 (정외62) 박원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방 상 현 (사학62) 역사환경문화연구소 소장
서 정 현 (법학62) 뉴코리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조 유 정 (생물62)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최 진 (법학62) 전 호남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김 연 술 (작곡63) 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박 건 서 (경기지도63) 전 동북중학교 교장
박 명 서 (체육63) 전 안동과학대학 생활체육과 교수
성 기 중 (법학63) 전 수성고등학교 교장
유 선 무 (국문63) 수원과학대학 교양과 교수
윤 우 상 (체육63) 전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장
이 강 희 (법학63) (주)정선랜드 상임고문
이 내 각 (법학63) 한국정통육임풍수지리원 원장
이 송 식 (경제63) 한국철도신문 대표이사
차 태 남 (체육63) 전 포천중학교 교장
한 교 민 (화학63) 세화아이덴트 대표
허 충 국 (경영63) C.K.International LTD 대표
홍 사 경 (경영63) 전 경인상사 대표
홍 순 길 (체육63) 전 오산중학교 교장
홍 춘 희 (법학63) 한국마사회 상임고문
강 인 수 (법학64) 수원대학교 부총장
공 상 진 (정외64) (주)애드맨 회장
구 태 회 (생물64) 경희대학교 환경응용학과 명예교수
권 용 진 (작곡64) 전 경희대학교 음대 교수, 대한민국 작곡가연맹회장
김 기 찬 (법학64)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 길 부 (경영64) 동승특수금속 회장
김 상 수 (정외64) 호남환경감시단 총재, 공명선거 실천시민운동 전북연합 회장
김 영 목 (기약64) 경희대학교 기약과 명예교수
김 인 북 (경제64) 동일곡산(주) 대표이사
김 재 윤 (경영64) 우리신용정보(주)
김 형 철 (법학64) 나전실업(주), (주)코스키모 회장
박 용 일 (경영64) 이화지류유통(주) 대표이사
박 정 일 (법학64) 서울법학원 원장
박 형 채 (법학64)
안 병 선 (법학64) (주)영천에이이엔 회장
안 영 수 (영문64)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명예교수, 전 문과대학장
연 순 모 (법학64) (주)삼모 대표이사
오 길 용 (한외64) 구남한의원 원장
유 정 우 (사학64) 전 평택대학교 교학부총장
윤 소 년 (정외64) (주)자산시너지 회장
윤 승 열 (화학64) 신영화학 대표
이 둔 영 (경영64) 신우회계법인 이사
이 동 성 (법학64) 한국알콜산업(주) 고문, 포노스 아메리카 회장
임 무 성 (법학64) 전 삼성화재(주) 상근고문
정 혁 래 (약학64) 보령약품(주) 부장
지 홍 장 (경제64) 현대해상화재보험 길대리점 대표
최 달 정 (경영64) VANYA, INC 대표
최 송 빈 (체육교육64) 전 신한중학교 교장
최 순 휴 (법학64) 에듀스파(주) 감사
최 영 렬 (체육64)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장
허 중 (영문64)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황 의 채 (법학64) 법무법인 신화 변호사
강 군 호 (정외65) (주)델타여행사 대표이사
강 성 구 (법학65) 영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고 영 선 (법학65) 전 국민카드 부사장
고 재 갑 (행정65) (사)한국화술교육회 이사장
권 이 담 (한외65) 전북과학대학 학장
권택영 (영교65)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교수
김 덕 기 (상학65)
김 무 부 (상학65) 전 무등일보 전무
김 상 준 (화학65) 전 동일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
김 성 원 (법학65)
김 성 전 (한외65) 자오한의원 원장
김 영 열 (상학65) 전 서대문구의원
김 용 한 (신방65) 한국토지공사 감사

김 인 수 (체육65) 인천시립대학 사회체육과 강사
김 재 만 (법학65) 한국금속공업(주) 대표이사
김 재 신 (약학65) (주)한림제약 전무
김 정 일 (상학65) 동부CNI 경영자문위원
김 철 림 (법학65) (재)강원문화재단 사무처장
김 태 명 (신방65) (주)동영글로벌 고문
김 희 선 (국문65) 한국수필작가회 회장
박 경 철 (약학65) 와이비에스팜(주) 회장
박 봉 규 (경영65) 우리기술투자, 연합캐피탈, 기은캐피탈 대표이사
박 용 식 (정외65) (주)세덴 회장, 탤런트
박 찬 규 (생물65) 전 경희중학교 교감
박 헌 수 (경기지도65) 서울아이티고등학교 사무국장
방 흥 석 (상학65) 전 휘닉스해운 대표이사
배 진 해 (국문65) 전 경희남녀고등학교 교장
서 헌 철 (법학65) 장신교회 담임목사
서 형 달 (정외65)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석 인 환 (법학65) (주)디에이치코리아 회장
성 낙 준 (법학65) 전 해양수산부경상남도 수산물품질검사원장
손 병 하 (법학65) (주)캐시파크 감사
송 하 현 (법학65)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 부회장
신 범 철 (신방65) 사회경제신문사 사장
신 승 인 (체육65) 전 신광여자고등학교 교장
신 창 국 (경제65) 경원대학교 관광경영학 교수
안 명 수 (신방65) (주)약국신문, 장업신문 대표이사, 편집인
안 영 호 (법학65) 대한화재해상보험(주) 상임고문
안 창 범 (한외65) 동의대학교 한의학과 교수
오 세 진 (법학65) 전 법무부 대구소년원장
오 정 환 (경영65) 전 르노삼성자동차 부사장
유 덕 열 (정외65) 중앙생명보험 사외이사
유 형 식 (사학65) 전 국립전주박물관 관장
이 동 환 (행정65) 전 중외제약 전무이사
이 동 훈 (법학65) 한국부동산TV 부사장
이 두 표 (경영65) YTN 마케팅국 전무
이 병 주 (행정65) IACE컨설턴트 전무이사
이 성 환 (화학65) 보성유화 대표
이 윤 재 (신방65) 황하주얼리 고문
이 중 구 (경기지도65) 고양시의회 의원
임 관 일 (한외65) 태평한의원 원장
임 명 분 (생물65) R&H Hardware Co 자문위원
임 정 만 (상학65) 세왕금속 감사
임 탁 (체육교육65) 전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 교장
장 성 진 (법학65) 전 국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장, 전 보훈복지의료공단 기획이사
장 영 희 (한외65) 장영희한의원 원장
장 창 석 (화학65) 삼광선재(주) 부사장
장 풍 기 (지리65) 이목중학교 교장
정 기 세 (법학65) 전 연주중학교 교장
정 신 동 (법학65) 법무법인 남부종합 변호사
정 자 화 (약학65) 유명약국 대표
채 영 간 (신방65) 금곡교회 목사
최 기 학 (행정65) 서원아업 전무이사
표 영 무 (법학65) (주)진로발렌타인스 부사장
한 성 건 (정외65) 예스이노텍 대표이사
한 정 수 (행정65) 한택산업(주) 대표이사
함 영 균 (정외65) 전 경희의료원 행정실장
허 근 무 (경제65) 전 기아자동차 부사장
강 명 자 (한외66) 꽃마을한방병원 원장
강 성 길 (한외66)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침구과 교수
권 오 경 (정외66) (주)도일자산 대표이사
김 규 배 (법학66) 전 연천군수, 경기도의회 의장
김 길 흰 (한외66)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교수
김 석 전 (한외66) 인산한의원 원장
김 영 찬 (경기지도66) 인덕대학 체육과 교수
김 영 채 (임학66) 경희대학교 생태시스템공학과 교수
김 용 식 (농학66) 김용식방송아카데미 원장
김 재 역 (경제66) (주)삼양사 감사실 감사
김 철 (경영66) 경희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김 치 중 (미교66) 배재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김 태 형 (신방66) 금성정공(주) 대표이사
김 희 조 (경제66) 전 경희대학교 재정예산원장
남 기 신 (가정66) 서울이주여성쉼터 소장
노 화 룡 (법학66) 변호사홍성준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라 중 무 (행정66) 금산빌딩 대표
박 갑 제 (약학66) (주)이원통상 대표이사
박 건 칠 (전파66) 전 MBC 방송인트라국 국장
박 경 식 (기약66) 코리아챔버오케스트라 지휘자
박 덕 중 (한외66) 편강한의원 원장
박 영 수 (성학66)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박 창 석 (화공66) 국무총리실 한국행정연구원 상근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교수

박 태 석 (전파66)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 형 래 (법학66) 법무법인 성심종합 변호사
송 학 승 (상학66) 지엠에스(주) 대표이사
송 학 운 (행정66) 안건회계법인 총무부 상무
오 현 승 (경기지도66) 수원과학대학 생활체육과 교수(학과장)
우 공 균 (경영66) 안건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
윤 원 섭 (행정66) 한국남부발전 기획조정실 차장
윤 홍 노 (한외66) 홍익당한의원 원장
이 상 호 (한외66) 덕성한의원 원장
이 영 우 (경제66) 전 경희대학교 재무처장
이 인 배 (신방66) 중앙일보 정보행정 대표
이 철 기 (영교66) 전 동일공업고등학교 교사
정 병 운 (신방66) 전 MBC 논설위원
정 운 형 (한외66) 광덕한의원 원장
조 경 행 (화공66) 양지파인리조트 상무이사
조 석 호 (한외66) 윤성한의원 원장
조 선 자 (약학66) 종로당약국 대표
조 영 락 (한외66) 창동한의원 원장
조 영 중 (약학66) 조일약국 대표
조 재 현 (약학66) 재현약국 대표
조 청 (지리66) 전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조 해 월 (생물66) 을지외과대학교 미생물학과 교수
최 영 건 (기약66) (유)양정종합주류 회장
표 천 근 (한외66) 동익한의원 원장
홍 상 기 (한외66) 관악한의원 원장
황 성 철 (경영66)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강 찬 구 (약학67) 우인온누리약국 약학박사
권 영 혁 (치외67)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권 오 덕 (경영67) 호세바이오환경(주) 회장
김 경 순 (화학67) EBM포럼 운영팀 팀장
김 기 태 (약학67) 누가약국 대표
김 등 찬 (경영67) 개성빌딩 대표
김 삼 현 (한외67) 행림한의원 원장
김 성 진 (한외67) 경희한의원 원장
김 세 진 (의학67) 킴스메디의원 원장
김 승 만 (의학67) 김승만내과의원 원장
김 승 보 (의학67) 경희의료원 산부인과 교수
김 시 백 (경영67) 전 안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 여 갑 (치외67)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영 실 (화학67) 명지약국 대표
김 용 겸 (섬유67) 도한사 대표
김 용 문 (한외67) 세종한의원 원장
김 인 건 (법학67) 전 코스콤 상임감사
김 인 석 (전파67) 경희대학교 전자정보학부 교수
김 창 숙 (무용67) 탤런트
김 학 균 (신방67) 전 스포츠서울 사장
김 학 중 (의학67) 청구성심병원 이사장
김 현 범 (법학67)
김 홍 래 (의학67) 조이성형외과의원 원장
김 호 수 (경제67) 마일택시 대표이사
남 준 영 (약학67) 준약국 대표
문 경 서 (의학67) 문경서신경정신과의원 원장
민 영 용 (의학67) 서울의원 원장
박 기 현 (체육67) 한국체육대학 배드민턴부 교수
박 동 렬 (약학67) 용한약국 대표
박 성 근 (경제67)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박 성 수 (의학67) 수색성모병원 원장
박 신 자 (정외67)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
박 연 준 (의학67) 준산부인과의원 원장
박 정 희 (약학67) 목원약국 약사
박 지 우 (영교67) 배명고등학교 교감
방 영 남 (의학67) 예루살렘정형외과의원 원장
방 종 배 (약학67) 세화약국 대표
서 윤 석 (의학67) 성누가의원 원장
석 성 화 (한외67) 석성화한의원 원장
신 갑 윤 (경제67) 전 동아컨설턴트 상무
신 동 규 (경영67) 경영지도사
신 미 애 (치외67) 청담부부치과의원 원장
신 언 형 (체육67) 명보제과 대표
신 익 현 (행정67) 한국울트라 대표이사
안 역 봉 (한외67) 경희한의원 원장
안 옥 모 (영교67)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
안 창 운 (법학67) (주)대창 고문
염 병 만 (경영67) 동방아그로 대표이사
왕 규 식 (한외67) 왕규식한의원 원장
유 운 형 (법학67)
윤 인 탁 (치외67) 윤인탁치과의원 원장
이 강 보 (의학67) 이강보산부인과의원 원장

이 건 석 (한의67) 이석한의원 원장	박 주 호 (정외68) 나이아가라 스카이부페 대표	박 상 철 (행정69) 대도관광(주) 이사
이 동 기 (의학67) 이동기안과의원 원장	배 형 섭 (한의68)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한방병원장	박 순 복 (성악69) 경희대학교 음대 교수
이 병 두 (체력관리67)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변 필 래 (경영68) 대한인쇄소 대표	박 승 옥 (치의69) 박승욱치과의원 원장
이 상 결 (화학67) 대명금속 대표	서 봉 석 (약학68) 그린프라자약국 대표	박 정 원 (기계69) 유한대학 건축설비과 교수
이 시 은 (경영67) 송림실업(주) 전무이사	송 영 유 (치의68) 스마일치과의원 원장	박 정 환 (의학69) 미소진피부비뇨기과의원 원장
이 영 복 (정외67)	신 경 엽 (법학68) (주)비앤비애드 고문	박 중 면 (기계69) 유성엔지니어링 대표
이 영 순 (가정67) 경희대학교 식영과 교수	신 동 태 (섬유68) 부천대학 섬유비즈니스과 교수	박 주 홍 (화공69) 신성철강 대표이사
이 옥 수 (행정67) 동신운수(주) 감사	신 옥 영 (의학68) 경희의료원 마취과 교수	박 해 숙 (간호69) 상계백병원 관리부 부장
이 종 도 (의학67) 한서병원 내과과장	신 용 섭 (행정68) 코래일유통(주) 광고사업본부장/상무이사	박 휴 서 (한의69) 보생원한의원 원장
이 주 원 (체육67) 건원목재, 가설산업 대표	신 응 범 (치의68) 신응범치과의원 원장	박 희 봉 (의학69) 박내과의원 원장
이 준 호 (정외67) 교통방송 대표이사	신 현 대 (한의68)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서 영 문 (치의69) 자모치과의원 원장
이 중 석 (의학67) 경희의료원 진단방사선과 교수	안 승 준 (의학68) 동작경희병원 원장	손 성 호 (법학69) (주)동아일렉콤 대표이사
이 채 동 (치의67) 이채동치과의원 원장	안 현 석 (법학68)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송 기 준 (정외69) (주)BYC 구로공장장
이 철 호 (한의67) 이철호한의원 원장	오 명 환 (의학68) 오명환정형외과의원 원장	신 영 림 (치의69) 신치과의원 원장
이 치 훈 (화공67) KMC 상무	왕 명 자 (간호68)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심 광 (의학69)
인 웅 환 (약학67) 인영약국 대표	우 영 환 (경영68)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심 원 규 (한의69) 경희한의원 원장
정 경 열 (약학67)	유 상 열 (행정68) 태창금박 대표이사	안 승 인 (임학69) DS 텍스타일 대표이사
정 규 림 (치의67) 웰치과의원 원장	유 성 현 (의학68) 유성현의원 원장	안 영 재 (치의69) 강북경희치과의원 원장
정 동 철 (의학67) 정동철소아과의원 원장	윤 두 근 (치의68) 윤두근치과의원 원장	양 경 근 (의학69) 양외과의원 원장
정 우 진 (의학67) 정우진내과의원 원장	윤 재 동 (신방68)	엄 정 권 (정외69) 서울약업 상무
정 종 섭 (약학67) 다림바이오텍(주) 대표이사	윤 중 현 (화공68) 도화종합기술공사 부회장	원 유 근 (약학69) 원유근치과의원 원장
조 재 오 (치의67)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윤 태 식 (경제68) (주)현대안전공사 부회장	유 충 열 (한의69) 유충열한의원 원장
조 현 상 (경영67) 서우여행사 대표이사	이 강 현 (약학68) 영광약국 대표	윤 우 준 (전파69) (한)한나케어 대표
주 옥 경 (약학67) 해민약국 대표	이 건 주 (치의68) 샘치과의원 원장	이 규 호 (행정69) 학교법인한흥학원 상임이사
주 용 국 (전파67)	이 근 열 (경영68) 알리안츠생명 이사	이 금 준 (기약69) 경희음악학원 원장
주 진 철 (의학67) 리더스치과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이 말 섭 (섬유68) 한코프섬유 대표	이 문 희 (의학69) 프라우메디병원 원장
진 영 태 (신방67) 약업신문 대표이사	이 명 숙 (신방68) 계약경제일보(GGI) 대표이사	이 병 수 (신방69)
차 후 영 (정외67) (주)성진맥심 대표이사	이 병 소 (치의68) 민중치과의원 원장	이 상 국 (치의69) 진치과의원 원장
천 국 태 (경제67) 남선금속 대표	이 상 호 (화공68)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고문	이 상 호 (한의69) 경인한의원 원장
최 진 호 (치의67) 최진호치과의원 원장	이 영 범 (행정68) 장한전건(주) 전무	이 영 기 (농학69) 특허청 식품생물자원과 수석심사관
최 창 규 (치의67) 최창규치과의원 원장	이 영 주 (정외68)	이 욱 용 (행정69) 전 신한은행 본부장
한 광 수 (한의67) 형제한의원 원장	이 영 준 (법학68)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 윤 희 (사학69) 서일대학 민족문화과 교수
한 동 주 (영교67)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학과 교수	이 재 각 (체육68) 강기옥부띠고 대표	이 정 복 (의학69) 성도가정의학과의원 원장
함 환 중 (섬유67) 광창물산 대표이사	이 종 연 (경제68) 삼진기업 대표	이 종 원 (약학69) 명도약국 대표
허 충 림 (의학67) 경희의료원 피부과 교수	이 태 훈 (의학68) 우리들소아과의원 원장	이 호 연 (한의69) 평강한의원 원장
홍 사 광 (행정67) ㈜초록항공 대표이사	임 용 수 (한의68) 동선한의원 원장	임 경 식 (경제69) 임경식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황 갑 석 (정외67) (주)다웃엔지니어링 회장	장 승 균 (국문68) 힐탑 대표	임 동 구 (의학69) 임안과의원 원장
황 규 통 (한의67) 경희한의원 원장	장 영 준 (경영68) 극동유화(주), 고진모터스(주) 대표이사	임 종 기 (전자69) KBS TV기술과 총감독
황 량 (국방외교67)	정 경 임 (한의68) 해담한의원 원장	임 춘 식 (국문69)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원장,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
황 의 완 (한의67)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교수	정 광 섭 (신방68) (주)삼익하이코 회장	임 흥 재 (치의69) 백제치과의원 원장
강 기 현 (치의68) 독일웰치과의원 원장	정 국 회 (약학68) 미래약국 약사	장 총 현 (의학69) 강북삼성병원 성형외과
강 성 길 (한의68) 로댐요양병원 병원장	정 재 만 (무용68) 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 교수	전 재 봉 (의학69) 맑은눈밝은안과의원 원장
강 영 신 (신방68) 한국여성스포츠회 사무총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조 규 석 (의학68) 경희의료원 흉부외과 교수	정 원 모 (한의69) 경희해독한의원 원장
강 윤 원 (법학68)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조 규 섭 (지리68) 전 김포SEASIDE 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조 현 아 (약학69) 명도약국 대표
강 태 학 (한의68) 강한의원 원장	조 창 주 (한의68) 자양한의원 원장	조 홍 열 (한의69) 해암한의원 원장
고 영 애 (간호68)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지 현 식 (기계68) 한국폴리텍6대학 산업설비자동화와 교수	주 광 훈 (전자69) 광신전자 대표
고 영 태 (의학68) 경희의료원 진단방사선과 교수	천 대 웅 (신방68) (주)태양섬유상사 대표이사	최 규 홍 (의학69) 삼성제일병원 산부인과 과장
권 덕 수 (의학68) 대동의원 원장	최 규 진 (치의68) 최규진치과의원 원장	한 기 필 (약학69) 조일약국 대표
권 혁 수 (체육68) 전 대한석탄공사 부사장	최 대 균 (치의68) 경희의료원 치대병원 교수	한 상 숙 (간호69)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김 선 혁 (경제68)	최 병 목 (신방68)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부장, 학생처장	홍 순 관 (한의69) 흥한의원 원장
김 성 구 (사학68)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최 환 영 (한의68) 대구한의대학교 의무부총장	고 진 권 (법학70) 법무사고진권사무소 법무사
김 연 표 (약학68) 고려약국 대표	한 무 현 (치의68) 한무현치과의원 원장	고 찬 (기계70) 서울산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 영 선 (한의68) 김영선한의원 원장	허 미 경 (의학68) 해의원 원장	권 수 갑 (치의70) 권치과의원 원장
김 영 섭 (한의68) 백운당한의원 원장	현 경 선 (간호68)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권 오 상 (전자70) 아성코리아 대표이사
김 영 식 (작곡68) 한국음악평론가협회 회장	황보종연 (의학68) 황보성형외과의원 원장	김 근 (의학70) 미래드림여성병원 원장
김 영 채 (경영68) 삼정회계법인 영남본부 대표 공인회계사	강 석 태 (기계69) (주)대광특수금속 대표이사	김 길 중 (기계70) 전 극동유화 상무이사
김 원 옥 (간호68)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장	김 광 호 (농학69) 동구물산 대표이사	김 낙 인 (의학70) 경희의료원 피부과 교수
김 의 식 (행정68) 인천대학교 초빙교수	김 기 덕 (의학69) 김기덕산부인과의원 원장	김 덕 곤 (한의70) 경희의료원 한방소아과 교수
김 재 우 (정외68) SK강남주유소 대표	김 기 태 (한의69) 진성한의원 원장	김 문 회 (의학70) 보람여성전문병원 원장
김 재 형 (약학68) 수복약국 대표	김 달 수 (섬유69) 서울가든 대표	김 상 룡 (의학70) 큰사랑의원 원장
김 정 원 (의학68) 원이비인후과의원 원장	김 동 규 (한의69) 유림한의원 원장	김 수 형 (의학70) 미래비뇨기과의원 원장
김 정 화 (간호68)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김 동 만 (약학69) 무궁화약국 대표	김 승 진 (의학70) 한울남피부과의원 원장
김 종 산 (의학68) 김종산소아과의원 원장	김 병 옥 (치의69) 김병옥치과의원 원장	김 애 경 (한의70) 김애경한의원 원장
김 준 화 (한의68) 문경단한의원 원장	김 성 철 (의학69) 한독의원 원장	김 이 규 (의학70) 김이규산부인과의원 원장
김 천 년 (체력관리68) 동양공업전문대학 교수	김 승 원 (의학69) 김승원내과의원 원장	김 재 수 (치의70) 김재수치과의원 원장
김 태 관 (경영68) 김태관세무사사무소 세무사	김 연 두 (의학69) 김연두내과의원 원장	김 진 환 (임학70) 현대증권 상무
김 태 성 (의학68) 경희의료원 신경외과 교수	김 요 한 (의학69) 김요한의원 원장	김 해 군 (치의70) 예담치과의원 원장
김 해 규 (약학68) 진주약국 대표	김 원 명 (약학69)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사	김 향 태 (법학70) 전 스마트시티자산관리(주) 대표이사
김 효 영 (한의68) 효성한의원 원장	김 인 곤 (치의69) 김인치과의원 원장	김 혜 영 (행정70)
노 효 영 (약학68) 대왕약국 대표	김 재 룡 (법학69) 서울남대문시장(주) 상임부사장	김 흥 식 (경제70) 동양석판 상무(기획본부장)
민 경 수 (전자68) UV컨설팅 컨설턴트	김 재 복 (경제69) 농민신문사 사장	남 삼 극 (의학70) 위생병원 의무원장
박 갑 용 (치의68) 동산치과의원 원장	김 중 복 (법학69) 한국원자력학원 감사	남 영 (한의70) 동남한의원 원장
박 동 석 (한의68)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교수	김 진 우 (의학69) 경희의료원 내과 교수	문 동 규 (의학70) 반도병원 원장
박 명 훈 (한의68) 합동한의원 원장	김 진 호 (경영69)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문 정 식 (한의70) 선산한의원 원장
박 봉 규 (치의68) 박봉규치과의원 원장	김 천 식 (약학69) 세종약국 약사	민 병 일 (한의70) 경희대학교 생리학교실 교수
박 상 준 (행정68) 일성섬유 대표	노 문 환 (영문69) 신성교역진흥상사 대표이사	박 기 석 (기계70)
박 상 혁 (법학68) 박상혁법무사사무소 대표	박 동 욱 (의학69) 박동욱정형외과의원 원장	박 순 환 (한의70) 여래한의원 원장
박 수 영 (약학68)	박 몽 길 (의학69) 자산의원 원장	박 영 민 (의학70) 박영민이비인후과의원 원장

박 종 학 (의학70) 박종학신경정신과의원 원장
 박 흥 순 (법학70)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백 중 철 (체육70)
 변 우 현 (의학70) 변우현이비인후과의원 원장
 변 희 춘 (법학70)
 송 영 일 (치의학70) 우리치과의원 원장
 시 상 수 (경영70) 퓨리나코리아 이사
 신 길 금 (의학70) 신길금성형외과의원 원장
 신 선 자 (미교70) 여성동문회 재무이사
 신 훈 선 (한의학70) 삼화한의원 원장
 심 재 용 (한의학70) 심재용한의원 원장
 안 선 예 (한의학70) 돈화한의원 원장
 안 성 진 (법학70) 미도세라믹 대표이사
 어 영 선 (치의학70) 어치과의원 원장
 오 영 (사학70)
 오 영 철 (의학70) 청구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우 중 설 (의학70) 우피부과의원 원장
 우 홍 정 (한의학70) 경희의료원 한방내과 교수
 원 문 재 (의학70) 중앙외과의원 원장
 유 병 렬 (행정70)
 유 선 재 (치의학70) 유선재치과의원 원장
 유 윤 선 (경영70)
 유 한 수 (의학70) 청구성심병원 방사선과 과장
 유 회 현 (의학70) 강남엔요산부인과의원 원장
 윤 달 중 (영문70)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전무
 윤 종 길 (성악70) 서울피아노학원 원장
 윤 중 훈 (의학70) 윤안과의원 원장
 이 강 칠 (경영70) 효성전기 전무
 이 경 호 (전자70) 한국전파진흥협회 대표
 이 규 옥 (한의학70) 유일한의원 원장
 이 동 진 (한의학70) 종로경희한의원 원장
 이 상 윤 (약학70) 일층약국 대표
 이 상 일 (한의학70) 강동21세기한의원 원장
 이 승 경 (치의학70) 경치과의원 원장
 이 영 우 (치의학70) 이영우치과의원 원장
 이 영 표 (전자70) 김&장법률사무소 특허부 이사
 이 영 호 (의학70) 이영호비뇨기과의원 원장
 이 웅 석 (치의학70) 이웅석치과의원 원장
 이 원 구 (신방70) 대교테크 부사장
 이 은 점 (정외70) 사회복지법인 한미음복지재단 이사장
 이 재 흥 (한의학70) 이재흥한의원 원장
 이 종 완 (체육70) Lyle Pacific 대표이사
 이 주 형 (도예70) 영남이공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학과장)
 이 창 준 (체육70) 제주대학교 체육학부 교수
 이 철 용 (의학70) 이철용안과의원 원장
 장 병 기 (경제70) (주)삼정P&A 대표이사
 장 영 인 (치의학70) 태평치과의원 원장
 정 덕 환 (의학70) 경희의료원 정형외과 교수
 정 용 중 (의학70) 청구통증클리닉 원장
 정 태 호 (한의학70) 참경희한의원 원장
 제 한 봉 (치의학70) 코엑스예치과의원 원장
 조 경 자 (미교70)
 조 중 생 (의학70) 경희의료원 이비인후과 교수
 최 달 현 (치의학70) 최치과의원 원장
 최 상 진 (국문70) 경희대학교 국문과 교수
 최 영 규 (의학70) 경희의료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최 원 중 (치의학70) 최원중치과의원 원장
 최 중 운 (화공70) 서울산업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한 석 천 (전자70) (주)남양계전 부사장
 한 성 준 (의학70) 한피부과의원 원장
 한 종 설 (의학70) 강북삼성병원 산부인과 과장
 허 만 송 (화공70) 한국군사문제 연구위원
 홍 무 창 (한의학70)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홍 성 언 (의학70) 경희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황 춘 섭 (가정70)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강 규 석 (치의학71) 서울성심병원 치과 과장
 강 재 만 (한의학71) 백구한의원 원장
 강 현 식 (영교71) 한국방재협회 사무총장
 고 광 민 (정외71) 유웨이인턴내셔널 부회장
 권 석 정 (건축71) 경방중건(주) 대표이사
 길 완 섭 (경영71) 오색유치원 이사장
 김 경 빈 (한의학71) 인당한의원 원장
 김 광 옥 (신방71) (주)서보사 대표
 김 기 준 (경제71) ㈜용산 회장
 김 덕 인 (전자71) (주)대주상사 대표
 김 덕 호 (한의학71) 인애가한방병원 대표이사
 김 상 우 (의학71) 예일산부인과의원 원장
 김 상 익 (한의학71) 새봄한의원 원장

김 선 중 (의학71) 순천향대학교병원 마취과 교수
 김 세 준 (신방71) 선진마케팅 대표이사
 김 영 실 (정외71) (주)하이테크정보 대표이사
 김 영 윤 (경영71)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영 주 (의학71) 김영주내과의원 원장
 김 영택 (경제71)
 김 용 구 (치의학71) 김용구치과의원 원장
 김 용 호 (한의학71)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국장
 김 일 원 (간호71)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객원교수
 김 종 학 (신방71) 김종학프로덕션 대표이사
 김 준 호 (의학71) 김준호피부비뇨기과의원 원장
 김 중 배 (한의학71) 리뉴유한의원 원장
 김 진 목 (전파71) LG이노텍 상무
 김 태 옥 (의학71) 새서울정형외과의원 원장
 김 형 대 (건축71) 인덕대학 실내건축과 교수
 남 건 우 (경제71) 한국수출보험공사 본부장
 노 병 립 (토목71) 서린산업 대표
 문 익 언 (의학71) 중앙기독의원 원장
 박 기 수 (의학71) 수옥산부인과의원 원장
 박 문 규 (행정71) 신선수산(주) 대표이사
 박 병 조 (행정71) 리스트(주) 대표이사
 박 석 범 (치의학71) 이만음치과 원장
 박 순 백 (신방71) 드림위즈 부사장
 박 영 배 (한의학71) 경희의료원 진단생기능의학과 교수
 박 영 식 (행정71) 벽옥사 대표
 박 인 호 (법학71) 세종정밀화학(주) 대표
 박 준 봉 (치의학71)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치과대학장
 박 준 일 (영교71) (주)다웅 대표이사
 박 찬 규 (도예71) (주)삼우세라믹스 회장
 박 항 영 (치의학71) 박영치과의원 원장
 박 현 (치의학71) 박현치과의원 원장
 박 현 석 (의학71) 박산부인과의원 원장
 박 호 철 (의학71)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의대부속병원장
 박 희 영 (의학71) 자애내과외과의원 원장
 배 영 재 (의학71) 하안나리테크필피부과의원 원장
 서 동 원 (행정71) BTK개발(주) 사장
 서 희 범 (한의학71) 선진한의원 원장
 성 우 용 (한의학71)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소 진 백 (한의학71) 소진백한의원 원장
 송 지 영 (의학71) 경희의료원 신경정신과 교수
 오 상 훈 (체육71)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오 재 훈 (법학71) 법무법인 자유 변호사
 오 현 승 (한의학71) 오현승한의원 원장
 유 경 환 (약학71) 준약국 대표
 유 윤 재 (치의학71) 유윤재치과의원 원장
 유 철 균 (법학71) 법무법인 천치인 변호사
 윤 광 희 (행정71) peoplebiz.net 컨설팅 대표
 윤 영 섭 (영문71) 전기공사공제조합 상무
 이 광 호 (건축71) 무이건축사사무소 소장
 이 병 수 (경영71) 경희대학교 사무처장
 이 수 영 (법학71) 삼성생명보험(주) 고문
 이 영 순 (의학71) 동작순천향병원 산부인과 과장
 이 용 우 (경영71) (주)HIP컨설팅 대표
 이 용 한 (경영71) (주)원익 회장
 이 용 호 (치의학71) 이용호치과의원 원장
 이 임 순 (의학71) 순천향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이 정 훈 (의학71) 이소아과의원 원장
 이 중 옥 (의학71) 한일정형외과의원 원장
 이 주 희 (의학71) 경희의료원 병리과 교수
 이 중 춘 (행정71) (주)대원레미콘 사장
 이 해 근 (신방71) (주)와프인스 본부장
 이 헌 국 (도예71)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교수
 임 경 빈 (토목71) 임경빈골프아카데미 원장
 임 무 영 (치의학71) 임무영치과의원 원장
 장 성 구 (의학71) 경희대학병원 비뇨기과 교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 경 수 (화공71) 경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
 전 춘 이 (미교71) 전춘이화실 대표
 정 규 장 (경제71) 전 우리신용정보(주) 전무
 정 수 정 (간호71) 경희의료원 간호본부 특수병동 간호팀장
 정 승 기 (한의학71) 경희의료원 한방5내과 교수
 조 경 식 (의학71) 서울아산병원 방사선과 교수
 조 병 수 (의학71) 경희의료원 소아과 교수
 조 완 제 (전자71) (주)다모아시스템 대표이사
 주 면 호 (도예71) IB독서실 대표
 주 익 남 (치의학71) 주익남치과의원 원장
 차 성 호 (의학71) 경희의료원 소아과 교수
 채 연 석 (물리71) 한국우주소년단 부총재, 한국상공우주연구원 연구위원
 최 달 용 (의학71) 최피부과의원 원장

최 방 길 (법학71)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이사
 최 성 해 (사학71) 전 경희여고 교사
 최 영 용 (의학71) 한림대학강남성심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최 재 규 (법학71) 도서출판 목산 대표
 최 중 권 (치의학71) 세정치과의원 원장
 최 중 용 (의학71) 사랑가득중앙의원 원장
 하 주 태 (치의학71) 하주태치과의원 원장
 한 석 만 (치의학71) 한도치과의원 원장
 허 귀 진 (경영71)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현 의 일 (법학71) KB신용정보(주) 영업2부 영업이사
 황 일 권 (경영71) 장안시장 대표
 강 화 자 (의학72) 경희의료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고 영 관 (의학72) 경희의료원 응급의학과 과장
 권 동 원 (의학72) 한우리의원 원장
 김 권 삼 (의학72) 경희의료원 내과 교수
 김 기 영 (의학72) 김기영정형외과의원 원장
 김 길 수 (한의학72) 기린한방병원 원장
 김 상 국 (경제72) 전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김 여 화 (한의학72) 경희세화당한의원 원장
 김 영 국 (지리72)
 김 영 일 (치의학72) 김천의료원 원장
 김 영 재 (작곡72)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김 영 준 (원예72) 노블레스부페, 웨딩홀 대표
 김 의 순 (의학72) 김외과의원 원장
 김 재 규 (한의학72)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침구과 교수
 김 중 원 (의학72)
 김 주 호 (법학72)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사장
 김 현 수 (의학72) 강북삼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김 홍 룡 (한의학72) 평강한의원 원장
 문 대 수 (경영72)
 문 향 진 (치의학72) 문향진치과의원 원장
 민 병 환 (한의학72) 동제한의원 원장
 박 규 일 (의학72) 보람의원 원장
 박 기 호 (한의학72) 황제한의원 원장
 박 동 룡 (정외72) (주)피어리스 총무인사팀 이사
 박 동 철 (의학72) 동양정형외과의원 원장
 박 문 서 (의학72) 경희동서신의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박 봉 준 (신방72) MBC 대전방송국 보도국장
 박 상 철 (사학72) 태평양 비서실장(상무)
 박 성 복 (한의학72) 토지한의원 원장
 박 일 해 (치의학72) 박일해치과의원 원장
 박 재 순 (신방72) 전 한국수출보험공사 이사
 박 재 진 (기계72) (주)송원항공 대표이사
 박 재 홍 (치의학72) 이삭치과의원 원장
 배 성 환 (작곡72)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배 중 우 (의학72) 경희동서신의학병원 소아과 교수
 백 서 영 (의학72) 백비뇨기과의원 원장
 변 상 기 (물리72) (주)국동,(주)앤소언 대표이사
 서 중 구 (의학72)
 소 병 옥 (행정72) 동아제약 상무
 송 옥 걸 (한의학72) 경희중화한의원 원장
 신 성 문 (의학72) 신안과의원 원장
 신 완 용 (치의학72) 신치과의원 원장
 안 상 직 (의학72) 안상직내과의원 원장
 오 대 환 (치의학72) 삼익치과의원 원장
 오 윤 영 (의학72) 오윤영산부인과의원 원장
 원 중 배 (물리72) (주)TV코리아 회장
 유 금 용 (한의학72) 천도당한의원 원장
 유 명 속 (한의학72) 한국미한의원 원장
 유 지 홍 (의학72) 경희동서신의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유 지 훈 (치의학72) 유지훈치과의원 원장
 육 동 신 (한의학72) 동신한의원 원장
 윤 현 길 (의학72) 윤민소아과의원 원장
 윤 호 성 (기계72) 성진주철산업(주) 회장
 이 강 근 (경영72) 선도수련장 대표
 이 동 생 (한의학72) 동생한의원 원장
 이 명 호 (한의학72) 남강한의원 원장
 이 무 형 (의학72) 경희의료원 피부과 교수
 이 병 철 (물리72)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과장
 이 상 일 (정외72)
 이 성 주 (건축72) 삼환까무 상무이사
 이 수 형 (법학72)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 영 덕 (의학72) 서울성심의원 원장
 이 영 희 (무용72) 국립 경상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이 용 덕 (기계72) 주한미군 사령부 감독관
 이 원 효 (경영72) 서울대공원 원장
 이 유 환 (한의학72) 은덕한의원 원장
 이 인 영 (법학72) 백석대학교 학생지원본부장

이 종 각 (한의72) 이종각한의원 원장	김 영 천 (건축74) 삼부토건(주) 상무	최 홍 규 (체육75) (주)아시안브릿지미디어 사장
이 태 수 (치의72) 이의원치과의원 원장	김 원 숙 (간호74) 경희의료원 간호본부 간호팀장	최 효 영 (치의75) 최효영치과의원 원장
이 현 수 (전자72) 경희대학교 전자정보대학 교수	김 종 원 (영교74) ING생명보험 영업 총괄사장	황 옥 심 (식영75) 미국호텔협회 한국지사 대표
이 홍 중 (지리72) 한국미쓰이물산(주) AGENT	김 진 웅 (신방74) 하나한방병원 경영원장	공 선 식 (치의76) 공선식치과의원 원장
이 환 호 (사학72) 경희대학교 일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노 홍 섭 (치의74) 삼성창원병원 치과과장	권 용 원 (치의76) 예치과병원 원장
이 희 정 (정외72) 동우해운항공 상무	류 동 목 (치의74) 경희동서신의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김 성 수 (의학76)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임 재 형 (한의72) 명래한의원 원장	민 경 조 (국문74) (주)e-하이슬 대표이사	김 용 인 (의학76)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주임교수
임 천 규 (의학72) 경희의료원 신장내과 교수	박 노 흥 (신방74) 전 마산MBC 사장	김 운 호 (경영76)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교수, 대외협력처장
임 충 남 (치의72) 임충남치과의원 원장	박 중 국 (신방74) 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 형 돈 (체육76)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장 문 성 (한의72) 금강한의원 원장	배 홍 모 (농학74) 지엘엘(주) 전무이사	김 형 모 (의학76) 김외과의원 원장
장 종 특 (화공72) 전 경희고등학교 교장	부 용 철 (치의74) 부용철치과의원 원장	박 금 출 (치의76) 입안에행복치과의원 원장
정 동 채 (국문72) 전 문화관광부 장관	송 재 기 (경제74) 행정안전부 기획단 단장	박 도 규 (경영76) SC제일은행 부행장
정 용 선 (치의72) 정용선치과의원 원장	신 원 목 (한의74) 동방한의원 원장	박 상 호 (의학76) 박상호소아과의원 원장
정 용 직 (의학72) 정비노기과의원 원장	유 경 일 (건축74) 건축사무소 모인터 대표이사	박 인 건 (기약76)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정 일 성 (도예72) 대한철강 대표	유 남 근 (건축74) 예술의전당 전략사업단장	범 희 변 (한의76) 경희한의원 원장
정 지 건 (약학72) 이화약국 대표	유 오 봉 (조경74) 유오종합건설 대표이사	서 형 심 (의학76) 분당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정 환 주 (화공72) 선덕중학교 교장	윤 인 한 (토목74) ㈜유신 상무이사	성 기 준 (기계76) 엠테스(주) 대표이사
조 광 호 (한의72) 만당한의원 원장	이 경 배 (기계74) 블루버드환경(주) 부사장	손 승 우 (기계76) 녹수커퍼숍 대표
조 영 선 (체육72) (주)이체프로텍 대표	이 용 기 (경제74) 영남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은 종 원 (한의76) 인제당한의원 원장
조 을 훈 (치의72) 부부치과의원 원장	이 원 중 (경제74)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행정실장	이 갑 수 (섬유76) 신세계이마트 본사 부사장
조 태 민 (건축72) 명승건축 소장	이 윤 (법학74) 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 과장	이 민 영 (한의76) 백산한의원 원장
주 동 원 (법학72) YTN 해설위원 실장	이 정 기 (신방74)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장	이 수 열 (지리76) 강동그린치과의원 원장
최 영 철 (치의72) 경희대학교 소아치과 교수	이 충 현 (의학74)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 원 복 (정외76) 변호사이원복법률사무소 변호사
최 천 식 (의학72) 강북삼성병원 신경외과 과장	이 태 원 (의학74) 경희의료원 신장내과 교수	이 원 석 (의학76) 코리아병원 원장
최 철 옥 (의학72) 우리들가정의원 원장	인 정 태 (토목74) KG엔지니어링 부사장	이 중 수 (한의76) 경희의료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하 두 용 (도예72) 지촌도예 대표	임 선 희 (의학74) 자애내과외과의원 원장	장 성 일 (법학76) 경민중학교 교장
하 병 호 (정외72)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임 호 군 (정외74) 한국광고주협회 사무총장	장 영 명 (치의76) 하안돌치과의원 원장
한 만 형 (치의72) 한만형치과의원 원장	전 병 관 (체육74)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정 대 진 (법학76) SC제일은행 상무
한 유 찬 (경영72) 한창S&C(주) 대표이사	정 기 환 (물리74) 사단법인 기독교학술원 이사장	정 수 경 (간호76) 경희의료원 산부인과 수간호사
한 철 환 (토목72)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	정 성 관 (정외74) 매일경제TV 이사	정 완 용 (법학76)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
한 현 언 (의학72) 한현언성형외과의원 원장	정 준 수 (기약74) 경희대학교 기약과 교수	조 도 영 (기계76) (주)팀라미 대표이사
허 금 형 (한의72) 코리아웨어하우스(주) 대표	조 병 춘 (법학74) 경희대학교 기획위원회 사무국장	진 시 중 (영교76) 순천매산고등학교 교사
고 병 희 (한의73)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교수	조 성 태 (한의74) 아카데미한의원 원장	천 병 태 (한의76) 유정한의원 원장
김 기 선 (행정73) 전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 균 태 (신방74) 경희대학교 정경대학장	최 관 호 (법학76) 경희대학교 법인사무처 처장
김 두 년 (법학73) 우리은행 경기동부영업본부 본부장	강 희 원 (법학75)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홍 림 (기계76) 디지털에어시스템(주) 대표이사
김 석 찬 (영문73) 수협중앙회 미아역지점 차장	고 경 석 (한의75) 고경석한의원 원장	한 승 화 (기계76) 특허청 심판5부 심판장
김 완 중 (법학73) 법무법인 대동 변호사	고 재 윤 (호텔경영75)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	강 성 룡 (토목77) (주)한려레미콘 대표이사
김 외 봉 (전자73) 주한 스웨덴대사관 무역대표부	곽 약 훈 (치의75) 곽치과의원 원장	구 중 대 (법학77) 경희동서신의학병원 운영지원팀장
김 익 화 (행정73) 광혜원의료재단 관리본부장	권 태 순 (경제75) (유)동호상사 대표이사	김 동 훈 (법학77)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인 숙 (무용73) 경기예총 부회장, 이우춤사랑무용단장	김 귀 원 (치의75) 나라치과의원 원장	김 영 숙 (한의77) 서울한의원 원장
김 진 수 (체육73) (주)파스코 대표	김 대 영 (치의75) 김대영치과의원 원장	김 용 섭 (법학77)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필 수 (기계73) (주)아텍 부사장	김 도 실 (기약75) 경희대학교 기약과 교수	김 중 섭 (국문77)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
박 관 호 (경영73) 범우전자공업(주) 대표이사	김 성 훈 (한의75)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김 진 (경제77)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 기 석 (화공73) 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김 승 억 (행정75) 교보생명 부사장	김 창 주 (의학77)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수
박 덕 영 (행정73) (주)한맥휴먼테크 대표이사	김 유 신 (경영75) 미래S&A 대표이사	김 해 중 (체육77) 서일대학 사회체육골프과 교수(학과장)
박 동 수 (정외73) 전 순천시의회 의원	김 재 형 (의학75) 오산비뇨기과의원 원장	김 희 상 (의학77) 경희의료원 재활의학과 교수
박 중 수 (한의73) 인제한의원 원장	김 중 도 (법학75) 김중도법률사무소 변호사	나 왕 린 (정외77) 경희대학교 미래문화원 사무국장
박 중 은 (의학73) 박내과의원 원장	김 중 윤 (한의75) 경희한의원 원장	민 경 훈 (작곡77) 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부 봉 훈 (법학73) 법무법인 정암 대표변호사	김 중 혁 (법학75) 하나로저축은행 감사	박 상 백 (한의77) 경덕한의원 원장
서 용 진 (토목73) (주)유니콘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 중 회 (국문75) 경희대학교 문화홍보처장 겸 60주년위원회 사무총장	반 건 호 (의학77) 경희의료원 신경정신과 교수
서 인 석 (의학73)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 교수	김 준 현 (한의75) 김준현한의원 원장	상 형 중 (건축77) 삼우설계 설계실 소장
손 두 형 (미교73) 금호타이어(주) 상무	김 진 웅 (경제75) 김포탁주합동제조장 대표	송 형 중 (약학77) 태평성대약국 대표
심 명 식 (화학73) (주)아팩 대표이사	김 학 찬 (치의75) 맨하탄청원치과병원 원장	심 상 미 (신방77) 멘토영어교실 원장
양 상 은 (한의73) 수생한의원 원장	김 형 재 (정외75)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겸 부원장	우 정 택 (의학77) 경희의료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양 승 태 (물리73) 반도메트로(주) 대표이사	박 원 일 (의학75) 박원일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이 상 목 (의학77) 경희의료원 외과 교수
양 호 철 (경영73) 모간스탠리증권(주) 대표	박 윤 형 (의학75) 순천향의과대학 학장	이 선 교 (생물77) (주)넥스젠 대표이사
오 갑 렬 (정외73) 주 체코 대사	박 중 수 (경제75)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용 택 (화공77)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윤 중 일 (사학73) 서일대학 민족문화과 교수	손 성 현 (법학75) 법무법인 상선 대표변호사	이 창 군 (미교77) 대기엠테크 이사
이 문 석 (섬유73) SK케미칼 부사장	신 원 웅 (한의75) 신원웅한의원 원장	전 재 현 (전자77) 뉴욕동문화 회장
이 상 석 (영문73) 한국일보 부사장 겸 인터넷한국일보 대표이사	양 대 진 (물리75) (주)시스웨어 대표	조 경 준 (토목77) (주)대경이앤씨 대표이사
이 상 호 (치의73) 이상호치과의원 원장	오 인 섭 (치의75) UT치과의원 원장	조 동 현 (한의77) 동현한의원 원장
이 원 철 (한의73)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유 영 길 (의학75) 누리안내과의원 원장	주 수 만 (약학77) 경희메디칼약국 대표(약국장)
이 재 광 (치의73) 현대치과의원 원장	윤 현 구 (의학75) 관동외과대학 제일병원 내과 교수	최 덕 원 (정외77) 경희의료원 운영지원본부장
이 정 일 (의학73)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 경 우 (전자75) 삼성SDS 금융사업부2팀 상무	최 선 임 (간호77) 경희의료원 소아과 간호사
이 종 섭 (한의73) 정제한의원 원장	이 근 혁 (치의75) 이근혁치과의원 원장	최 선 탁 (법학77) 법무법인 영진 실장
이 찬 형 (사학73) 국보해운(주) 사장	이 명 해 (간호75) 경희의료원 간호본부 간호팀장	하 태 수 (약학77) 백두산약국 대표(약국장)
이 한 규 (행정73)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운영본부장	이 범 용 (한의75) 유명한의원 원장	한 기 광 (법학77) (주)화인시에스건설 대표이사
장 영 운 (의학73) 경희의료원 소화기내과 교수	이 장 우 (영문75) 이장우브랜딩마케팅그룹 회장	황 용 운 (물리77) 노바테크 대표이사
장 철 호 (기계73)	이 찬 표 (화학75) 진영약품(주) 대표이사	강 애 자 (의상78) 리통(주) 이사
정 석 재 (법학73) 크라운제과 고문	이 형 수 (의학75) 덕소제일의원 원장	강 이 현 (경영78) 금호타이어(주) 상무
정 철 민 (치의73) 정철민치과의원 원장	임 중 범 (토목75) (주)현준ST 대표이사	김 기 현 (한의78) 토당한의원 원장
조 한 목 (법학73) KB신용정보(주) 부사장	장 민 환 (물리75)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교수	김 동 섭 (화학78) 대성테크(주) 대표
홍 원 기 (영문73) GSD마케팅 사장	장 중 식 (행정75) 한국통합물류협회 상근부 회장	김 승 태 (조경78) 안양대학교 총장
공 진 석 (법학74) 경인물류(주) 대표이사	전 충 렬 (행정75)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김 연 근 (기약78) 수원대학교 관현악과 교수
권 영 욱 (의학74)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이사장	조 현 권 (법학75) 변호사조현권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병 기 (전자78) 리슨트(주) 대표이사
김 기 록 (행정74) (주)경희비즈넷 대표이사	최 규 완 (행정75) 일진그룹 사장	박 영 철 (치의78) 예담치과의원 원장
김 병 은 (간호74) 경희의료원 수간호사	최 승 훈 (한의75)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장	박 재 현 (법학78) 박재현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사 용 (법학74) 경찰병원 추모과장	최 종 일 (경영75) 두산중공업 부사장	백 승 학 (법학78) 법무법인 이우 변호사
김 신 일 (성약74) 지휘자	최 중 명 (의학75)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시 영 길 (식품공학78) 한국제분 대표이사

심 상 필 (전자78) 삼성전자 상무
안 민 호 (법학78) 삼성화재 법무지원팀 부장
안 상 배 (법학78) 와이에스장합동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안 승 희 (기약78) 대경정보산업고등학교 교사
안 형 준 (치약78) 이튼치과 원장
엄 은 주 (의상78) (주)진서 상무
엄 태 영 (법학78) 변호사업태영법률사무소 변호사
유 배 근 (경영78) (주)휴비스 전무
윤 영 석 (한약78) 수원한방병원 원장
윤 태 영 (의학78)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
이 범 기 (체육78) (사)한국목욕업중앙회 구로금천구지회 지회장
이 성 복 (치약78) 경희대치대병원 기획진료 부원장, 치의학전문대학원 학과장
정 영 기 (전자78) 넥스트림(주) 대표이사
정 용 해 (행정78) 변호사정용해법률사무소 변호사
조 은 수 (치약78) 조은수치과의원 원장
주 영 실 (의학78) 동화약품(주) 의학부 전무
최 무 수 (의학78) 최무수통증클리닉 원장
최 성 종 (약학78) 선강약국 대표
강 성 도 (법학79) 국민은행 계산동지점 팀장
강 진 형 (도예79) 여주대학 주얼리디자인학과 교수
강 현 철 (조경79) 유구도정공장 대표
구 자 춘 (행정79) 일간연예스포츠 회장
금 동 성 (건축79) (주)삼우구조건설턴트 대표이사
길 웅 (경영79) Ernst & Young Korea, 한영회계법인 상무이사
김 광 운 (무역79) 화신정보통신(주) 대표이사
김 대 중 (작곡79) 해피뉴이어 대표
김 도 영 (관광통역79) 한양여자대학 국제관광과 교수
김 락 희 (의상79)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 종 국 (법학79) 경희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 창 희 (화공79) 크라이부러그모 대표이사
동 석 호 (의학79) 경희의료원 소화기내과 교수
라 의 숙 (의상79)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겸임교수
박 춘 석 (기계79) GM대우자동차판매(주) 상무
박 한 준 (무역79) 신한은행 신당동지점 지점장
백 진 주 (가정관리79) (주)백영네트워크 한국총괄 이사
서 중 식 (법학79)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신 중 식 (철학79) 회령 대표
유 남 종 (경영79) (주)테라원 대표이사
윤 상 구 (한약79) 경희한의원 원장
이 상 명 (경영79) LA동문회 회장
인 재 환 (무역79) 닥터물류(주) 대표이사
전 영 대 (산업79)
전 춘 호 (한약79) 봉산한의원 원장
조 서 환 (영문79) 세라점 H&B 사장
최 승 완 (무역79)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센터 팀장
최 일 구 (국문79) MBC 보도제작국 부국장
홍 충 선 (전자79)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황 치 황 (건축79) 아키텍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강 흥 선 (의학80) 천안충무병원 심장내과 과장
김 달 래 (한약80) 경희동서신의학병원 사상체질과 교수
김 덕 윤 (의학80) 경희의료원 핵의학과 교수
김 동 선 (전자80) 경희대학교 문화홍보팀장
김 미 미 (성악80) 협성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김 성 만 (경영80) 세람상호저축은행 사장
김 정 렬 (한약80) 김정렬한의원 원장
김 태 희 (한약80) 예일한의원 원장
김 현 수 (한약80) 김현수한의원 원장
노 승 호 (회계80) 개원114 상무
명 남 재 (토목80) 건화 전무
박 미 숙 (법학8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주 환 (행정80)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팀 팀장
서 유 경 (영교80)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심 화 섭 (산업80) (주)JSI 대표이사
안 병 주 (무용80)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교수
이 병 준 (약학80) 태능프라자약국 대표
이 준 경 (식약80)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이 총 재 (중문80) 전 천안시의회 의장
이 호 숙 (미교80) 연북중학교 미술교사
이 희 준 (회계80) 동아일보사 이사
장 경 호 (산업공학80) 과천문화원 사무국장
장 종 준 (경영80) 펜타시스템테크놀로지(주) 대표이사
정 행 규 (한약80) 본디울 흥제한의원 원장
조 필 래 (전자80) (주)에이펙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진 승 범 (조경80)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이사
탁 기 천 (경제80) 경희의료원 QI팀 팀장
하 용 성 (영교80) 헤미항공해운 대표이사
권 주 혁 (법학81) 제일감정법인 충무이사/ 감정평가사
김 노 기 (회계81) (주)씨앤디 대표

김 동 근 (약학81) 동문약국 대표
김 명 근 (법학81) 법무법인 로투스 변호사
김 병 초 (무역81)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 영 권 (한약81) 백록당한의원 원장
김 영 일 (체육81) 수원서장대로타리클럽 회장
김 영 준 (경영81) 김영준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김 욱 균 (법학81) 변호사김욱균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정 곤 (한약81) 김정곤한의원 원장
김 중 찬 (전자81) 특허청 심사품질담당관 서기관
김 진 상 (전자81) 경희대학교 전자정보대학 교수
김 청 (무용81) 탤런트
김 호 철 (한약81)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박 원 진 (전자81) (주)지식서비스경영원 사장
박 창 현 (식품공학81) (주)희창유업 대표이사
선 기 철 (식품공학81) (주)한국미농 이사
신 동 권 (법학81)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안 정 선 (물리81)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오 길 중 (기계81)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 부장
오 동 호 (정외81)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 국장
오 상 운 (체육81) 전 수원시의회 부의장
오 호 균 (건축81)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장
우 금 숙 (기약81)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이사
유 미 자 (성악81) 유미오페라단 단장, mj엔터테인먼트 대표
유 병 윤 (무역81)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과
윤 보 성 (법학81) 법무법인태승 변호사
윤 태 상 (법학81) 경희의료원 물류팀장
윤 태 진 (의학81)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
이 규 원 (치약81) 이규원치과의원 원장
이 상 일 (수학81) 경희여자고등학교 교사
이 유 정 (기약81) 선행예고,명지대 강사
이 재 흥 (조경81) (주)애코밸리 대표이사
이 현 숙 (무용81) 덕원예술고등학교 현대무용 전임교사
이 형 래 (의학81) 경희대학교병원 비뇨기와 교수
임 수 철 (화학81) (주)내주 대표이사
정 영 교 (전자81) (주)에디텍 대표이사
정 진 (치약81) 유니온어린이치과의원 원장
정 진 모 (물리81)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정 진 춘 (체육81) 전 남양주 진접농협 조합장
조 장 수 (한약81) 본디울 양재아카데미한의원 원장
조 찬 복 (체육81) 한진휘트니스클럽 대표
한 광 령 (체육81)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한 복 희 (간호81) 경희의료원 서관6층 C병동 간호사
호 진 후 (토목81) 대우자동차판매 종로영업소장
홍 순 기 (법학81) 변호사홍순기법률사무소 변호사
홍 지 연 (간호81) 경희의료원 정형외과 주임간호사
강 영 주 (경영82) 현대상사 대표, 플로스개발(주) 부회장
김 문 주 (회계82) SC제일은행 람보여신상품팀 부장
김 영 규 (관광경영82) (주)체스투어즈 대표이사
김 용 은 (사학82)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행정계장
김 진 섭 (기계82) (주)리프텍 품질관리팀 부장
김 태 식 (건축82) (주)TK종합건설 (주)TS건설 (주)문덕건설 대표이사
김 현 규 (화공82) (주)SCT 대표이사
김 흥 노 (토목82) 태영 토목영업부 부장
노 광 숙 (한약82) 경희한의원 원장
노 순 택 (물리82) 플라워 리빙시스 대표
류 은 경 (한약82) 자인양한방병원 원장, 대한여한의사회 회장
박 선 희 (한약82) 천지인한의원 원장
박 치 범 (경영82) (주)필텍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신 흥 근 (한약82) 평화한의원 원장, 대한한방최면의학회 회장
왕 정 한 (건축82) (주)건축사사무소아라그룹 대표이사
이 강 구 (기약82) 아카데미타악기양상을 대표
이 주 태 (무역82) 미도교역(주) 대표이사
임 병 무 (환경82) 한국전력기술(주) 플랜트사업본부 환경기술그룹 차장
정 성 장 (정외82)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 수석연구위원
정 재 윤 (경제82) 흥성사료공업(정원축산)(주) 부사장
조 광 형 (법학82) 조광형법률사무소 변호사/변리사
조 선 경 (치약82) 선경치과의원 원장
조 성 익 (호텔경영82)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총지배인/이사
차 기 성 (수학82) (주)이니라인 대표이사
최 경 식 (관광통역82) 대호건설팀 대표
최 승 욱 (체육82) 성신여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한 동 현 (한약82) 한일한의원 원장
김 영 길 (조경83) G.W.F 조경대표
김 은 기 (한약83) 은한의원 원장
류 근 환 (조경83) 우인이앤씨 대표
박 은 용 (성악83) 모티브 싱어즈 대표
배 경 원 (스페인어83) 신우(주) 대표
배 원 규 (신방83) (주)지오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배 은 환 (의학83) 신촌리더스병원 원장
백 승 재 (원자력83) 현대자동차 영등포중앙대리점 부장
신 재 술 (기약83) 개인사업
신 진 영 (경영83) 신동페인트(주) 대표이사
오 현 일 (정외83) 에이스침대 천안쌍용동지점 대표이사
윤 석 주 (신방83) 디보트픽처스 대표
이 상 선 (산업83) (주)두우엔지니어링 부사장
이 유 정 (의상83) 유정텍스타일
이 재 우 (경영83) 신성회계법인 이사
이 창 민 (무역83) (주)카멜리스 대표이사
정 북 철 (법학83) 경희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조 광 희 (중문83) 대보산업개발 대표이사
채 영 호 (의학83) 바른병원 원장
최 경 규 (치약83) 경희의료원 치대병원 보존과 교수
최 경 해 (생물83) (주)다옥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최 차 희 (화공83) 특허청 복합기술심사3팀 서기관
홍 봉 화 (전자83) 경희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교수
강 신 아 (법학84) (주)엠티지 대표이사
고 현 봉 (컴퓨터84) (주)아리울dnd 대표이사
권 영 진 (무역84)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사과장
김 격 수 (신방84) 동일하이빌(주) 상무
김 남 균 (수학84)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 민 석 (체육84) 유로코리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대표
김 연 (가정관리84)
김 연 호 (토목84) (주)한울이엔씨 대표
김 종 국 (법학84) 변호사김종국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태 년 (행정84) 전 국회의원, 민주당 수정구지역위원장
노 호 성 (체육84)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박 명 삼 (회계84) 세무사박명삼사무소 세무사
방 남 석 (불문84) 삼익그린가드(주) 대표
부 일 경 (의학84) 한사랑병원 원장
송 종 경 (약학84) 차세대약국 대표
신 상 철 (행정84) 서울특별시청 맑은환경본부 환경협력과장
안 영 훈 (국문84) 경희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유 명 우 (경제84) (주)유명골프클럽 회장
유 영 길 (경영84) 세이브존 대표이사
윤 갑 경 (체육84) 썬키스트 코리아 지사장
이 대 균 (경제84) 기획재정부 발행관리과 서기관
이 용 진 (체육84) 삼화콘덴서(주) 대표
임 진 택 (기계84) (주)유니온넷 대표이사
임 한 욱 (체육84) (주)동진글로벌 대표이사
정 용 엽 (법학84) 경희의료원 홍보팀장
정 정 택 (체육84) 평창주류합동 대표
정 지 행 (한약84) 정지행한의원 원장
정 찬 민 (체육84) 중앙일보 사회부 수도권취재본부장
주 영 삼 (체육84) 대한체육회 전임지도자
지 용 호 (법학84)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황 의 표 (건축84)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김 요 섭 (환경85) 국회의원 보좌관
김 진 돈 (한약85) 운제당한의원 원장
남 상 수 (한약85) 강남경희한방병원 척추관절센타 과장
문 영 훈 (법학8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단체지원과장
박 대 순 (법학85)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장
박 흥 진 (전자85) (주)엘티에스 대표이사
서 현 덕 (신방85) 라이브엔터 대표
신 상 섭 (도예8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차장
이 길 래 (미교85) 경희대학교 강사
이 일 우 (컴퓨터8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부문 팀장
이 재 환 (기약85) 밀레니엄 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
이 정 규 (경영85) 경희대학교 교양학부 행정실장
임 중 호 (법학85) 노무법인 B&K 노무사
장 영 근 (무역85) 경기도청 비전기획관실 기획관
정 영 조 (경영85) 대정스텐레스산업(주) 대표이사
정 진 용 (조경85) 청와조경(주) 대표이사
조 봉 엽 (영문85)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조 양 래 (법학85) 법무법인 태승 국장
차 은 정 (식영85)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 교장
강 경 태 (한약86) 강경태한의원 원장
강 민 석 (경영86) (주)비엠씨지코리아 대표이사
구 본 영 (체육86) (재)용인공원 마케팅본부 차장
김 기 철 (농학86) (사)한국육묘산업연합회 사무국장
김 덕 교 (의학86) 미래연합의원 원장
김 문 희 (의학86) 크리닉신의원 원장
김 유 경 (성악86) 안양대학 강사
박 의 형 (경영86) 아세아빌딩 대표
신 봉 주 (기약86) 컴파스타악기양상을 대표
이 경 욱 (미교86) 화가
이 유 용 (작곡86) (주)잼필름프로덕션 대표

이 의 웅 (회계86) 지성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
정 종 국 (한의86) 구로경희한의원 원장
최 상 봉 (경영86) (주)씨씨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최 인 정 (의상86) 아우디디자인실 실장
최 진 혁 (수학86) 경희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강 병 남 (경제87) 국민은행 돈화문지점 부지점장
김 해 영 (성악87) 경희음악학원 원장, 경기도음악교육협의회 회장
노 경 갑 (조경87) (주)백두조경 대표이사
양 광 모 (국문87) 휴먼네트웍스연구소 소장
유 창 덕 (철학87) 굿커리어 대표이사
윤 덕 진 (경영87) 레미안건설(주) 관리팀장
윤 민 상 (경제87)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 상 혁 (정외87) 동화음향산업(주) 대표이사
이 진 원 (기악87) 한국콘서바토리 관현악과 교수
이 창 흘 (행정87) 환경부 장관실 비서관
조 준 희 (기계87) (주)유라클 대표이사
권 기 석 (체육88) 하이웍스 마케팅그룹 실장
박 홍 근 (국문88) 전 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이 경 자 (성악88) 선화예술고등학교 강사
최 성 용 (법학88) 법무법인 이수 변호사
하 석 배 (성악88) 계명대학교 성악과 교수
김 은 옥 (식영89) (주)휴먼인스 지점장
송 은 영 (의상89) 서이무역 RND실장
오 명 진 (경영89) 전 (주)서희건설 상무이사
이 승 현 (성악89) 송월사 대표
이 정 희 (국문89)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조교수(한국어교육부장)
천 준 호 (사학89) 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최 연 웅 (약학89)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이사
정 봉 섭 (호텔경영90) (주)파티나라 대표
김 정 대 (기계91) 한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한 지 광 (호텔경영91) (주)케이알상영 대표이사
강 선 영 (아동주거92)
김 재 근 (경영92) 씨디산업(주) 대표이사
서 경 민 (경영92) 성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 국제부 변리사
엄 충 흘 (중문92) 미8군 복지근무단
이 상 현 (법학94) 법무법인 디지털 변호사
정 덕 환 (경영94) (주)힘찬케이블 대표
우 중 훈 (체육96) 청호시행 상무

이사 (대학원)

강 대 훈 (경영대학원) (주)제주동서관광 대표이사
강 덕 영 (대학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대표이사
강 두 칠 (경영대학원) (사)한국식품가공협회 상무
강 명 옥 (평화복지대학원) (사)한국국제개발연구소 이사장
강 정 복 (경영대학원) (주)임진강김치 대표이사
고 만 규 (NGO대학원) 공동리봉사협회 회장
고 병 천 (행정대학원) 금호철강 사장
공 건 영 (행정대학원) 다산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공 태 보 (체육대학원) (주)영풍TPE 대표이사
구 구 회 (언론정보대학원) 의정부시의원
구 문 회 (행정대학원) (주)E&C 대표
구 자 열 (경영대학원) 유원전설(주) 회장
권 오 진 (경영대학원) (주)대한관광여행사 대표이사
권 오 현 (행정대학원) 법무행정교육원 원장
권 중 길 (행정대학원) JK그룹 회장
권 천 혁 (국제법무대학원) 서울종합기계 대표
권 희 필 (국제법무대학원) 전 제천시장
김 갑 석 (NGO대학원) (주)대한장외은행, (주)대장건설 회장
김 갑 용 (행정대학원) 리치전자 대표이사
김 경 남 (테크노경영대학원) 태안농협 경제사업장
김 경 철 (행정대학원) 도조염전 대표
김 규 화 (행정대학원) 삼성공간개발 대표이사
김 기 오 (국제법무대학원) (주)국제아카데미 대표이사
김 대 응 (언론정보대학원) 브리양산업(주) 대표이사
김 두 식 (행정대학원) 전 문경시발전협의회장
김 면 규 (경영대학원) 김면규세무사사무소 세무사
김 미 숙 (체육대학원) 새명한방제약(주) 부사장
김 부 현 (경영대학원) 태성흥업(주) 사장
김 상 기 (행정대학원) 천일안경 콘택트 대표
김 상 식 (행정대학원) 삼성디지털프라자 대표
김 상 평 (경영대학원) 태광기계공업(주) 대표
김 선 관 (경영대학원) 김선관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김 성 규 (행정대학원)
김 성 균 (테크노경영대학원) 김성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김 성 준 (대학원) 김한의원 부원장
김 연 재 (관광대학원) wa미술학원 원장
김 영 환 (행정대학원) 충청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김 옥 수 (경영대학원) 김옥수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김 완 래 (테크노경영대학원) 필리핀국립이스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용 기 (경영대학원) (주)코스핀 대표이사
김 원 기 (체육대학원) NS하이텍(주) 대표이사
김 윤 헌 (테크노경영대학원) 대유통신(주) 대표이사
김 을 곤 (행정대학원) 상일제약 대표이사
김 응 규 (경영대학원) (주)윙기 대표
김 일 기 (경영대학원) (주)중앙전람 대표이사
김 장 수 (경영대학원) GnB영어전문교육(주) 대표이사
김 재 국 (경영대학원) (주)문원사 대표이사
김 재 성 (경영대학원) (주)미래데이터 대표이사
김 재 학 (언론정보대학원) 채널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김 종 상 (경영대학원) 세일세무법인 대표
김 창 기 (행정대학원) 리스패션 대표
김 창 만 (경영대학원)
김 천 옥 (경영대학원) 한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김 충 규 (경영대학원) 대통령자문위원회 상임위원
김 풍 수 (경영대학원) 대한콘베어 대표
김 학 곤 (국제법무대학원) 예진주얼리 대표
김 학 권 (경영대학원) 재영솔루텍(주) 회장
김 해 정 (국제법무대학원) (주)창영베아링 대표이사
김 호 찬 (경영대학원) 김호찬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노 숙 희 (대학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노 정 철 (행정대학원) 도서출판수험사 대표
류 주 선 (교육대학원) 성우재단 상근감사
문 종 태 (경영대학원) (주)성일약품 회장
박 대 병 (경영대학원) (주)에이파스 대표이사
박 미 화 (관광대학원) 대한적십자사 풍산봉사회 회장
박 성 현 (국제법무대학원) (주)한국두성 대표이사
박 세 진 (대학원) 의료법인 동서한방병원 의무부원장
박 신 호 (경영대학원) (주)아이룩스 대표이사
박 영 찬 (언론정보대학원) 카네기연구소 대전/충청 소장
박 정 길 (테크노경영대학원) 범진공업(주) 대표이사
박 정 효 (평화복지대학원) 섬김과나눔교회 목사
박 풍 우 (경영대학원) 세무사박풍우사무소 대표
박 필 우 (경영대학원) 세화협동농장 회장
박 형 식 (테크노경영대학원) (주)대덕휴비스 대표이사
박 희 춘 (행정대학원) 중국평형침구의학연구소 소장
배 병 복 (관광대학원) 청원건설 회장
배 송 원 (경영대학원) (주)디지텍파워 대표이사
백 복 기 (경영대학원) 화승토건(주) 대표이사
변 태 문 (행정대학원) (주)플러스건설산업 대표이사
사 순 문 (평화복지대학원) 장흥학당 부당주
서 선 호 (행정대학원) (사)한국사회복지개발원 원장
서 영 두 (경영대학원) 도서출판 흥문관 대표
서 의 석 (행정대학원) (주)정공사 대표이사
서 희 석 (대학원) ㈜대성지적 GIS기술단 대표
손 용 우 (평화복지대학원) 밝은사회국제본부 정책기획위원
송 석 근 (경영대학원) 동신양행 대표
송 영 수 (행정대학원) 세지시스템(주) 회장
송 용 식 (대학원) 유태엔지니어링 회장
송 치 석 (테크노경영대학원) 송치석세무사사무실 대표
송 성 신 (행정대학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신 장 용 (테크노경영대학원) 사단법인 경기발전연구소 이사장
신 현 만 (경영대학원) 동서울진흥(주) 대표이사
신 호 곤 (국제법무대학원) (주)파워골프 대표이사
심 정 현 (행정대학원) 전 동대문구의원
심 평 섭 (언론정보대학원) ㈜GBA코리아 대표이사
안 중 태 (행정대학원) (주)서울스마트 회장
안 호 원 (언론정보대학원) 메디팜스투데이 논설위원및주간, 부천대학 객원교수
엄 강 웅 (경영대학원) 삼척테마타운 회장
엄 석 오 (경영대학원) (주)일레븐건설 대표이사
염 강 문 (경영대학원) (주)한국토포트 대표이사
오 공 균 (국제법무대학원) (사)한국선급 회장
오 돈 섭 (행정대학원) 법무사오돈섭사무소 대표
오 용 순 (언론정보대학원)
오 은 택 (테크노경영대학원) (주)에이플러스원 전무이사
오 진 환 (국제법무대학원) 세계법무법인 변호사
오 흥 원 (경영대학원) 신성성유 대표
우 방 우 (경영대학원) 금양상선(주) 회장
원 준 식 (테크노경영대학원) (주)셉피플 대표이사
유 경 선 (평화복지대학원) 김춘진의원실 보좌관
유 광 옥 (교육대학원) 삼육대학교 체육문화센터 관장
유 덕 자 (경영대학원) 태원석유 대표
유 문 중 (경영대학원) (주)신우 대표
유 상 언 (경영대학원) (주)신일철재 대표이사
유 장 식 (테크노경영대학원) 청학세무법인 세무사
윤 광 재 (테크노경영대학원) (주)에이싱 대표이사
윤 덕 영 (체육대학원) 경희대윤덕영태권도스쿨 대표이사
윤 병 호 (국제법무대학원) 법무법인 동산 변호사
윤 성 노 (경영대학원) 늘푸른조경개발(주) 대표이사

윤 성 진 (행정대학원) 삼승종합건설 위원장
윤 여 광 (대학원) 스포츠조선 미디어연구소 소장
윤 재 수 (국제법무대학원) 전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 중 훈 (대학원) 연세공인중개사 대표, 로고스보험법인대리점 대표
이 계 환 (테크노경영대학원) (주)유니엔비 회장
이 관 용 (행정대학원) 동양무역(주) 대표이사
이 광 수 (행정대학원) 세무사이광수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 규 상 (행정대학원) 민주평화통일 자료회의 경상남도 사무국장
이 덕 길 (경영대학원) 현대세무회계사무소 회계사
이 덕 재 (테크노경영대학원) 덕산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 동 창 (경영대학원) 동주철강(주) 대표이사
이 명 재 (체육대학원) (주)MS Tour 회장
이 민 호 (대학원) 경희대학교 한방재료가공 학교기업 운영이사
이 병 남 (경영대학원) 골프헤럴드 부회장
이 상 석 (대학원) 법무법인 으뜸 대표변호사
이 상 준 (국제법무대학원) 프리미호텔 대표이사
이 석 찬 (경영대학원) 세왕병원 대표
이 성 식 (국제법무대학원) 이성식세무사사무소 세무사
이 성 현 (행정대학원) (주)남영T 대표이사
이 성 환 (대학원) 기원한의원 원장
이 영 운 (체육대학원) 동양메이저/건설 대표이사
이 영 진 (체육대학원) 알즈너경희대리점 대표이사
이 용 기 (관광대학원) 유앤씨개발(주) 전무이사
이 원 우 (국제법무대학원)
이 윤 식 (경영대학원) 이한ENC 대표이사
이 윤 형 (테크노경영대학원) 대웅산업건설(주) 대표이사
이 은 정 (체육대학원) 대림대학 겸임교수
이 은 조 (경영대학원) 장난감천국 대표
이 재 석 (행정대학원) 초림식품 대표
이 재 춘 (행정대학원)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원 원장
이 중 탁 (경영대학원) 세무법인 원원 대표이사
이 치 랑 (경영대학원) (주)대정프라자 대표회장
이 택 근 (국제법무대학원) 룡근건설(주) 대표이사
이 현 수 (경영대학원) 변호사조철호법률사무소 실장
이 호 우 (경영대학원) (주)풍요론 대표이사
임 금 식 (행정대학원)
임 기 주 (행정대학원) 한맥테크산업(주) 대표이사
임 명 환 (경영대학원) 풍성건설(주) 대표이사
임 진 택 (행정대학원) 랜드공인중개사 대표
장 완 석 (테크노경영대학원) 올림픽대권도 대표이사
장 일 헌 (국제법무대학원) (주)출산 회장
장 찬 기 (국제법무대학원) 해동재단/ 해동의료재단 이사장
장 철 민 (경영대학원) 스키아프로골프(맞춤클럽전문브랜드) 대표이사
장 한 섭 (국제법무대학원) 삼성화재덕수지점 대표
전 규 열 (언론정보대학원) 대한생명 AM사업부 교육담당
전 중 덕 (국제법무대학원) (주)유평종합건설 대표이사
정 갑 철 (대학원) (주)정안 대표이사
정 동 옥 (교육대학원)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 학장
정 운 숙 (행정대학원) 경희체대입시학원 원장
정 장 수 (경영대학원) 여산레저(주) 대표이사
정 준 목 (경영대학원) (주)미디어트비전 대표이사
정 준 호 (경영대학원) 정호상사(주) 대표이사
조 옥 현 (체육대학원) 인천기독병원 치료센터장
조 용 철 (언론정보대학원) 연합뉴스 대구경북지사 고문
조 일 령 (행정대학원) (주)근화 대표이사
조 임 연 (행정대학원)
조 진 환 (교육대학원) (재)배천조씨장학회 이사장
지 중 학 (언론정보대학원) 경남대학교 초빙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진 동 규 (행정대학원) 전 대전 유성구청장
차 희 상 (행정대학원) 전 경기도의원, 민주평화통일경기지역 상임부회장
채 방 은 (대학원) 법무법인 한덕 대표변호사
채 영 덕 (경영대학원) (주)시룩스 대표이사
최 강 수 (경영대학원) 데아체팜(주) 대표이사
최 관 수 (경영대학원) (주)DGI 대표
최 두 식 (경영대학원) (주)정환테크노피아 회장
최 봉 철 (행정대학원) (주)옥산실업 대표이사
최 선 희 (체육대학원) (주)케이 대표이사
최 성 근 (국제법무대학원) 화성골프클럽 대표이사
최 연 배 (경영대학원) DS전선소재(주) 대표이사
최 옥 철 (경영대학원) 전 국회의원
최 중 세 (언론정보대학원) 국방홍보원 매체심익관
한 영 료 (행정대학원) 전 (사)한국산체장애인복지중앙회 운영위원장
한 장 석 (국제법무대학원) 한장석세무사사무소 세무사
허 정 식 (경영대학원) 로경체육원 대표
홍 기 준 (평화복지대학원)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황 중 화 (경영대학원) (주)바른엠E&C 대표이사



정성으로 보내주신 성금 감사드립니다

제234호 (2010년 6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접수분)

※인터넷 지로 납부 시에는 이름, 학과, 졸업횟수(또는 입학년도), 연락처 등의 납부자정보를 꼭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장으로 입금하실 경우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 경희대학교충동문회 사무처

회장단분담금/협찬금/발전기금



이 건 수(정외60)
고 문
12,200,000원



박 찬 범(정외63)
명예회장
3,000,000원



변 정 환(한외55)
자문위원
1,000,000원



최 병 설(법학57)
자문위원
1,000,000원



김 상 해(법학59)
자문위원
1,000,000원



정 운 기(법학60)
자문위원
1,000,000원



윤 덕 보(정외65)
자문위원
1,000,000원



정 재 규(치의68)
수석부회장
1,000,000원



이 한 기(상학62)
부 회장
1,000,000원



윤 태 현(경영63)
부 회장
1,000,000원



이 영 옥(정외63)
부 회장
1,000,000원



이 철 두(법학65)
부 회장
1,000,000원



최 동 량(법학66)
부 회장
1,000,000원



김 홍 점(법무원03)
부 회장
1,000,000원



오 영 학(신방67)
부 회장
1,000,000원



송 권 영(신방69)
부 회장
1,000,000원



정 범 구(정외71)
부 회장
1,000,000원



지 범 석(행정96)
부 회장
1,000,000원



정 명 선(행정75)
부 회장
1,000,000원



이 한 구(언정원91)
부 회장
1,000,000원



김 문 기(식품공학76)
부 회장
1,000,000원



김 현 철(치의76)
부 회장
1,000,000원



김 한 석(체육84)
부 회장
1,000,000원

임원회비

※이사회비 20만원(단, 80학번 이후(학부), 61년생 이후(대학원)는 15만원)

오정근(한외46)	20만원	권영상(법학61)	20만원	윤승열(화학64)	20만원	이상걸(화학67)	20만원	김광호(농학69)	20만원	박종학(의학70)	20만원
정영섭(법학54)	10만원	김선하(한외61)	20만원	정혁래(약학64)	20만원	이종도(의학67)	20만원	김기태(한외69)	20만원	시상수(경영70)	20만원
박영식(법학55)	20만원	윤화자(체육61)	20만원	고재갑(행정65)	20만원	장문섭(신방67)	50만원	김달수(섬유69)	20만원	신훈선(한외70)	20만원
조성환(경제55)	20만원	이광언(법학61)	20만원	김희선(국문65)	20만원	정규림(치의67)	20만원	김성철(의학69)	20만원	이주형(도예70)	20만원
동일수(정외56)	20만원	허경열(사학61)	20만원	박경철(약학65)	20만원	주진철(의학67)	20만원	김진우(의학69)	20만원	홍무창(한외70)	20만원
신봉승(국문57)	20만원	박원일(정외62)	20만원	오정환(경영65)	20만원	허충림(의학67)	20만원	박순복(성악69)	20만원	홍성언(의학70)	20만원
문준전(한외58)	20만원	박건서(경기지도63)	20만원	함영균(정외65)	20만원	황갑석(정외67)	20만원	이옥용(행정69)	20만원	김광욱(신방71)	20만원
윤재준(한외58)	20만원	박명서(체육63)	20만원	강성길(한외66)	20만원	김영섭(한외68)	20만원	이영기(농학69)	20만원	김덕인(전자71)	20만원
윤종희(정외58)	20만원	구태희(생물64)	20만원	노화룡(법학66)	20만원	박수영(약학68)	20만원	권수갑(치의70)	20만원	김중배(한외71)	20만원
최병현(상학58)	20만원	김재윤(경영64)	20만원	이상호(한외66)	20만원	손인국(상학68)	50만원	김문희(의학70)	20만원	박준봉(치의71)	20만원
서관석(한외59)	20만원	김형철(법학64)	20만원	조영중(약학66)	20만원	신용범(치의68)	20만원	김재수(치의70)	20만원	서동원(행정71)	20만원
이환용(상학59)	20만원	박정일(법학64)	20만원	조해월(생물66)	20만원	정국희(약학68)	20만원	김향태(법학70)	20만원	최영용(의학71)	20만원
김영태(법학60)	20만원	박형채(법학64)	20만원	황성철(경영66)	20만원	이재각(체육68)	20만원	남삼극(의학70)	20만원	김현수(의학72)	20만원
박명규(상학60)	20만원	이돈영(경영64)	20만원	문경서(의학67)	20만원	이영범(행정68)	20만원	박순환(한외70)	20만원	박봉준(신방72)	20만원



경희대학교충동문회
KYUNG HEE UNIVERSITY ALUMNI

(유)동호상사 총합추류도매

대표이사 권태순 (경제학과.75入)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 304-2
TEL : 031-832-2417, 2196
Fax : 031-832-3033
E-mail : kts5409@hanmail.net

- 모교 개교 60주년을 축하합니다 -



“선진 금융 강국의 실현, 신용 사회의 구현으로”

신용(信用)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용!
스스로 관리하고 지켜야 합니다.

신용정보협회 회장 김 석 원 (행정, 66入)

임원회비

※이사회비 20만원(단, 80학번 이후(학부), 61년생 이후(대학원)는 15만원)

박재진(기계72)	20만원	공진석(법학74)	20만원	이찬표(화학75)	20만원	김성만(경영80)	65만원	김요섭(환경85)	15만원	이명재(체대원97)	20만원
소병욱(행정72)	20만원	권영욱(의학74)	20만원	박인건(기약76)	20만원	김정렬(한의80)	15만원	서현덕(신방85)	15만원	이상준(법무원99)	20만원
안상직(의학72)	20만원	김기록(행정74)	20만원	민경훈(작곡77)	20만원	이병준(약학80)	15만원	정영조(경영85)	15만원	공태보(체대원01)	20만원
육동신(한의72)	20만원	김병은(간호74)	20만원	송형중(약학77)	20만원	이희준(회계80)	15만원	차은정(식영85)	15만원	김재성(경대원01)	20만원
장종특(화공72)	20만원	김신일(성악74)	20만원	한기광(법학77)	20만원	신동권(법학81)	15만원	이의웅(회계86)	15만원	송석근(경대원01)	20만원
정지건(약학72)	20만원	김영천(건축74)	20만원	황용운(물리77)	20만원	우금숙(기약81)	15만원	유창덕(철학87)	15만원	최종세(연정원01)	20만원
이병철(물리72)	20만원	유오봉(조경74)	20만원	강애자(의상78)	20만원	이규원(치의81)	15만원	조준희(기계87)	15만원	김윤현(테경원03)	20만원
허금형(한의72)	15만원	윤인한(토목74)	20만원	강이현(경영78)	20만원	이재홍(조경81)	15만원	이승현(성악89)	15만원	오공균(법무원03)	20만원
김기선(행정73)	20만원	이경배(기계74)	20만원	김동섭(화학78)	20만원	이형래(의학81)	15만원	최연웅(약학89)	15만원	최선희(체대원03)	20만원
김사모(정외73)	20만원	이용기(경제74)	20만원	김연근(기약78)	20만원	정영교(전자81)	15만원	문종태(경대원79)	20만원	구구희(연정원04)	15만원
김석찬(영문73)	20만원	이태원(의학74)	20만원	안민호(법학78)	20만원	홍순기(법학81)	15만원	엄강웅(경대원82)	20만원	김경남(테경원04)	20만원
김정희(간호73)	50만원	전병관(체육74)	20만원	유배근(경영78)	20만원	정재윤(경제82)	15만원	송성신(행대원83)	20만원	김창만(경대원04)	20만원
심명식(화학73)	20만원	조병춘(법학74)	20만원	이성복(치의78)	20만원	이창민(무역83)	15만원	김풍수(경대원86)	20만원	이은정(체대원04)	15만원
양호철(경영73)	20만원	양대진(물리75)	20만원	조은수(치의78)	20만원	박영삼(회계84)	15만원	강대훈(경대원88)	20만원	이덕재(테경원05)	15만원
이상호(치의73)	20만원	윤현구(의학75)	20만원	윤상구(한의79)	20만원	송종경(약학84)	15만원	이윤형(테경원95)	20만원	윤덕영(체대원06)	20만원
이재광(치의73)	20만원	이명해(간호75)	20만원	황치황(건축79)	20만원	정정택(체육84)	15만원	박필우(경대원97)	20만원	장완석(테경원06)	15만원

평생회비

30만원

권은혜(사이버대)

김진화(치의82)

김혜연(의상78)

박규용(건축84)

박형조(경영88)

신규호(전자81)

오희동(철학87)

이명주(무용81)

이재문(체육87)

장찬식(지리86)

조동우(토목92)

조병춘(법학74)

최승욱(체육82)

한규승(의학84)

해외동문회비

필라델피아동문회 임명분(생물65)이사회비 \$200

단체연회비

신방과 65학번 단체연회비(20명) 400,000원

경희대학교총동문회

발행인 : 이 봉 관 (총동문회장)

편집인 : 이 진 곤 (총동문화 사무총장)

발 행 : 경희대학교총동문회

(재)경희대학교총동문장학회

주 소 : (우)110-380 서울시 종로구 권농동 115-3

전 화 : 02-744-8854~6

팩 스 : 02-744-0067

디자인 : 쿼토(02-2264-6511)

연회비

2만원

【경영대학】 김경배(경영85) 김경석(경영83) 김청훈(경영73) 김학관(경영81) 안호택(경영92) 이화용(경영72) 전종호(경영74) 최덕철(경영72) 강창호(상학61) 김승준(상학67) 김종철(상학60) 백신일(상학64) 연건희(상학60) 옥종림(상학64) 유규열(상학65) 윤영혁(상학60) 정진섭(상학58) 차건식(상학60) 김창호(회계83)	조병래(기계76) 우길명(산업80) 정진호(섬유83) 임희철(원자력79) 고성상(토목84) 이장준(토목84) 이호필(토목83) 정영국(토목84) 송석철(화공80) 이천일(화공82) 이희복(화공79) 임상언(화공95) 김정은(환경02)	오미연(영문84) 5만원 이무춘(영문61) 이영윤(영문82) 이원욱(영문81) 하승주(영문64) 임병철(철학88)	【법과대학】 강상수(법학75) 강석보(법학77) 고순홍(법학61) 권순무(법학57) 권승욱(법학64) 김달배(법학59) 김사웅(법학74) 김선경(법학62) 김선조(법학66) 김운식(법학65) 김지은(법학97) 노태우(법학57) 문수중(법학86) 박범성(법학86) 박순두(법학89) 박우일(법학86) 송은재(법학69) 신왕성(법학64) 양명천(법학61) 윤정기(법학96) 윤희중(법학67) 이건철(법학75) 이근직(법학75) 이민수(법학64) 이상윤(법학56) 이세열(법학56) 이종후(법학64)	이태균(법학65) 이호진(법학88) 장제선(법학57) 정동순(법학71) 정정구(법학74) 정해춘(법학70) 지현기(법학61) 최승륜(법학61) 허 병(법학62) 홍웅대(법학57) 홍천용(법학56)	【사범대학】 이길래(미교85)	【사회과학대학】 이기철(경영91) 김태경(무역85) 이수철(무역83) 안윤성(사회67) 민영보(행정81)	【생명과학대학】 정호웅(유전94) 명광민(원예생명33)	【생활과학대학】 김경애(의상61)	【약학대학】 송종경(약학84) 허 온(약학65)	【외국어대학】 이지영(스페인어01)	김다영(중국어01) 【음악대학】 김영은(기약03) 김용윤(음악58) 이송매(음악60) 이은자(음악61) 고경숙(작곡73) 【응용과학대학】 송치윤(물리83) 이허겸(수학82) 【의과대학】 김명희(간호80) 박혜정(간호94) 조문형(간호73) 엄형택(의학72) 【이과대학】 김규욱(지리59) 이송우(지리65) 박준희(화학00) 정택기(화학86) 【전자정보대학】 류한승(전파96) 【경영대학】 강병남(경제87) 강삼주(경제56) 권태림(경제61) 김기돈(경제64) 김상각(경제59) 김성호(경제80)	김용섭(경제65) 박경래(경제86) 박병천(경제72) 박수민(경제56) 박정환(경제91) 신상철(경제86) 양승상(경제58) 오만중(경제83) 오석진(경제85) 윤병목(경제72) 윤일근(경제89) 이은호(경제67) 이재민(경제85) 이주현(경제91) 이천호(경제82) 이태경(경제87) 임성호(경제89) 정춘원(경제63) 조인규(경제59) 최도영(경제85) 최성우(경제88) 최연의(경제61) 하준양(경제89) 송영호(국방외교64) 강석훈(무역84) 김강경(무역89) 김만재(무역80) 박용수(무역86) 박태현(무역86) 이호진(무역83) 강봉식(신방65) 권기유(신방69) 김성희(신방65) 김양태(신방73)	김용한(신방65) 김윤식(신방65) 김이선(신방74졸) 김태명(신방65) 김현배(신방65) 김희성(신방65) 박도화(신방65) 박애숙(신방65) 송 릉(신방65) 송중숙(신방65) 신범철(신방65) 안명수(신방65) 윤주삼(신방71) 이래성(신방65) 이명자(신방65) 이영숙(신방65) 이윤재(신방65) 전홍국(신방66) 정건호(신방74) 정군화(신방67) 조용준(신방65) 차호식(신방65) 최규섭(신방65) 황인규(신방65) 김광호(정외66) 김청자(정외60) 백명제(정외55) 송건창(정외60) 윤용찬(정외67) 이우찬(정외77) 이인혁(정외65) 조형택(정외65) 고규복(행정68) 김욱경(행정64) 김유웅(행정64)	문창영(행정78) 박국용(행정61) 배성수(행정74) 백한기(행정60) 안찬구(행정82졸) 안충모(행정68) 유종완(행정87) 이재현(행정86) 최장길(행정86) 최종천(행정79) 허 열(행정61)	유만진(한의82) 이응세(한의56) 이정규(한의59) 한화중(한의59)	【호텔관광대학】 이선화(식영87) 김민수(컨벤션00) 김윤정(호텔경영99) 엄기중(호텔경영93) 유방호(호텔경영78)	【경영대학원】 김정환(경대원80) 김창만(경대원04) 류시훈(경대원85) 신형환(경대원85) 이명식(경대원83졸)	【교육대학원】 리영일(교대원78) 문성록(교대원76)	【국제법무대학원】 박광태(법무원98)	【행정대학원】 박중서(행대원09) 신건배(행대원90졸)
--	--	--	--	---	----------------------------	--	---	------------------------------	---	-------------------------------	--	--	--	--	--	---	---	--	--------------------------------	---

연회비 2만원(평생회비 30만원) 납부 부탁드립니다

총동문회 연회비 2만원은 총동문회보 제작과 발송비로 쓰여집니다.

총동문회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총동문회보는 매월 24페이지 발행됩니다.

은행납부계좌(예금주: 경희대총동문회)

무통장입금 하신 후 전화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 국민은행 817-25-0007-721

* 우리은행 845-203729-13-001

* 농협 053-01-253561

* 제일은행 129-10-217854

* 신한은행 100-018-266960

* 하나은행 178-910012-61604

모교와 동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총동문회 사무처 | 주소: 서울시 종로구 권농동 115-3 동문회관 전화: 02-744-8855 팩스: 02-744-0067 이메일: khua2000@hanmail.net

www.wdoctor.com / www.worldwidedoctor.com

대한한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9-중-4893호

한 의사 서효석
(평강한의원 원장)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평강한의원

한 의사 서효석(평강한의원 원장) 1972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도였던 청년시절부터 36년여의 세월동안 우리 한의학의 매력에 심취,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위협해온 아토피, 비염, 천식 등 고질병 정복을 위해 부단한 연구를 거듭해온 한 의사가 있다. 그가 바로 평강한의원 서효석 원장. 당시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그는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치료가 어렵다는 각종 고질병 퇴치를 위한 더 좋은 치료법 개발에 몰두해왔다.

36여년간의 오랜 경험과 연구, 세계를 향하다. 집념의 사나이 '서효석 원장'

"인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라는 전 인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평강한의원 서효석 원장은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세계 방방곡곡에 알리고자 드디어 세계 대장정(大長程)에 나섰다. 더 나은 치료법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의 불을 밝혀온 서효석 원장은 2009년 1월 31일, 평강한의원 서초점 개원과 동시에 평강한의원의 글로벌화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폐기능 강화를 통한 치료로 각종 고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완치의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저의 남은 생(生)을 바치겠습니다." 서원장은 알레르기 질환인 비염, 천식, 아토피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건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전세계인이 모두가 질병의 고통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 전 인류가 겪는 공통된 아픔이기에 이들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한 의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1월 31일, 마침내 서초 평강한의원의 키를 잡은 서효석 대표원장은 자신이 쌓아온 36년여에 걸친 땀과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인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세계무대를 향해 더욱 전진할 것이라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 전 세계에 알리고파 ~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미국 LA와 일본 오사카를 비롯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가고 있는 서효석 원장은 최근 중국에서도 그의 저서 '기적의 건강법'이 출간돼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어 중국 대륙에 대해서도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다. 그는 서울 서초동 평강한의원을 기반으로 그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었다. 세계는 결코 자신의 분야에서 게을리 하는 자를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는다. 목표를 세우고 남보다 빨리 거침없이 실행해 나감으로써 어느 분야에서든 탁월한 프로이자 1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과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추진력과 끈기로 매진하는 것만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평강한의원의 서효석 원장은 일본 오사카를 시작으로 마침내 일본을 향해서도 큰 날갯짓을 시작했다. 평강한의원의 한약처방의 글로벌화를 위한 새로운 막

아토피, 비염 등 고질병 다스리는 화제의 '한약'

이 열린 셈이다. 또한 평강한의원의 글로벌화의 전초 기지가 될 미국 LA에서도 평강한의원의 치료 기술을 만날 수 있다. 치료를 위해 일부러 태평양을 건너 한국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 시대나 수년간 특정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장인이 있기 마련이다. '폐가 건강하면 알레르기성 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서효석 원장. 앞으로 펼쳐질 서효석 원장의 세계를 향한 도전을 통해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기를 기대해 본다.

폐기능 향상으로 인체면역력 강화

아토피, 비염 등 고질병 다스리는 화제의 '한약'

한의학에서는 폐를 인체의 모든 기를 주관하고 대기와 기운을 주고받는 교환처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폐(肺)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종 질병을 다스리는 열쇠로 보는 평강한의원 서효석 원장. 실제로 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자연의 기운을 흠뻑 받는 동시에 몸속의 악한 기운을 체외로 배출시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한의학의 오랜 치료 원리다. 오장육부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인 폐의 원기가 충실해지면 자연히

우리 몸의 자가 치유력과 면역력이 극대화되어 각종 폐 관련 질환도 쉽게 치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이러한 한의학적 원리를 기초로 하여 폐의 원기를 되찾아주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만든 한방약이다.

폐(肺)의 기능저하에 의한 질환인 감기,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폐렴, 비염 등 호흡기에 생기는 병과 편도선염, 인후염, 중이염, 축농증, 결막염 등 호흡기 주변에 생기는 질병은 물론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아토피 등의 증상 완화에도 좋은 효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서원장의 주장이다. 비염, 편도선염, 기관지염, 천식, 축농증, 중이염, 결막염, 폐렴,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아토피성 피부염, 여드름, 건선 등 폐와 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질환도 사실 알고 보면 모두 폐 계통의 질환들. 그는 폐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한방약과 호흡기를 개발해 환자들을 치료한 결과 난치로 알려진 크고 작은 질환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다고 말한다.

"폐는 인체의 으뜸장부이다. 따라서 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다"라며 폐 계통 치료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 서효석 원장은 폐 기능 강화로 아토피, 비염, 천식, 편도선염을 치료해온 장본인이다. 36년여의 세월 동안 우리 한의학의 매력에 심취해 온 평강한의원 서효석 원장은 앞으로 우리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많은 환자들에게 질병정복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고질병 완치'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으로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서초 본원의 시대를 개막한 평강한의원,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 건강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서효석 대표원장의 야심에 찬 모습에서 한 의료인의 고질병 완치를 향한 뜨거운 집념을 읽을 수 있었다.



마음을 편(便)하게 하고
몸을 건강(健康)하게 한다.

자사 브랜드를 키우는 것은 비단 기업들만이 아니다. 특정 분야를 선정, 노하우와 실력을 앞세워 자신의 브랜드 네임을 구축하고 있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 호흡기 질환 및 피부질환 치료로 유명한 평강한의원도 그중 하나. 평강한의원은 편도선염, 비염, 천식 및 아토피의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평강'이라는 브랜드는 "마음을 편(便)하게 하고 몸을 건강(健康)하게 한다."는 뜻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서효석 원장이 36년여에 걸친 연구를 통해 약효가 보장된 평강한의원의 한약 처방은 인체 면역력 강화와 자가치유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평강한 의원의 한약은 탕약뿐만 아니라 해외 환자들을 위해 보존기간이 길고 운반이 쉬운 탕약과 같은 효능을 지닌 녹두알 크기의 환약도 환자들에게 동시에 공급하고 있어 환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 서초점 : 02-518-7777
- 명동점 : 02-757-1717
- 산본점 : 031-397-7733
- 안산점 : 031-487-7773